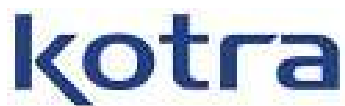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3
3.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8
2. 주요 산업 동향 /12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0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21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4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6
대한수입규제동향 /29
관세제도 /32
주요인증제도 /34
지적재산권 /36
통관운송 /47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50
- 외국기업 투자동향 /55
- 우리기업 투자동향 /57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60
- 진출형태별 절차 /61
- 투자입지여건 / 72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83
- 조세제도 /92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96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99
- 2. 물가정보 /102
- 3. 바이어발굴 /106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107
-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109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11
- 7. 이주정착 가이드 / 114
- 8. 출장가이드 /119



1996 MAGELLAN Geography, LLC Santa Barbara, CA (805) 685-3100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일본(JAPAN)
위 치	북위 45도 33분에서 20도25분 사이에 위치, 4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
면 적	377,829S/M (한반도 면적의 1.7배)
기 후	4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기후. 남-북 길이가 3,300km로 지역별 기후 차이가 심함
수 도	도쿄(東京)/TOKYO
인 구	1억2,775만 명, (총무성 통계국 2007.1.21기준)
주요도시	동경(8,483천명), 요코하마(3,579천명), 오사카(2,628천명), 나고야(2,215천명), 삿포로(1,880천명), 교토(1,474천명), 후쿠오카(1,400천명), 히로시마(1,154천명)
인 종	몽고족(大和族: 야마토족) 99%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언 어	일본어
종 교	신도 49.4%, 불교 44.7%, 기독교 0.8%
건국기념일	2월 11일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천황(明人: 아키히토)
수 상	福田康夫 (후쿠다 야스오) - 2007. 9 취임

나. 경제지표

명목 GDP	510조 4990억엔(2006년도 말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2.2%(2006년, GDP성장률) 0.4%(2007년 상반기GDP성장률)
1인당GDP	35,751 달러(2005년 명목GDP기준)
실 업 율	3.8%(2007년 3월)
물가지수	소비자물가: 0.3%(2006년12월, 전년비) 국내기업물가: 2.5%(2006년12월, 전년비)
화폐단위	Japan Yen (¥)
환 율	US\$ 1= 123엔(2007.6.30일 기준),
외환보유고	9,111억 달러(2007년5월 기준)
산업구조	1차 산업 4.4%, 2차 산업 27.0%, 3차 산업 67.4%
교역규모	수출 5,953억달러, 수입 5,162억달러, 무역흑자 791억달러(2005년) 수출 6,465억달러, 수입 5,772억달러, 무역흑자 693억달러(2006년) 수출 3,362억달러, 수입 2,934억달러, 무역흑자 428억달러(07상반기)

주: 연도는 회계연도(일본은 4.1-3.31) 기준을 의미

자료원: 일본 내각부 및 정부 발표자료, 일본은행, WTA, 일본국세도회, 일본경제신문사
발표 자료

다. 한-일 관계

체결협정	- 기본관계조약(65.12) - 어업협정(65.12) - 재일교포 법적 지위협정(66.1) -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65.12) - 문화재 및 문화협력협정(65.12) -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65.12) - 무역협정(66.4) - 대륙붕협정(78.6) - 과학기술협력협정(85.12) - 해난구조 및 긴급 피란협정(90.5) - 환경보호협력협정(93.9) - 이종과세 방지협정,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 교환각서·취업관광사증협정(98.10) - 新한일 어업협정(99.1.발효) - 한·일 투자협정(02.3) - 한일 FTA : 2004년 11월 6차협상 이후 협상중단																		
교역규모	○ 2005년 - 수출 : 24,027백만달러 - 수입 : 48,403백만달러 - 무역수지 적자 : 24,376백만달러 ○ 2006년 - 수출 : 26,534백만달러(전년비 10.4% 증가) - 수입 : 51,926백만달러(전년비 7.3% 증가) - 무역수지 적자 : 25,392백만달러(전년비 4.2%증가) ○ 2007년 상반기 - 수출 : 12,764백만달러(전년동기비 -1.53% 증가) - 수입 : 27,710백만달러(전년동기비 8% 증가) - 무역수지 적자 : 14,959백만달러(전년동기비 18.78%증가)																		
교역품	수출 : 석유제품, 액정제품, 반도체, 철강판, 무선통신기기등 수입 : 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철강판, 기초유분등 부품소재 중심																		
투자교류	일본의 대한투자 동향 (단위: 건, 백만불) <table><tr><td>구분</td><td>2003년</td><td>2004년</td><td>2005년</td><td>2006년</td><td>1962-06년</td></tr><tr><td>건수</td><td>495</td><td>553</td><td>608</td><td>579</td><td>9,457</td></tr><tr><td>금액</td><td>541</td><td>2,262</td><td>1,879</td><td>2,108</td><td>19,514</td></tr></table>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962-06년	건수	495	553	608	579	9,457	금액	541	2,262	1,879	2,108	19,514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962-06년														
건수	495	553	608	579	9,457														
금액	541	2,262	1,879	2,108	19,514														
교민	- 598,687명(법무성 입국관리국 2007년 발표, 2007년10월 기준 최신 수치) : 일본내 외국인 거주자의 29.8%로 가장 높은 비중(2위 중국, 3위 브라질순) - 한국, 북한국적 교포는 특별영주자수 감소로 1991년을 피크로 매년 감소 추세 504,420명(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제외)																		

자료원: KOTIS,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일본통계청, 일본법무성등

2. 정치 사회 동향

세계화, 국제화로 고립된 섬나라였던 일본 역시 서서히 변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은 거품 경제 붕괴 이후의 기나긴 어두운 시절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향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일본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몇 가지 주요한 키워드를 통해 그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가. 후쿠다 내각출범

자민당의 후쿠다 야스오 총재는 2007년 9월 중참양원의 수상지명투표에서 제91대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 시절, “그림자장관”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튀지 않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균형감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신조 정권에 등을 돌린 민심을 회복, 정권 교체의 위기에 놓은 자민당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시점에서 책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의 민심 얻기, 파벌정치 해소 등 국내정치 숙제와 대북관계 개선 등 국제정치의 숙제가 후쿠다 총리 앞에 있다. 과연 후쿠다 총리가 국내외적인 숙제를 무난히 해결하고 내년에 있을 총선거에서 자민당을 수성할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나. 격차사회

일본사회는 1980년대 까지만 해도 ‘1억 총중류 사회’로 인식되었다. 거품 경제가 꺼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품경제의 혜택을 누리며 대부분이 중류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거품경제가 꺼지고,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며 서구적 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빈부 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NEET족’, ‘프리터’ 등 새로운 하류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트렌드는 ‘하류사회’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며 화제를 낳고 있다. 한편 기존의 자산가 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여 기업 공개, 주식 투자, 고액 연봉 등을 통해 일약 거부를 쥐게 된 신흥 부유층이 등장하였다. 일본 사회도 이제는 이전의 ‘너도 나도 모두 함께’라는 의식보다는 노력하여 성공하는 사람은 잘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회 하류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격차 사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일견 공정하게 보이는 격차 사회는 ‘부의 세습’, ‘기회의 불균등’이 문제시되며 잠재적 사회 불안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다.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

일본 정부는 애당초 2007년부터 인구감소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05년도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자연 증가수는 -21,408명을 기록하여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 인구감소사회가 도래하였음을 고하였다. 또한 일본의 2005년도 합계특수출생률은 1.25로 2004년의 1.29에서 0.04포인트나 낮아졌다. 이러한 소자화에 의한 인구감소 추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100년에는 일본의 인구는 불과 6,414만 명 수준으로 현재에서 반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와 더불어 일본의 사회의 판도를 새로 짤 다른 하나의 축은 고령화 사회 도래이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는 이미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도에 20.5%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에 30%에 달하고 2052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격적인 추계치가 나와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는 정책, 마케팅 등의 기업 경영 전략, 삶의 모습 등을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할 것이다.

마. 메타볼릭 신드롬

늘씬한 허리에 대한 갈망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으로까지 옮겨갔다는 느낌이다. 겉으로는 날씬한 허리를 가지고 있어서 비만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내장에 지방에 축적되어 있으면 내장지방형 비만이라고 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성인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의학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작년부터 사회적 화제가 되고 있다. 그 발단은 작년 5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중년남성의 2명 중 1명은 메타볼릭 신드롬이거나 그 예비군’이라는 충격적 내용을 발표한 데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내장에 낀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한 승마형 운동기구 등, 메타볼릭 신드롬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상품이 봇물 쏟아지듯 나오고 있다. 이는 일본 사회의 건강 지향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바. 2007년 문제

2007년은 대학의 모집정원이 입학희망자수를 상회함으로써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학교는 아니더라도 진학은 가능하게 된 해이다. 이와 동시에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 (1947년~1949년생)가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일시 대량퇴직에 따르는 노동인구감소, 숙련기술의 단절 등을 지칭하여 2007년 문제라고 불린다. 현재 각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2007년 문제의 해결에 나서고 있다.

사. 음주운전문제

후쿠오카시에서는 작년 시청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린이 3명을 사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음주운전을 박멸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7년 5월 중에는 형법에 새로이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가 창설되어, 자동차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상 사고의 경우 기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비해 형량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취기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30만엔, 음주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50만엔 등 막중한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환기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일본은 우리나라와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종종 미묘한 대립 관계를 보여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민간레벨의 협력은 긴밀하게 이루어져오는 등 양면성을 내포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교역 측면에서는 대일무역역조문제가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와의 교역규모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부품, 소재 등의 대일 의존도도 덩달아 높아지는 현상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최근의 한일관계를 요약하면 '99.7월부터 기존의 수입선다변화 제도 전면철폐와 더불어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간다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한 이래 2004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 조치로 구체화 되어 오고 있다. 일본도 오부치 총리의 방한('99.3.20)시 투자보장협정, 이종과세 방지협정, 규격의 상호 인정 등 한/일 교류 확대를 적극 표명하고 있고, 나아가 양국간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한. 일 FTA(자유무역협정) 교섭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에는 세계인의 축구제전인 FIFA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분위기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편 2003년부터 NHK 위성방송으로 방영된 <겨울연가>가 붐을 일으키면서 2004년 이후는 한류가 일본 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힘입어 한국 드라마가 일본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되고 출연 배우들도 일본을 속속 방문하면서 한류 붐에 불을 지핀 바 있다.

한일양국은 양국 국교정상화이래 40년이 되는 2005년을 한일우정의 해로 정하고 관광, 문화, 이벤트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프로젝트를 실시해 한일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이 같은 교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이치 만박이 개최되는 기간 중에 비자를 일시 면제하고 2006년 3월 1일 기준, 한국인 관광객의 단기체제비자 면제 실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2005년 들어 교과서문제, 독도문제 등 역사 문제가 돌출하고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어지는 등 우호 협력 분위기가 상당부분 악화되어오고 있어 양국 정부 등 관계당국에서는 이 같은 국면의 타개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는 한 강연회에서 ‘한국, 일본 두나라는 하늘이 정해준 동지’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성공과 평화 번영은 분명히 일본의 이익이 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표현한 바 있는 등, 일본은 한국과 우호 친교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2007년 6월 27일 각 언론). 일본의 경우, 70년대 중국 및 한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끈 데에 이어서 2007년 현재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의 사항이 걸려 있는 등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번 한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이 배제된 4자회담(남, 북, 미, 중) 등이 이야기 되고 있음에 따라 한국 및 북한 등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FTA교섭에 앞서 양국은 2000년 5월, 9월에 21세기 한일 경제관계 긴밀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서울과 동경에서 교대로 개최하여 양국의 FTA(Free Trade Agreement) 추진에 관한 기본 입장을 JETRO 아시아 경제연구소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 한일양국FTA의 출발이 되었다.

한일 FTA는 포괄경제협정(EPA)형태로 추진기로 양국이 합의하고 한일간 FTA 준비 회의 성격의 제 1차 산학관 공동연구회의를 2002.7.9-10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03년 12월 까지 7차에 걸쳐 한일 공동, 산학관 FTA 공동연구회를 개최하였다

□ 한일간 FTA 교섭 일지

- 1차: 03년 12월, 협상추진체제 및 일정합의
- 2차: 04년 2월, 의제별 기본입장교환
- 3차: 04년 4월, 협정문 초안 교환
- 4차: 04년 6월, 분과별 세부논의 개시
- 5차: 04년 8월, 협정문 작성작업 개시
- 6차: 04년 11월, 상품양허안등 쟁점사항 협의(6차협상에서 중단)

한편, 06.09.26, 일본 동경에서는 KOTRA 및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KOREA BUSINESS PLAZA 제하의 한국과 일본기업간 수출상담회 및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 및 예술공연 페스티벌이 거행된 바 있으며, 여기에 참석한 일본경제산업성의 키타무라 토시아키(北村俊明) 심의관(한국 차관급에 해당)은 ‘한일관계가 더더욱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조기 개최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서울재팬클럽(한국진출日기업연합회)의 오자키에이지(尾崎栄治)이사장 역시 ‘한일 FTA가 체결되어 더욱 자유롭게 왕래하게 된다면 기업간의 협력관계, 보완관계가 진정되어 양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는 등, FTA에 대해 일본측 역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한국 정부의 경우 미국에 이어, EU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일본이 FTA의 최우선 대상국으로는 볼 수 없으나, EU와의 타결이 끝난 이후에는 일본과의 FTA 또한 시야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된다.

나. 한류와 대일 마케팅

일본에서는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위성TV(닛테레), 독립 케이블방송국,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한국의 드라마가 상영되면서 한류가 기반을 넓혀온 바 있고 이 같은 한류가 일본에서 붐을 이루고 사회현상으로까지 발전한 직접적인 계기는 NHK에 의한 ‘겨울연가’ 방송으로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韓流’가 일본어의 어휘로 등장 하게 되었다. 겨울연가는 NHK가 2003년 4월 위성 방송 채널을 통해 처음 방영된 데 이어 2004년 4월부터는 지상파로 옮겨 방송을 하면서 사회적인 붐을 일으켰다

그 이전에도 가수 ‘보아’가 일찍부터 일본에 진출, 일반 대중 층에 한국문화의 전도사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한류 붐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용필, 김연자 등 가수, 스포츠 선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선구자들이 한국문화 전파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한일 양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감정적 대립, 편견을 제거하고 우호 친선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한류는 민간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각종 히트상품 랭킹, 앙케이트에서 상위에 랭크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일본 내 한류 붐으로 드라마, 영화, 음반의 대일 수출이 적지 않게 증가 해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화상품 분야는 현재의 한류를 견인하는 분야로서 영화, TV드라마, 음악 콘텐츠, 나아가서는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분야로 확산되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들 분야에 앞서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한국 소프트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한게임, 그라비티 등의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분야별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영화와 관련하여 "한류 시네마 콜렉션"이 이케부꾸로 신문예좌에서 개최되었다. 2006년 1월14일~27일까지 총 28편의 영화가 상영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한류 시네마 페스티벌 2006"이 시네마트롯뽕극장에서 개최 되는 등 전국 극장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 중에 있으며 "한류 시네마 페스티벌 2005"에 이어서 한류 의 인기를 유지해 가고 있다

CS 방송국(스카이 퍼팩트)과 지역 독립방송국의 한국드라마, 영화 및 연예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발신으로 인해서 한류는 하나의 흐름이 아닌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물론, 디지털 방송, 방송통신융합에 의한 콘텐츠 수요의 증가가 한국 콘텐츠의 소비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인기의 비결의 핵심은 우수한 콘텐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일본 지역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 편성 현황

(2007.1)

지역	방송국	드라마명	지역	방송국	드라마명
홋카이도	홋카이도 TV	연가	아이치	TV아이치 TVA	신화
	홋카이도 HBC	Loving You	시즈오카	시즈오카제일TV SDT	불새
		겨울연가			Loving You
	삿포로 TV STV	모레시계	기후	시즈오카방송SBS	겨울연가
	TV홋카이도 TVh	천국의 계단			군세어라 금순아
	홋카이도문화방송UHB	쾌걸춘향	미에	미에TV MTV	허준
		행복은 우리 가슴에	오사카	ABC TV(아사히방송)	겨울연가
아오모리	아오모리TV ATV	겨울연가	효고	선TV SUN-TV	로즈마리
이와테	TV 이와테 TVI	웨딩			레디고
	이와테 아사히TV	12월의 열대야			수호천사
미야기	동북방송TBC	겨울연가	교토	KBS교토	눈사람
후쿠시마	후쿠시마추오TV FCF	겨울연가			닥터즈
관동지방	니혼TV NTV	프라하의 연인	토쿠시마	시코쿠방송 JRT	웨딩
	TV도쿄 TX	궁~Love in Palace		ABC TV	겨울연가
	TBS TV TBS	겨울연가	에히메	난카이 방송	Loving You
도쿄	도쿄MX TV	부활	카나와	니시니혼방송	불새
카나가와	tvk(TV카나가와)	팝콘	히로시마	히로시마 TV	미안하다사랑한다
		미안하다사랑한다		TV 신히로시마	겨울연가
치바	치바TV CTC	1%의 기적	야마구치	TV 야마구치	겨울연가
사이타마	테레타마(TV사이타마)	PaPa	후쿠오카	후쿠오카방송	군세어라 금순아
군마	군마TV	가을동화			겨울연가
도치키	도치기TV	여름향기			천국의 계단
나가노	신에츠방송SBC	겨울연가		TVQ큐슈방송	미안하다사랑한다
		미안하다사랑한다			Loving You
니이가타	UX니이가타TV21 UX	겨울연가			모래시계
이시카와	TV카나자와 KTX	눈사람	카고시마	카고시마방송	Loving You
후쿠이	후쿠이TV FTB	Loving You	오кина와	류큐방송	웨딩
토야마	툴립TV TUT	Loving You		류큐아사히방송	겨울연가
아이치	중부일본방송	겨울연가			

자료원: 와우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드라마와 영화의 방영에 의해 알려진 한국연예인의 팬 미팅과 공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영화는 한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로 과거의 러브 스토리 일변도에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와 다양한 계층을 영화가 개봉되고 있다.

한 편, 전통적인 한류 스타 ‘배용준’이 출연한 태왕사신기 등은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2007년 10월 현재, 한국에서의 방영이 끝나면, 이후 일본에서 극장 상영이 계획되고 있다. 또한 ‘도쿄 주간’ 및 ‘칸사이 주간’ 등 2개 잡지에 <베르사이유의 장미>, <울헤스의 창> 등으로 유명한 만화가가 ‘이케다 리요코’가 연재하는 만화로 재탄생되고 있는 등, 한류의 흥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신 경제 동향 및 전망

1) 최근 동향

일본 경제는 '02년 1월부터 상승 국면 진입 이래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규모 재정 투자 없이 민간 수요 주도로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이전의 경기 회복 국면과 궤를 달리하는 점이다. 기업들의 꾸준한 구조 조정 효과로 수익 구조가 개선되었으며, 기술 개발 기반을 강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경기'로 대변되는 최근의 경기 확장세는 일본 기업의 첨단 기술 개발력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2003년 중반 이후 수출, 설비투자,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지속 2004년 2/4분기 이후 수출과 생산이 부진(IT 재고누적 등에 기인)하여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경기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조정국면을 맴돌았으나 세계적인 재고 조정이 고비를 넘기고 내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2005년 8월을 기점으로 조정국면에서 탈피,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하였다

지난 5월 17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GDP 통계속보(1차 속보치)에 따르면, 2007년 1/4분기(1~3월)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6%(연율 환산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9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10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GDP 속보(2차 속보치)에 따르면, 2007년 2/4분기(4~6월)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연율 환산 -1.2%) 을 기록하여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년말 최종 조정시 확정하여 파악됨)

GDP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전기대비 0.3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성장이 둔화하였다. 여기 에는 2006년까지의 평판 TV 등 디지털가전 수요증가와 레저소비 증가에 의한 서비스 지출의 확대가 다소 주춤한 것에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투자는 전기대비 -3.4%(1/4분기 -0.3%)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작년까지 호조를 보였던 임대주택의 착공이 자재가격,지가,금리의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을 배경으로 하락으로 반전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이다.

민간설비투자 역시 전기대비 -1.2% (1/4분기 -0.9%)로 하락 중이다. 이는 기업의 대형 설비투자가 완료되었으며 신규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요 역시 전분기 +4.0%에서 1/4분기 -0.1%로 대폭 감소한 바 있다. 이는 정부 일반 회계에서 공공사업비 관련 삭감이 지속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재정 긴축이 시도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무역면에서는 아직도 견실함을 보였는데 수출은 전기대비 +0.8%로서 전 분기의 +3.3%에 비하여서는 낮은 수준이나, 9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으로의 수출은 부진하였으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의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2007년 1/4분기 일본경제의 성장에는 2006년 4/4분기와 달리 내수요인보다는 해외수요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행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걸쳐 내수와 외수, 기업과 가계가 균형적으로 점차 확대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4년 이상 계속된 꾸준한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2006년도는 2% 정도, 2007년도는 2%정도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점점 감속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실질 GDP 등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1/4	2007 2/4
실질GDP성장률	1.4	2.7	1.9	2.2	0.7	-0.3
민간최종소비지출	0.4	1.6	1.6	0.9	0.8	0.3
민간설비투자	4.4	5.6	6.6	7.3	-0.2	-1.2
주택건설투자	-1.0	1.9	-1.3	0.9	-0.8	-3.4
공공 투자	-10.8	-9.0	-6.2	-7.7	-0.4	-0.2
재화, 서비스 수출 증가율	9.2	13.9	7.0	9.7	3.4	0.8
재화, 서비스 수입 증가율	3.9	8.1	5.8	4.6	0.9	0.6

자료원: 일본 내각부, 2007.5.14일 발표치

주: 년 기준, 수출입 증가율은 엔화기준

한편 실업률은 2004년 3월에 4% 대로 하락한 후 2006년5월 기준으로 최저치인 4.0%로 하락하였고 2006년 12월에는 4.1%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 4월의 실업률은 3.8%로 1998년 이래 최저를 기록하였다. 물가는 기업물가가 고유가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는 기초상으로 내림세가 이어져 왔으나 2005년 11월 이후 소비자 물가가 플러스로 전환하여 2006년도 이후 -0.1%와 0.9%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다. 2007년도에 들어 물가상승률은 일본은행 판단 0.1%에 해당한다.

2) 향후 전망

2007년 일본 경제는 기업실적 호조를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 증가, 소비회복을 중심으로 경기의 회복확장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의 자율회복을 방해해왔던 금융 불안과 수요가 잠재적인 공급여력을 밀도는 수급 갭(GAP)이 축소되면서 경기의 자율적인 회복이 가능해졌다. 기업의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경기 전반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비는 고용과 임금환경의 개선, 주가상승 등 자산가격 회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소비계층이 지출을 확대하면서 플러스 기초가 지속되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함에 따라 2007년에는 완전한 디플레이션 상황을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엔화는 일본은행이 2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미국 및 유럽과의 일본의 금리차가 여전히 큰 만큼, 일본의 금리 인상은 엔저의 방향성을 돌릴 수는 있지만, 엔고로 전환될 가능성도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엔화의 추가 절상 가능성 및 아시아 통화의 전반적인 강세로 인해 엔화만 홀로 약세를 보일 경우 대내외의 엔고 압력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3) 소비 회복, 이자율 인상 여부 등이 성장률을 좌우

2007년도 일본경제 성장률은 2006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연구기관이 많다. 2006년부터 적용되는 정률감세(定率減税)의 점진적 폐지와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 증대가 소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기업의 수익증대가 개인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도 약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실적 호조가 유지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의 삭감에 따른 수익 상승 효과가 점차 체감 될 수 있으며, 공장 가동률 상승 및 기업의 투자증가와 더불어 소비가 증가 하여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탈출했다는 증거가 강화될 경우 일본은행이 2-3차례 이자율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자율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변화될 것이다.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2007년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 기조에서 벗어나 꾸준한 경기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미국경기의 연착륙 가능성과 신흥국가의 경제성장 및 엔저의 지속으로 수출증가 및 내수회복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금리(무담보 콜레이트)는 2007년 2월 21일 0.25%에서 0.5%로 인상한 이후, 6월 15일 일본은행 금융 정책 결정 회합에서까지 계속하여 현상유지를 결정해 오고 있다.

주요 민간연구기관의 GDP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실질	명목	실질	명목
부국생명보험	2.1	1.5	3.2	3.5
골드만삭스증권	2.1	1.4	2.5	2.5
미츠비시종합연구소	2.1	1.3	1.9	2.2
농림중금중방연구소	2.1	1.3	1.8	1.9
일본경제연구센터	2.0	1.4	2.1	2.4
니세이기초연구소	2.0	1.4	1.8	1.9
미츠비시UFJ컨설팅	2.0	1.4	1.2	1.2
니코코디알 증권	2.0	1.3	2.5	2.5
일본종합연구소	2.0	1.3	2.3	2.5
제일생명경제연구소	2.0	1.3	2.2	2.5
노무라증권금융경제연구소	2.0	1.3	2.2	2.5
다이와증권	2.0	1.3	2.1	2.5
메이지안젠생명보험	2.0	1.3	2.0	2.2
미즈호종합연구소	1.9	1.3	1.9	2.0
BNP파리바증권	1.9	1.2	1.8	1.8
일본은행	2.4	-	2.1	-
15개사 평균(일은치제외)	2.0	1.3	2.1	2.3

자료원: 일본경제신문(2007.2.21), 일본은행 2007년도 경제전망 발표자료

나. 일본경제 주요 현안 및 이슈점검

1)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 및 금리 인상

일본은행은 2006년 3월 9일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2001년도에 제로 금리 하에서 민간에 대한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완화 정책의 해지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 완화 정책은 금융 시장의 안정에는 기여하여 왔으나 금융 기관간 콜 거래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시중 자금 공급을 통한 실물 경제에의 파급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여 32조엔 수준의 당좌 예금 목표 잔고를 점진적으로 2001년 이전의 6조엔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 국채 월1조2000억 엔을 당분간 유지, 점진적으로 감액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와 더불어 일본은행은 7월14일 경제정책결정회의 후 단기 금리를 0%로 억제하고 있던 제로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다. 정책위원의 다수결로 결정(찬성6, 반대 3)으로 단기금리 유도목표를 0.25%로 인상하였고, 지불준비금도 0.1%에서 0.4%로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각각 0.1-0.25% 수준(2006년7월 말 시점)으로 소폭의 예금금리를 상승시켰다. 2007년 2월 21일에는 2006년 10월-12월기의 예상을 뛰어넘는 GDP성장으로 금리를 0.25%인상하여 단기금리를 0.5%로 끌어올렸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통화정책으로 돌아갔으며 양적 금융완화정책의 조기해제는 일본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다. 향후 일본은행은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하면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행은 2000년 8월에도 제로금리 정책을 해지하였으나 일, 미의 주가가 하락하고 디플레가 진행되어 단 7개월만에 제로금리로 돌아간 경위가 있어 향후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2007년 2월 21일 0.25%의 금리 인상을 하였으나 주요국가의 금리에 비하면 초 저금리인 셈이다. 일본의 초 저금리수준이 엔저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변국의 비판도 많은 만큼 일본은행이 경제적 상황을 보고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간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은 오는 8월경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다.

2007년 7월의 참의원 선거 이후 시점이 될 가능성, 미국의 금리인하가 연내에 없을 경우의 가능성, 7월 이후 금리관련 협의를 실시하는 일본은행내 9인 중 정치권과 관련있는 3인을 제외한 6인 등의 의견이 중지로 모아질 가능성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한 편, 2007년 9월에 들어, 불과 1년의 짧은 임기로 아베수상이 사임을 한 이후, 후쿠다 신수상이 취임함에 따라, 일본 시장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온건한 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는 신 수상의 성격상, 현재의 기조에서 크게 다른 경제정책으로 선회할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정보서비스

2007년 현재 일본의 정보서비스 산업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정보화 투자 수요로 시장 확대가 지속 되고 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정보서비스 산업 부문 합계 성장률이 0%대 였지만 2005년 이후 2007년에 들어서까지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 (EC)시스템을 구축해 조달 및 판매 비용을 절감하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내 정보 시스템의 재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등의 IT 관련 수요가 견실하다. 2006년3월 기준 과거 1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인구는 총8,529만 명에 달하여 전년 대비7.3%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인구 보급률도 전년대비4.5% 포인트 증가한 66.8%에 이르렀다.

일본은행 단기예측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투자계획 및 실적추이는 은행, 증권, 보험사등의 금융업,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회복세에 있다고 보여진다. 2006년도 전체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5.4%가 성장한 바 있다. 본래 정보서비스회사는 소프트 웨어의 개발이나 프로그램의 작성, 네트워크의 구축, 수탁정보, 계산처리 서비스, IT 컨설팅 에 주력해 왔다. 시장이 성숙과 더불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신규 안전보다는 아웃 소싱 등 고객기업의 시스템 개발 및 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 시스템이 비대해지면서 기업이 시스템 운용, 유지 경비를 억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또한, 2007년의 경우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등에 의하여 베테랑 기사등의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측면 등이 발생하며 보안상의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외부 아웃소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요회복의 움직임이 현저한 정보서비스사업이지만 한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이 출현하고 있다. 1. 업무기능모듈(서비스)를 조합 함으로써 시스템 전체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 방법의 변화, 2. 소프트웨어기능을 인터넷 경유로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등 기술의 변화, 3. 위탁개발 소프트웨어의 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술자확보의 면에 있어서도 중국, 인도의 IT벤더에 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오프쇼어 개발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시스템 개발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이용해 새로운 시스템을 위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NEC, 후지쯔, 히타치 제작소 등 대형 벤더 3사의 발주총액은 2005년도부터 30% 이상 신장, 500억 엔을 돌파하였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2005년도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일 것이며 2007년에도 견조한 확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NTT 데이터의 경우 2006년도에 15.2%의 사상 최대의 연결매상고를 올리는 등 대형 정보서비스 업계의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IT 관련 전자부품, 디바이스 생산 지수는 2006년 이후 소폭 감소 추세이며 이는 지난 2월 휴대음악 플레이어 등에 사용하는 플래쉬 메모리 가격의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분야의 수요자체의 수요는 여전히 견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유저로부터의 가격 인하 압력이 거세 단가 하락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별로 매출 증가에 의한 이익확보 보다는 생산, 시스템 구축의 효율화에 주력 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은행의 경우 메가 뱅크 시스템 통합, 차세대 시스템의 본격 개시가 예상되며, 보험에 있어서는 시스템 구축, 기타 J-SOX(실시 기준 초안은 2006년 11월에 공표되었으나

적용은 2008년 4월에 개시될 것으로 보임) 대응하는 내부 통제 관련 솔루션 등이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분야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병목 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철강

2007년 일본의 철강산업경기는 세계 동시 호황이라 할 수 있는 외수면에서의 호황을 바탕으로 견조한 확대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부문에 있어서는 2006년도에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호조를 보이며 확대하였으며 보통 철강재에서 생산 실적 전기 대비 2.5%가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도에는 생산 실적 부분에서 0.5% 정도가 확대되어 성장속도가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인 환경조성 측면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외수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실적이 2006년도에는 아시아시장의 조정국면이 끝남에 따라 전기 대비 전체 철강수출이 11.2% 증가한 바 있다. 2007년도에는 중국등의 대량수출과 범용품수요가 악화함에 따라 고급제품시장에서의 거래와 상쇄되어 전체 철강수출은 4% 정도 증가하는 정도로 보여진다.

조강생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4%의 대폭 증가한 바 있으며, 이는 과거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한 편, 2007년도에도 높은 수준의 생산은 전년 대비 +1.4%로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업용으로는 건설기계와 공작기계가 순조로운 산업기계용, 풀가동하는 조선용에 견인되어 확대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자동차용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일본차 확대 수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현지생산화, 원유가 상승을 배경으로 판매차종의 소형화가 진전되고 있으므로 강재수요로는 전년도 수요와 비슷할 전망이다. 또한 특수철강 재수요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제조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철강재 이상으로 증가 하고 있다. 해외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에 있어서도 특수철강의 현지조달은 어려워 당분간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엔화 약세등에 의해 원재료가격에는 비용 적으로 수급시 이익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나, 전체적인 이익수준은 아직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철강수요개요

	단위(백만 톤)	2004년도(실적)	2005년도(실적)	2006년도(실적)	2007년(예상)
일본 국내 내수	조강	80.5	83.6	84.3	84.8
	보통철강재	62.5	64.0	64.7	65.0
수출(전세계)	조강	37.6	34.6	38.6	40.2
수입(전세계)	조강	5.2	5.5	5.2	5.6
생산	조강	112.9	112.7	117.7	119.4
국내용 재고	보통재철강	5.2	5.3	5.4	5.4

자료원: 2007년 하반기 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 예측

한편, 200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중국제 강판류 수입은 중국제품에 대한 품질문제가 제기되면서 과열양상이 완화되고 있지만 한편에서 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조강의 경우 중국의 생산확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본의 주요 고로 회사들은 범용 품 감산에 따른 잉여 능력을 견실한 수요를 보이는 고급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강 생산량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범용 품 분야에서도 중국제와 일본제는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감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주요 철강 회사들의 감산추세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생산확대로 인해 범용품을 중심으로 수출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 제조업의 고급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있다.

신 일본 제철 등 철강대기업의 2006년 연결매상고는 전기대비 6.3% 증가한 108,680억 엔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결영업이익은 1.6%가 하락한 15,930억엔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재료가격의 상승등에 의한 영향이 있다고 보아진다. 기타 유로화와의 환율조정 등을 위한 가격 인상 등도 상정된다고 보아진다.

다. 자동차

전세계 자동차생산이 6000만대(05년6484만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그 중 1/3은 일본의 자동차메이커가 생산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GDP의 약 10%, 연간 총수출총액인 50조 엔의 약 15%를 차지하는 최대규모의 기간산업으로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취업인구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도의 일본 자동차의 내수시장 수요는 561만대(전년대비 4.1%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의 일본 자동차 수요는 545만대(전년대비 2.9% 감소)할 것으로 보여 아직은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지는 못할 것을 예상되었다.

가운데서도 2006년 히트상품에 선정되기도 한 경승용차는 높은 연비와 상품성과 더불어 기업별로 판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일반 승용차 시장은 미니밴, 컴팩트 카에 이어 신형 히트 차종이 출현하지 않는 가운데 차량 보유기간의 장기화가 진행되면서 신차 효과에 의한 교체수요 보다는 시장성숙화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인 요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향후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정률감세 폐지 등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감소와 시장성숙화로 인한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 시장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수출의 경우 2006년까지 지난 5년간 호조를 보여 왔던 북미시장이 수출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작년의 5% 증가와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비성능에서 앞서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 유럽·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은 현지생산 체제가 증가하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도의 자동차 수출은 일본계 메이커 차량의 수요가 확고함에 따라 643만대로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현지 생산 역시 미국,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어져 일본계 자동차메이커의 약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시장에서는 석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형 SUV를 중심으로 하여 소형트럭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지만, 소형차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2007년도에는 환율의 영향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실 또는 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일본 내에서의 경영상태 개선에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수요개요

	단위	2005년도(실적)	2006년도(실적)	2007년(예상)
일본 국내 내수	천대	5,861	5,619	5,458
수출(전세계)	천대	5,257	6,130	6,439
수입(전세계)	천대	270	256	250
생산	천대	10,894	11,493	11,647

자료원: 2007년 하반기 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 예측

라. 전기 전자

2006년도까지 세계적으로 평판TV, PC, 휴대전화등에 있어서 조립관련 산업이 호조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관련 장치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등) 역시 호조를 보여왔다. 하지만, 2007년도에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행사등의 수요가 없다는 점등에 의하여 상반기에는 다소 전기전자부문의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경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에 맞추어 다시 각 업체들의 치열한 판매전등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또한, 평판 TV에 있어서 PDP 방식보다 LCD 방식의 TV가 보급율이 높아지게 되고 있으나, 대만과 한국, 일본등 세계 LCD 패널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인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보급에 돌입한 평판TV 시장의 미국 및 유럽시장에서의 판매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평판TV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반대급부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에 있어서는 하반기까지는 에어컨 출하등의 경쟁이후 각 전기전자관련 기업들은 고급백색가전 품목등의 내수판매가 경기회복과 함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세탁기, 전기냉장고, 에어컨 등의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 백색가전시장은 더욱 확대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도시바의 NAND형 플래시메모리와 미쯔비시 전기의 FA 기기와 같은 일부 기업의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해 기업별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AV 기기 및 휴대전화의 본격적인 시장확대에 기초한 로직 반도체 사업도 세트 제품의 가격 하락과 범용화의 진행으로 기업별 성장엔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고객을 겨냥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용 판매전략, 나아가 사업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006년에는 반도체 및 휴대전화 등 일본의 주요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진사업의 채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사회 인프라 및 IT 시스템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종합 전기 메이커 5개사의 총 매출액 합계는 29조엔(전년비 1.8%), 영업이익 9,500억엔(동 9.2%)로 개선될 전망이다. 일본 기업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범용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생산은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엔드 위주로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기의 경우, 시장 가격의 하락 속도가 빨라 국내 메이커에서 타이완 메이커로의 양적 생산이 진행 중이다.

일본 메이커의 주요 기기의 해외생산 비율

품목	2003년도	2004년도
카네비게이션 시스템	0.0% ⇒	0.4%
DVD레코더	38.0% ⇒	66.6%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10.4% ⇒	21.9%
광학식프린터	82.1% ⇒	93.9%
잉크젯 프린터	99.9% ⇒	99.6%
노트북 컴퓨터	35.1% ⇒	37.3%
가정용 게임기(포터블 제외)	88.7% ⇒	98.9%
액정 TV	3.8% ⇒	24.3%
기록형 DVD드라이브	79.8% ⇒	86.6%
휴대전화단말기	36.2% ⇒	42.5%
디지털 스틸 카메라	38.5% ⇒	45.3%

자료원: 중일사 전자기기연감 2006년(2006년6월 기준)

1) AV기기

2006년도는 월드컵등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인해 가전관련 특히 평판TV등의 판매가 호조를 이룬 바 있다. 세계 전체의 평판TV 출하댓수는 6천2백만대로 2005년에 비하여 71.4%가 증가한 바 있다.

2005년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평판TV가 시장을 견인하는 형태가 더욱더 선명해졌다.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VTR(Video Tape Recorder)에서 DVD (Digital Versatile Disc), HDD (Hard Disc Drive)레코더, 플레이어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디오카메라로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로의 이행, DVD, HDD, 메모리카드 등으로의 전환이 진전되고 있다. 디지털 화의 메리트로서 소형, 경량화, 네트워크의 이용 등을 살린 전체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시장에서 DVD 레코더와 디지털 카메라가 서서히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으며 2005년 하반기 이후 히트상품은 iPod 등 일부 디지털 오디오 기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액정TV용 패널의 본격적인 양산화에 따라 박형TV메인 시장인 40인치 대에 액정 TV의 시장 가격이 플라즈마 TV에 가까워져 있으며 사이즈로의 액정, PDP구분이 무너지고 있다. 2006년도 하반기 이후, 액정, PDP의 급격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면서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시장에서의 시장경쟁이 향후 박형TV메이커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도의 평판TV시장은 전체 8천만대(작년대비 30%증가)로 예측되고 있으며 전체 세계TV중 40%를 평판TV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 백색가전

원유가와 소재의 가격상승 등 기업 수익의 압박 요소는 존재하지만 각 회사가 신제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에어컨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 제조업체에서는 난방능력을 갖춘 에어컨을 시장에 도입하고 있으며 고단열 주택의 보급, 메이커와 전력회사의 A/E전력화(모든 전원을 전기로 공급받는 시스템)의 강화, 석유난방기기 메이커가 가전메이커에서 탈퇴하는 등 에어컨이 겨울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는 일례로 최근 일본 국내의 주택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있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에어컨, 냉장고등 백색가전 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 최근의 주택의 경우 거실의 면적이 넓어 에어컨도 이에 맞는 용량이 요구되고 있다.

민간 전기전자제품(AV기기, 백색가전) 수요개요

	단위	2005년도(실적)	2006년도(실적)	2007년(예상)
일본 국내 내수	억 엔	42,676	44,826	46,410
수출(전세계)	억 엔	19,591	19,331	19,180
수입(전세계)	억 엔	12,720	12,596	13,490
생산	억 엔	49,547	51,561	52,100

자료원: 2007년 하반기 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 예측

3) PC

2006년도 PC시장은 저가격화, 중국 인도등 아시아지역의 수요증대와 세계적인 노트북형 PC보급이 진행됨에 따라 세계 PC출하댓수는 2억3천1백만대(전년대비 9.4%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내시장에서도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시장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 중소기업의 법인교체 수요의 호조와 개인용 PC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의 경우 저가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관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델, HP 등 외국 기업의 점유율이 일본 국내에서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국내 생산은 감소 추세에 있다.

2007년도는 Window의 새로운 신OS “Vista”의 판매가 2007년 1월에 실시되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신수요 발생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 북미, 유럽에서의 법인 교체 수요의 진행으로 세계적으로 PC 출하 대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국내시장에서도 눈 여겨 볼만한 불안재료가 없어 당분간 시장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7년도 PC시장은 전체 2억5천5백만대(전년대비 9.8%증가) 가량으로 예측되고 있다.

4) 휴대 전화

2006년도 세계휴대폰 시장의 출하대수는 957만대(전년도대비 +21%)로 증가하는 등 시장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BRICs등 신흥시장에서의 수요확대로 세계시장 전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저가 가격의 단말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국내시장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85.3% (2006. 3월 기준), 휴대전화 누계 계약건수는 92,555,700 건(전월 대비 0.3% 증가, 2006년 5월 기준)으로 휴대전화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이다. 그래서 2006년도 일본 국내전화출하대수는 4천7백만대(전년대비 5.3% 증가)하였지만, 2007년도 일본 국내전화출하대수는 4천6백만대(전년대비 2.5%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6년 10월 이후 실시된 번호이동성제도(넘버포터빌리티)에 의해서 신규 기기수요시장이 증가할 가능성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해외에서의 3세대 휴대전화의 보급 지연과 2세대, 2.5세대 단말기의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일본 휴대전화 기업들의 대부분은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철수 또는 사업 재검토를 압박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역으로 내수에 대한 의존도는 상승하고 있다.(한국의 삼성 휴대폰등이 소프트뱅크에 OEM으로 공급되어 상당 부분 보급되는 중임)

일본 국내 휴대전화 출하대수 점유율(2005년도)

사명	점유율(%)
샤프	16.3
패널소닉모바일	16.1
NEC	15.8
도시바	13.4
후지츠	7.9
삼양전기	7.1
미츠비시전기	6.9
소니 에릭슨	6.3
기타	10.2
합계	100

자료원: MM종합연구소 조사 발표자료

5) 반도체

2006년도 세계 반도체 출하 금액은 2,477억 달러(전년대비 8.9%증가)를 기록하는 등 2006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역시 세계적으로 PC, 휴대전화, 박형TV 등의 디지털 가전과 관련한 반도체 어플리 케이션

시장의 확대로 반도체 시장은 성장을 지속되었다. 특히 고성능 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3, X-box360, Wii등)의 생산증대에 의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아진다. 반도체 사업에 대한 설비투자과 R&D 투자 규모 및 사업전반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선택과 집중 및 첨단 프로세스 분야에서의 제후가 모색되고 있다.

2007년도 세계 반도체 출하금액은 2545억 달러(전년대비 +2.7%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그 폭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아지며, 세계 반도체 관련 투자액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의 IC 시장 예측

(단위: 백만 달러)

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IC합계	130,218	176,945	118,491	120,523	139,965	178,772	192,336	207,509	229,514

주: 2007년 이후는 예측치 임.

자료원: WSTS 2007년 예측, 전자부품연감(2006)

6) 디스플레이

2006년도의 TFT액정 및 PDP를 합친 세계 평판디스플레이시장규모는 770억 달러 (전년대비 16.1% 증가)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대형TV 패널의 대량양산에 따른 패널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대형 액정TV 및 PDP TV의 보급을 확대, 모니터 수요의 부진, 노트북 PC의 호조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규모는 일본 국내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서 2007년도에는 816억 달러(전년대비 +6.2% 증가)로 다소 조정국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일본은 한국이나 대만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소형 패널 제작에 힘쓰고 있다는 측면등은 변수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사이즈에 있어서의 가격경쟁은 더욱 격화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기타 유기EL 등의 차세대 평판패널을 위한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양산단계 및 산업화는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용 전기전자제품(컴퓨터, 통신기기, 기타 전자제품) 수요개요

	단위	2005년도(실적)	2006년도(실적)	2007년(예상)
일본 국내 내수	억 엔	98,662	96,632	97,706
수출(전세계)	억 엔	42,446	47,771	49,207
수입(전세계)	억 엔	37,837	40,444	42,832
생산	억 엔	103,272	103,960	104,082

자료원: 2007년 하반기 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 예측

마. 정보통신산업

일본의 정보통신산업은 기술혁신 및 규제완화가 탄력을 받으면서 IP(인터넷프로토콜)를 활용한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개인용 브로드밴드(고속대용량) 통신, 기업용 데이터 통신, 제 3세대 휴대전화 분야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인터넷 통신망은 2007년 3월말 기준으로 2,679만명(전년도대비 16.9% 증가)하고 있다. 이중 ADSL이 1,428만명, 광케이블이 885만명, 케이블TV겸용등이 366만명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용 데이터통신 분야도 기존의 전용선을 통한 거점간 접속에서 신형 WAN 서비스가 주력이 되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구축수요에 대한 대응이 활성화되고 있다.

브로드밴드의 지속적인 보급과 가입자수의 증가가 고정통신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IP 전화의 보급 확대에 고정전화의 시장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통신 분야는 가입자수 증가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 10월 실시된 번호이동 제도의 개시로 기업간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브로드밴드 가입자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6년도 3월 말 기준 2,329만 건으로 전년 대비 19.25% 증가하였다. 저렴한 요금, 적극적인 프로모션, 유료방송 실시 등의 영향으로 FTTH(Fiber To The Home, 가정 내 광케이블) 가입율이 ADSL을 웃돌고 있다. 향후에도 ADSL과 FTTH의 격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2007년도에는 최초로 1,0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브로드밴드 시장의 순조로운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고정통신료의 수입 감소 여파로 고정통신 사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브로드밴드 보급에 따른 IP 전화 보급 확대와 고정전화 요금의 인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기본료 수입 통화료 수입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브로드밴드 계약 건수의 변화 추이

(단위: 만 계약건수)

	2003년3월	2004년3월	2005년3월	2006년3월	2007년 3월
CATV 접속서비스	31	114	290	546	366
ADSL접속서비스	702	1,120	1,368	1,452	1,428
FTTH계약서비스	207	258	269	331	885
브로드밴드 합계	940	1,492	1,953	2,329	2,679

자료원: 일본 총무성, 2007년도는 예측 (2007년 3월 기준)

바. 산업전반의 동향 및 향후 전망

제조업 부문이 자동차,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2005년 초 부진했던 전자전기 산업은 PC, 반도체 등의 세계적인 시장확대 및 박형TV의 본격적 보급을 배경으로 2006 이후 생산활동이 회복단계에 있다. 비제조업 부문은 광고시장, 오피스빌딩 가동률, 호텔객실 가동률과 같은 경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해운과, 전력, 브로드밴드 보급이 확대되는 통신 산업도 계속해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재해수요의 감소와 공공투자 삭감의 영향이 큰 건설,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부진하며 향후에도 호경기의 수혜를 입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2007년 중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여파는 일본에 있어서도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향후 미국시장의 연착륙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치측면에 있어서 후쿠다 신 수상의 탄생에 의한 경제 회복 또는 하강의 극적인 전개는 점쳐지지 않으나 완만한 현재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의 수익이 증가하였고 석유관련 대기업의 경상이익도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 만큼 전가에 성공한 철강은 계속해서 높은 이익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확대에 비해 제품가격의 하락폭이 큰 전기전자 산업, 원료비 상승분만큼의 가격전가가 어려운 화학 등의 이익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합성섬유 메이커의 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비제조업 부문은 건설, 해운을 제외하고 모든 대상업종에서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 확보에 그치지 않고 매상이 증가세로 돌아선 백화점,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과 주택 등 경기회복의 영향이 본격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일본국세도회, 일본업계지도2007, 미즈호코퍼레이트 은행, 일본경제신문, 기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일본은 최근 EPA(경제연계협정)의 확대를 통해 대 아시아/세계 경제 외교를 가속하고 있다.

-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서 경제연계협정을 의미, FTA (자유 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특정한 국가간의 품목간의 관세의 철폐를 통한 교역확대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 편, EPA는 FTA에 더해서 투자의 자유화나 노동력의 교류, 지적재산권의 보호등의 제도를 상호 작성, 산업협력을 전반적으로 꾀하는 것을 뜻함.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자국농업품목등의 보호를 위한 불완전한 관세철폐로 인해 완전한 의미의 FTA가 되지 않는 외국과의 협정을 EPA로 칭하며 추진하고 있음.

일본의 주요 EPA 교섭현황

발효, 체결, 합의 (7건)	협상중(8건)	검토중(4건)
○ 싱가포르 - 02년 1월 발효 - 06년 4월부터 개정교섭 - 07년 3월 개정서 서명 ○ 멕시코 - 05년 4월 발효 - ○ 말레이시아 - 05년 12월 서명 - 06년 7월 발효 ○ 필리핀 - 04년 11월 합의 - 07년 4월 서명 ○ 타이 - 05년 9월 합의 - 07년 4월 서명 ○ 칠레 - 06년 2월 교섭개시 - 06년 9월 합의 - 07년 3월 서명 ○ 부루네이 - 06년 6월 교섭개시 - 06년 12월 합의 - - 07년 6월 서명	○ 한국 - 03년 12월 교섭개시 - 04년 12월후 교섭중단 ○ ASEAN - 05년 4월 교섭개시 - 07년 5월 대략합의 - 07년 11월교섭타결목표 ○ 베트남 - 07년 1월 교섭개시 ○ 인도 - 07년 1월 교섭개시 ○ GCC - 06년 9월 교섭개시 ○ 인도네시아 - 05년 7월 교섭개시 - 06년 11월 대략합의 ○ 호주 - 07년 4월 교섭개시 ○ 스위스 - - 07년 5월 교섭개시	○ 캐나다 ○ 동아시아전체 ○ 한중일 ○ 남아프리카

주)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 / 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
 자료원: 일본 정부 발표내용, KOTRA 재정리

특히 최근에는 필리핀, 칠레와의 FTA 협의가 왕성한 등 체결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활발한 움직임은 05년 7월 중국-아세안 FTA의 타결, 06년 5월 한국-아세안 FTA의 타결 및 최근 한국과 미국과의 FTA움직임등이 자극제로 작용했다고 보아진다.

□ 한일FTA 재개의 전망 및 가능성

- 한일 FTA는 당초 2005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004년 11월 6차회담을 이후로 중단상태이다.
 - 1차: 03년 12월, 협상추진체제 및 일정합의
 - 2차: 04년 2월, 의제별 기본입장교환
 - 3차: 04년 4월, 협정문 초안 교환

- 4차: 04년 6월, 분과별 세부논의 개시
- 5차: 04년 8월, 협정문 작성작업 개시
- 6차: 04년 11월, 상품양허안등 쟁점사항 협의(6차협상에서 중단)

한일 양국의 희망사항으로 한국은 농수산물 개방,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 조달, 비관세 장벽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실시하고, 양허 수준은 공산품 일본 100%, 한국 90% 이상 개방, 농수산물은 모두 90% 개방 희망하는 중이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분야의 관세철폐를 요망, 양허수준은 전체산업의 95% 및 공산품은 99% 농수산물은 50% 개방을 희망하는 중이다.

이러한 양국 FTA가 체결시에는 인구 1억7000만, 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 17%를 점하는 거대 단일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상호 단일시장화에 의한 경쟁 심화와 동시에 대 세계 수출증대 및 경쟁력 증대등의 부가적 효과가 기대된다.

2004년 12월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일본의 FTA시 경제효과면에서는 중국, 아세안, 미국, EU, 태국, 호주, 한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 등 순으로 이미 분석한 바가 있다. 그러나, 농업효과로 농가생산감소를 따졌을 때에, 미국이 3.8%, 호주가 1.6%의 생산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는 등, 종합적 고려시에 중국, EU, 한국과의 FTA 체결은 일본에 유리하며, 미국과 호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우선순위를 지정하였다.

일본은 한미FTA 타결 이후 ASEAN-일본의 FTA에 더해, 미국 및 EU 등과도 적극적인 FTA 추진의 자세를 비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는 일본 역시 농산물 부문에 있어서의 이슈(쌀, 고기수입 등)로 인해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EU와의 FTA에 대해서는 상대측인 EU측의 반응이 일본의 관세율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진할 메리트가 적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다((유럽산업연맹(UNICE)등의 입장)).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무역 수지

일본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최근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5년과 2006년에는 수출의 증가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물렀던데 비해, 수입의 증가율은 두 자리 수에 달해, 무역 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07년은 10월까지의 무역수지를 살펴볼 때, 수출의 증가율이 수입을 초과하여 흑자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무역수지 동향

(단위: US\$ 백만, %)

	2004	2005	2006	2007 (1-10월)
수출 (증감률)	566,191 (20.0)	595,269 (5.1)	646,441 (8.6)	582,626 (9.8)
수입 (증감률)	455,661 (18.9)	516,202 (13.3)	578,783 (12.1)	505,182 (5.2)
무역수지 (증감률)	110,530 (24.8)	79,068 (-28.5)	67,658 (-14.4)	77,444 (53.47)

자료원: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나. 수출

일본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으로, 미국 경제동향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외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중국, 한국, 대만, 홍콩, 태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중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의 10대 수출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출금액				점유율				증감률	
		2004	2005	2006	20071-10월	'04	'05	'06	'07 1-10월	06/05	07/06
1	미국	127,102	134,208	145,473	118,334	22.4	22.5	22.5	20.3	8.4	-1.3
2	중국	73,972	79,948	92,722	88,733	13.1	13.4	14.3	15.2	16.0	18.2
3	한국	44,282	46,651	50,258	44,359	7.8	7.8	7.8	7.6	7.7	7.3
4	대만	42,053	43,702	44,091	36,615	7.4	7.3	6.8	6.3	0.9	0.1
5	홍콩	35,439	35,957	36,415	31,713	6.3	6.0	5.6	5.4	1.3	5.7
6	태국	20,294	22,490	22,892	20,918	3.6	3.8	3.5	3.6	1.8	10.6
7	독일	18,985	18,668	20,404	18,586	3.4	3.1	3.2	3.2	9.3	11.5
8	싱가포르	17,991	18,455	19,333	17,948	3.2	3.1	3.0	3.1	4.8	12.4
9	영국	14,999	15,101	15,217	13,419	2.6	2.5	2.4	2.3	0.8	6.8
10	네덜란드	13,397	13,139	14,719	15,237	2.4	2.2	2.3	2.6	12.0	29.1

주: 순위는 2006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원: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전기기기, 기계, 광학 및 정밀기기 등이다. 타 품목들의 수출 금액이 상승선을 그리고 있는데 비해, 광학 및 정밀기기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이기는 하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10대 수출품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수출금액				점유율				증감률	
		2004	2005	2006	2007 1-10월	'04	'05	'06	'07 1-10월	06/05	07/06
1	자동차	118,100	125,185	141,604	129,341	20.9	21.0	21.9	22.2	13.1	12.3
2	전기기기	123,101	122,219	127,956	110,388	21.7	20.5	19.8	19.0	4.7	5.3
3	기계	115,595	119,680	125,909	114,228	20.4	20.1	19.5	19.6	5.2	9.9
4	광학, 정밀기기	36,423	35,976	35,432	26,596	6.4	6.0	5.5	4.6	-1.5	-9.3
5	기타	23,674	26,135	30,273	29,133	4.2	4.4	4.7	5	15.8	18.6
6	철강	21,230	24,459	25,957	24,775	3.7	4.1	4.0	4.3	6.1	17.2
7	플라스틱	15,388	17,428	19,629	17,925	2.7	2.9	3.0	3.1	12.6	10.9
8	유기화합품	16,523	17,887	18,582	17,292	2.9	3.0	2.9	3.0	3.9	12.3
9	선박	12,244	11,854	14,046	12,825	2.2	2.0	2.2	2.2	18.5	8.1
10	철강제품	7,692	9,398	11,028	9,945	1.4	1.6	1.7	1.7	17.3	9.7

주: 순위는 2006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원: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다. 수입

일본의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는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이 있다. 중국의 수입금액 비중이 약 20%, 미국의 수입금액 비중이 약 10%의 두 자리 수로 이들 두 국가의 수입비중이 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10대 수입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금액				점유율				증감률	
		2004	2005	2006	2007 1-10월	'04	'05	'06	'07 1-10월	06/05	07/06
1	중국	94,446	108,594	118,437	104,524	20.7	21.0	20.5	20.7	9.1	7.9
2	미국	62,563	64,199	68,011	58,759	13.7	12.4	11.8	11.6	5.9	3.2
3	사우디 아라비아	18,509	28,601	37,184	26,870	4.1	5.5	6.4	5.3	30.0	-14.8
4	아랍 에미리트	18,360	25,203	31,559	26,401	4.0	4.9	5.5	5.2	25.2	-1.9
5	호주	19,467	24,490	27,923	25,563	4.3	4.7	4.8	5.1	14.0	10.3
6	한국	22,068	24,420	27,319	22,124	4.8	4.7	4.7	4.4	11.9	-1.6
7	인도 네시아	18,714	20,842	24,123	21,531	4.1	4.0	4.2	4.3	15.7	7.6
8	대만	16,701	18,102	20,328	16,397	3.7	3.5	3.5	3.3	12.3	-2.3
9	독일	17,095	17,886	18,451	15,829	3.8	3.5	3.2	3.1	3.2	3.6
10	태국	14,118	15,590	16,878	15,015	3.1	3.0	2.9	3.0	8.3	7.7

주: 순위는 2006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원: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일본의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광석, 강재, 목재, 수산물 등 천연자원에 속하는 것들의 비중이 높다. 그 이외에 전기기기, 기계, 광학 및 정밀기기 등 일본의 주력 분야의 제품도 수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 메이커의 해외 이주로 인한 역수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들 품목의 수입 비중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

일본의 10대 수입품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수입금액				점유율				증감률	
		2004	2005	2006	2007 1-10월	'04	'05	'06	'07 1-10월	06/05	07/06
1	광물성 연료	99,673	132,828	161,648	135,709	21.9	25.7	27.9	26.9	21.7	-0.2
2	전기기기	57,821	61,444	67,692	59,964	12.7	11.9	11.7	11.9	10.2	7.7
3	기계	48,697	52,367	54,672	45,947	10.7	10.1	9.4	9.1	4.4	0.8
4	광학, 정밀기기	17,845	19,774	22,956	17,256	3.9	3.8	4.0	3.4	16.1	-10.1
5	광석, 강재	10,236	14,387	20,795	20,600	2.2	2.8	3.6	4.1	44.5	17.7
6	자동차	13,587	13,894	14,214	12,506	3.0	2.7	2.5	2.5	2.3	6.9
7	유기화학품	10,715	11,485	12,249	10,779	2.4	2.2	2.1	2.1	6.7	5.9
8	의류 (편물 제외)	11,269	11,405	12,030	10,023	2.5	2.2	2.1	2.0	5.5	-1.4
9	목재	11,579	10,927	11,843	10,164	2.5	2.1	2.0	2.0	8.4	4.0
10	수산물	11,541	11,552	10,850	8,222	2.5	2.2	1.9	1.6	-6.1	-6.0

주: 순위는 2006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원: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일 교역 동향

최근 대일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출, 수입 공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수출액은 273억 달러, 수입액은 50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단, 2007년에 들어서는 한국의 대 일본 수출이 전년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한국의 대일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220-23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고, 적자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동향

(단위: US\$ 백만, %)

	2004	2005	2006	2007 (1-10월)
수출 (증감률)	22,068 (23.1)	24,420 (10.7)	27,319 (11.9)	22,124 (-1.6)
수입 (증감률)	44,282 (27.1)	46,651 (5.3)	50,258 (7.7)	44,359 (7.3)
무역수지 (증감률)	-22,215 (31.5)	-22,231 (0.1)	-22,939 (3.2)	-22,235 (17.92)

자료원: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대일수출 10대 품목을 살펴보면 평면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철강, 플라스틱 등 주로 부품 소재 분야이다.

한국의 대 일본 10대 수출품

(단위: US\$ 백만, %)

순 위	품목	수출금액				점유율				증감률	
		2004	2005	2006	2007 1-10월	'04	'05	'06	'07 1-10월	06 /05	07 /06
1	전기기기	6,368	6,324	7,143	6,718	28.9	25.9	26.1	30.4	12.9	16.2
2	광물성연료	2,927	3,164	3,548	2,160	13.3	13.0	13.0	9.8	12.2	-25.5
3	기계	3,394	3,367	3,205	2,540	15.4	13.8	11.7	11.5	-4.8	-3.7
4	광학, 정밀기기	324	1,224	3,066	1,548	1.5	5.0	11.2	7	150.5	-42.9
5	철강	1,631	2,177	1,910	2,127	7.4	8.9	7.0	9.6	-12.2	41.6
6	플라스틱	769	914	981	815	3.5	3.7	3.6	3.7	7.3	0.7
7	유기화학품	750	809	905	668	3.4	3.3	3.3	3.0	12.0	-14.9
8	철강제품	501	601	723	625	2.3	2.5	2.6	2.8	20.3	4.8
9	기타	602	817	659	600	2.7	3.3	2.4	2.7	-19.3	8.5
10	수산물	599	542	484	361	2.7	2.2	1.8	1.6	-10.7	-4.9

주: 순위는 2006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원: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대일 수입 10대분야 역시, 반도체, 철강, 플라스틱 제품 등 부품 소재 분야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 일본 10대 수입품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수입금액				점유율				증감률	
		2004	2005	2006	2007 1-10월	'04	'05	'06	'07 1-10월	06/05	07/06
1	기계	8,386	8,415	9,447	8,207	18.9	18.0	18.8	18.5	12.3	5.2
2	전기기기	10,629	9,857	9,229	7,640	24.0	21.1	18.4	17.2	-6.4	-0.1
3	철강	5,510	5,994	6,725	6,534	12.4	12.8	13.4	14.7	12.2	18.5
4	광학, 정밀기기	4,542	4,513	4,194	2,644	10.3	9.7	8.3	6.0	-7.1	-24.6
5	유기화학품	2,245	2,841	3,008	2,563	5.1	6.1	6.0	5.8	5.9	3.4
6	플라스틱	1,957	2,443	2,907	2,665	4.4	5.2	5.8	6.0	19.0	11.2
7	화학공업 생산품	1,252	1,685	2,065	2,057	2.8	3.6	4.1	4.6	22.5	23.1
8	기타	1,594	1,638	1,936	2,180	3.6	3.5	3.9	4.9	18.2	46.8
9	자동차	1,015	1,155	1,430	1,375	2.3	2.5	2.8	3.1	23.8	19.7
10	유리및유리제품	746	958	1,116	1,078	1.7	2.1	2.2	2.4	16.5	18.9

자료원: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부품 소재 분야의 산업 내 교역이 활발한 대일 교역의 특성상 무역수지 적자는 교역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의 시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나. 수입품 중 한국상품 점유율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점유율은 약 4~5% 정도이며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최근 원고 현상 및 한국의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점차 한국 상품의 입지가 협소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 제품의 수입상품 중에서의 비중은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수입 시장에서는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단연 압도적인 가운데 향후 중국산대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일본 수입시장의 주요 국별 점유율

(단위: %)

순위	국가	점유율				증감률	
		2004	2005	2006	2007 1-10월	06/05	07/06
1	중국	20.7	21.0	20.5	20.7	9.1	7.9
2	미국	13.7	12.4	11.8	11.6	5.9	3.2
3	사우디 아라비아	4.1	5.5	6.4	5.3	30.0	-14.8
4	아랍에미리트	4.0	4.9	5.5	5.2	25.2	-1.9
5	호주	4.3	4.7	4.8	5.1	14.0	10.3
6	한국	4.8	4.7	4.7	4.4	11.9	-1.6
7	인도네시아	4.1	4.0	4.2	4.3	15.7	7.6
8	대만	3.7	3.5	3.5	3.3	12.3	-2.3
9	독일	3.8	3.5	3.2	3.1	3.2	3.6
10	태국	3.1	3.0	2.9	3.0	8.3	7.7

주: 순위는 2006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원: 일본세관, World Trade Atlas

3. 수입규제제도

가. 규제 완화 정책

FTA 체결 확대, 각종 경제 규제 철폐 및 완화 등의 추세에 맞추어 수입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단, 국민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및 집행이 강화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에 관한 수입규제가 매우 엄격하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농수산물 가운데서도 특히 토마토, 피망 등 긴급 감시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 규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나. 법령에 의한 규제

1) 외환법 상의 규제

□ 수입할당품목(I Q품목): 수입공표 제 1 호

정량 이상의 수입은 일본 국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품목, 국제 조약 및 협정으로 제한되는 품목이 대상이다. 정해진 수입금액 및 수량을 초과한 수입은 불가능하다.

- 비자유화 품목 개요
 - 근해어청어·방어·고등어·전갱이 등) , 가리비, 조개관자, 오징어, 김, 다시마 등
- 워싱턴 조약부속서 I 에 게재되어 있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및 조제품
 - 경제산업성 대신(大臣)에게 신청하여 ‘수입할당’을 받은 후, 다음 항의 수입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수입승인품목: 수입공표 제 2 호

국제조약이나 이국간 협정 등의 결정으로 특정 원산지 및 선적지역으로부터의 특정 화물, 또 UN의 경제제재의 대상이 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 (일부 또는 전부) 은, 경제산업성 대신의 수입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예 주된 식품의 수입승인 품목
 - 고래 및 그 조제품
 - 국제 포경 단속 조약 비가맹국을 원산지 또는 선적 지역으로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입승인이 안 된다.)
 - 연어 및 송어 그리고 이들의 조제품(중국, 북한, 대만을 원산지 또는 선적 지역으로 하는 경우)
 -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해초 등(公海(公海) 또는 외국 영해를 선적지역으로 하여 외국 선으로부터 전매받아 일본에 수입하는 경우). 적도 기니아, 시에라리온을 원산지로 하는 참다랑어 및 그 조제품 등
 - 워싱턴 조약 부속서 II, III의 동식물 또는 그 가공품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

□ 수입확인 품목

수입의 감시, 국제조약의 이행, 수입할당 및 승인제도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여, 사전(수입 전)에 경제산업성 대신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과 통관 시에 세관이 확인하는 것이 있다.

○ 주요 식품의 수입승인 품목

- 사전확인제도
 - 냉동 참다랑어, 남방 참다랑어, 눈다랑어, 또는 황새치
 - 고래 및 그 조제품 (상기 ②이외) 의 것
 - 워싱턴 조약 부속서 II, III의 동식물 및 조제품(가맹국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
- 통관시 확인제
 - 신선 또는 냉동 참다랑어, 남방 참다랑어 및 황새치(통관 시에 참다랑어, 남방 참다랑어, 황새치 통계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함.)
 - 워싱턴조약부속서 II, III에 명시된 사전 승인의 대상이 이외의 동식물 및 조제품

2) 관세정률법에 의한 규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 위조통화, 권총, 마약 등이 동 법에 의해 수입 규제를 받는다.

3) 관세법에 의한 규제

관세납부 등을 포함한 수입 통관 수속 상의 규제이다. 일본의 관세 제도로는 일반 관세, 특혜 관세, 관세 할당, 간이 세율 제도, 특수 관세((반덤핑과 보조금에 의한 수출과 같이 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및 수입급증 등에 대해 부과(발동 조건과 절차는 WTO에서 정함)되는 할증 관세))가 있다.

4) 기타 국내법에 의한 규제

대마 거래법, 식물 방역법에 의한 일부 품목의 수입 금지, 검역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수입 검역, 약사법 및 비료 거래법에 의한 수입 허가 및 등록제, 야채류 등 세관별 검역 목표가 설정되는 일별 검역할당제가 있다.

5) 조약과 국제협정에 의한 관리

WTO에서 인정한 수입규제 방식에 의한 규제, 워싱턴 조약,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 조약 (특정 유해 폐기물), 화학병기 금지 조약, 대인 지뢰금지 조약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다. 일본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 도입 동향

1) 선거 등을 의식한 농산물에 대한 잠정 긴급 수입제한 조치

일본 농림수산업성이 각 항 별 1일 검사 건 수를 정해 검역을 실시하는 검역 개선책 (세관의 1 일 검역 검사 건수 상한제, 2001.4.1)를 시행함에 따라 통관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이 이에 대한 개선 요구서한을 발송한 사례가 있다. 동 조치 역시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야채 수입 증가로 인한 검역량이 늘어난데다 세관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철저한 검역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선거 등을 겨냥, 민심을 고려한 정치적 조치로 분석된다.

2) 경제적 상황관련 주요 사례

□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보수집 모니터링 체제 강화 (2000.2)

일본 농림수산부가 세이프가드조치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수집하기 위해 특정 농수산물에 감시대상품목과 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 정해 운영한 사례가 있다. 감시 대상 품목은 마늘, 가지, 합판, 마른 표고버섯, 미역, 장어 (조제품 포함), 가다랭이이며, 긴급 감시 대상 품목은 토마토, 피망, 양파, 목재(제재품 및 집성품)이고, 파, 생 표고버섯, 이구사 3품목도 긴급 감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 관세할당 제도

피혁3품목(염색 및 착색된 소와 말 가죽, 염색 및 착색된 것 이외의 소와 말 가죽, 염색 및 착색된 양과 염소가죽, 혁화(혁제 및 가죽을 사용한 신발(스포츠용 및 슬리퍼 외), 에틸알코올(주류 제조용) 등 5개 품목에 대해 2단계 관세율 (할당 범위 내 저관세, 범위 초과 고관세)을 적용하는 제도로 경제산업부 장관 명의로 매년 2회에 걸쳐 할당 수량을 발표한다. 동 제도는 일본 국내의 관련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하다. 이외에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등이 있다.

라. 기타 (외교적 상황 등) 규제

몬트리올 의정서에 정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수입규제(1988.7), 워싱턴조약동식물 및 그 파생, 물에 대한 수입 규제, 이라크로부터의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규제,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칙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특정물질 및 제1종 지정물질에 대한 수입규제 (1995.2), 테러 위험도 높은 국가로부터의 수출입에 대한 규제(2001. 12) 등이 있다.

마.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수입규제

2005년 5월 29일 이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식품 중에 농약 등 규정 물질이 일정량 이상 잔류할 경우, 식품으로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제도가 설정되었다. 2005년 5월 29일 전까지는 반대로 잔류해서는 안 되는 것만을 기재하는 네가티브 방식이었다.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식품용 의약품 및 사료첨가물(이하 ‘농약 등’으로 줄여서 칭함)에 대해서 식품안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그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해왔으나 동 제도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농약 잔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신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별도로 잔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량 이상의 농약이 포함된 경우에 판매가 금지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왔고, 이에 더해 수입식품의 증대와 식품 중의 농약 등의 잔류에 관한 소비자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그 규제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3년 5월 일본 의회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법 개정을 공표하여, 후생노동성 정령에 의해 2006년 5월29일부터의 시행되게 되었다.

포지티브 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는 1. 농약(농약단속법1948년 법률 제82호 제 1조의 2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 2. 사료첨가물(사료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 1953년 법률 제 35호 제 2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농림수산성령에 규정된 사료에 첨가 혼합, 침투 등의 방법으로 첨부된 것) 3. 동물용 의약품 (약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의약품으로 동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성분)으로 그 성분이 과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한 물질들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후생 노동성 대신이 결정하는 성분은 본 제도 이용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번의 개정으로 잔류 기준이 없던 농약 등에 많은 잠정 기준이 설정되고 잔류 기준이나 잠정 기준에서 설정하고 있지 않았던 농약 등에 대해서도 0.01 ppm이라는 일률 기준이 설정되었다.

본 제도는 미가공식품,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이 대상이고, 식품첨가물은 본 제도에 의한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식품으로서 유통되는 것을 첨가물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본제도의 대상이 된다. 담당관청으로는 유통 면에서 후생노동성 식품안전 검사부 기준 심사과, 수입면에서는 기획정보과 검역소 업무관리실이 있다. 생산은 농림수산성 안전관리과 농산 대책실, 검사는 후생 노동성 식품안전과의 해당지역 검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포지티브 시스템 관련 인터넷 주소(2007년12월 중순 기준)
-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zanryu2/index.html>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최근의 대 한국 수입규제 품목 및 규제 현황

□ 대한 수입규제 일반 동향

FTA 강화 등의 추세에 맞추어 수입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 추세에 있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정식으로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품목은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관세) 등이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 정부보조금 문제 등을 배경으로 한 한국업체 제소 사례로는 삼성 PDP 피소(후지쓰와 화해로 일단락), 하이닉스 DRAM 반도체에 대한 엘피타사가 상계관세 부과신청(2004.6.16), 타이어 보강재 (폴리에스테르제 타이어코드 직물)에 반덤핑 부과 신청 검토(2004.6.18 일부, 일본 화섬협회 주도) 등이 있다.

나. 대한 수입규제 세부 내역

□ 상계관세 조치

한국 하이닉스사가 한국민간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지원조치는 실질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의한 보조금이며, 또, 당해 조치의 혜택을 받은 수출 제품이 일본 국내 산업에 손해를 가져왔다고 하여, 동사 제품 DRAM에 대해 ‘보조금 상계관세’ (27.2%) 가 부과되었다(2006년 1월 27일부터) .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 WTO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는 패널이 설치되어 2007년 7월의 보고에서는 일본의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의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재정(裁定)되었다. 동 재정에 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7년 8월에 WTO에 상소했다.

□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

한국 농림부가 한국에서 약독(弱毒)타입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있었다고 발표한 후,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으로부터의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2007년 11월 26일 한국정부로부터의 정보제공을 기다리고 있는 중).

최근 수년간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여, 2006년 11월에도 동일한 케이스로 인해 수입의 일시 정치 조치가 취해졌고, 2007년 7월에 청정성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고 해제가 되었다. 단, 동 조치에 대해 농림성은 ‘가금 등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 반덤핑 과세 조치

한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반덤핑관련 조사는 2001년 4월 23일부터 2002년 4월 22일까지 1년간 이루어졌고, 대상 품목은 정확하게는 굵기 3.88-22.23 mm, 길이 25-80mm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이다. 당시 부과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과로 결정되었고, 반덤핑 관세율은 6.0% ~ 13.5%이다.

당초 2007년 6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과기간은 일본 국내 기업 3개사로부터 과세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소기업은 토레, 쿠라레, 유니치카 파이버 등이고, 피제소기업은 한국은 S사 등 30개사, 대만은 CHUNG SHING TEXTILE CO, LTD와 7개사 등이다.

기타 한국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사 및 과세대상 품목	조사개시일/부과결정일	그 후의 움직임
알칼리 망간 전지	1999.11.16/ 2000.10.12	2003.12.03 조치 계속 (3년간) (Sunset 재검토), 2006.08.01부터 Sunset 재검토 (2번째)
수산화 알루미늄	2002.08.22/ 2003.07.18	(일부 가격 약속)
스테인리스 봉 및 형강	2003.07.05/ 2004.07.30	(일부 가격 약속)
PVC플레이트	2004.05.19 /2005.04.20 (일부 가격 약속)	
산업용 로봇	2004.10.01/ 2005.09.16	
자동 가이드 홀 펼쳐	2006.02.17/2006.11.22(3년간)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2007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

□ 세이프가드(SG)관련 모니터링 체제 정비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일본 국내 산업에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2단계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한국은 농수산물이 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수입국 전체이고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요주의 대상이다.

농림수산성의 감시대상품목으로는 마늘, 가지, 가당(加糖) 조제품, 합판, 건표고버섯, 가다랭이, 연어, 송어, 복어(이상 레벨1)가 있으며, 분기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레벨2)에 대해서는 긴급감시 대상 품목으로 재지정 하여 월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파, 생 표고버섯 다마미, 토마토, 피망, 양파, 목 재, 미역, 뱀장어(조제품 포함) 등이 있다.

□ 식품위생법관련 수입규제(세관 검사 강화)

식품위생법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2003년 4월 이후 전국 세관에서는 이하의 제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대상품목 및 감시대상 물질 및 성분

- 전 수출국 해당: 복어(어종 감별), 피스타치오 너츠(이후라톡신), 믹스 스파이스(좌동), 시안화합물 함유 두류(시안화합물), 캐사바 및 동 가공품(좌동)
- 한국에 해당: 돼지고기(살파지미진), 활장어(오키소린산), 양식 광어 및 동 가공품(옥시테트라 사이클린, 엔로후로키사신), 2매패 및 동 가공품(마비성패독), 냉동 피조개(황색 5호 및 적색 102호 코치닐, 구치나시황색소, 모나스카스색소), 오리 및 동 가공품(지크롤보스), 푸른 고추 및 동 가공품(에토프로호스), 적고추 및 동 가공품(에토프로호스), 미니 토마토 및 동 가공품(EPN), 미나리 및 동 가공품(크롤피리호스), 파프리카 및 동 가공품(에토프로호스), 부추 및 동 가공품(크롤피리호스), 파 및 동 가공품(프로시미돈, 크롤피리호스), 들깨 및 동 가공품(비헨트린), 상추 및 동 가공품(프로시미돈) 등이 있다.

다. 비관세 장벽 현황

□ 수입 할당제 운영

어패류 수입할당제가 운영되고 있어, 9종의 어패류(대구, 방어 등)에 수입할당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할당규모는 9종 합계 연간 4천만 불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 김에 대한 수입할당제, 다시마 조제품에 대한 수입할당제(한국에의 할당규모는 500톤), 마른 오징어에 대한 수입할당제(전세계로부터의 수입을 4,500톤으로 규제)가 있다.

□ 관세할당제 운영

가공피혁 및 혁제신발류에 대한 관세할당제가 운영되고 있다.

□ 검역 검사

굴 등 조개류에 대한 검사는 매우 엄격하여 과도한 검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유해 물질 발견과 관련하여 신선야채 및 수산물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에

대한 폴리솔베이트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외에 검역 검사와 관련하여 수입 차에 대한 인증제도의 국제 정합성 결여와 항만 하역 작업 시 항운 협회의 사전 협의제 운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PSE제도

2006년 4월 1일부터 전기용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PSE마크 부착하여야 한다. 일본의 “전기용품 안전법”(구 전기용품단속법)에 의하면 동 법에 적용되는 450개 전기용품을 일본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PS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입 쿼터

일본의 수입할당품목은 비자유 품목(수입 공표 제1호)으로 청어, 대구, 꽂치, 고등어, 오징어, 김, 다시마 등 해산물과 핵연료물질 등이 있다. 해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경제산업성이 매년 수입할당방식, 수입 시 주의사항 및 수입신청자 자격 등에 대해 발표한다.

□ 수입의 승인, 수입할당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

총 가격 500만 엔 이하의 화물의 경우 특례를 적용 받는다. 단, 별도 고시에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수입 할당품목 중 총 가격이 18만 엔 이하의 무상(無償)화물에 대해서만 특례가 해당 된다.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개별적 사용 목적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물량의 화물 등도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 동 특례와의 관계법령은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 수입무역관리령, 수입무역관리규칙, 수입 공표, 관세법이며, 관계기관은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이다(수입 무역관리령 제 14조).

5. 관세제도

가. 개 요

일본의 관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며, 각종 세칙사항은 3개의 법률(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관세는 특혜관세와 비 특혜관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혜관세(관련법령: 관세잠정조치법)는 중국, 동남아 국가 등 후발 개도국에 적용하는 관세(관련 홈페이지: <http://www.houko.com/00/01/S35/036.HTM>)와 FTA 체결국에 적용하는 관세에 적용된다.

비 특혜 관세(관련법령: 관세법기본통달 68-3-5)는 협정(WTO)관세와 기본 관세가 있는 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 받는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 있고 북한, 동티모르, 안도라 등 3개국만 기본(or국정)관세를 적용 받아 관세혜택 면에서 가장 불리하다.

나. 최근 일본관세제도의 주요 특징

첫째, 신속성이 강조된다. 즉 일본 관세제도의 기본목표는 "신속과 정확"이라는 2대 명제를 두고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최근 수출입 물량의 증가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응하여 "신속"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둘째, 보세지역을 5개 종류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정보세지역(관세법 제37조-41조), 보세 장치장(관세법 제42조-55조), 보세공장(관세법 제56조-62조), 보세 전시장(관세법 제62조 2항-7항), 종합보세지역(관세법 제62조8항-15항)으로 구분된다. 화물 관리에 있어 법률상 외국 화물은 반드시 보세지역에 보관토록 되어있다

셋째, 수입자가 반드시 신고자여야 한다. 관세법 제67조에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통관업법 基本通達 에도 "수입신고는 통관업자의 명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수입자가 반드시 신고토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란은 있으나 신고자란은 없다.

넷째, 1966년부터 관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세제로 운영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부는 부과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통관시스템의 전산화 구축이다. 일본 세관은 1988년부터 항공화물에 대한 통관처리 전산화를 시작했으며, 1991년부터는 해상화물에 대해서도 전산화가 도입되었다. NACCS(통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통관처리는 전체신고건의 9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여섯째, HS분류를 채택 하고 있다. 일본의 실행 관세율표는 일본관세협회(전화 03-3263-7221)가 발행하고 있으며 품목별 관세율, GATT 양허표, 관세장정조치법 및 수입 통계 품목표가 게재되어 있다. 각종 관세율과 통계치는 HS조약에 의거 작성되며, 部(21개), 類, 項(4자리 수), 號(6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 관세제도 상 각종 규제 완화 조치

일본정부가 지난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세제도와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출입 수속: 항공기 화물에 대해서 도착 즉시 수입 허가제 도입

절차의 신속화를 도모하여 예비 신고의 결과 검사가 불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 지역에 반입하지 않고도, 화물 도착이 확인되는 대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소액 수입화물에 대한 간이 통과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출 수속의 포괄 사전 심사 제도도 확충되었다.

☐ 업무처리의 24시간화: 주요 공항에 있어 업무시간외 업무처리체제 확충

업무시간 외 예비 신고 수리를 하고 있어, 수입업자 등은 야간, 휴일에도 예비 신고가 가능하다. 臨時開廳의 자동 승인제가 도입되어 있어, 세관의 업무시간 이외에 신고를 할 경우 미리 임시 개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단, 예비신고에 의해 심사가 종료되어 검사 불요로 판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본 신고로 인정된다.

☐ 수입업자 및 선택 자유화

관세 등의 포괄납기기한 연장에 관한 담보제도가 개선되어, 수입화물에 관계되는 관세 및 소비세 납부에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3개월 이내에 한해 납기기한 연장이 인정된다. 현행 각 세관 별로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SEA- NACCS (해상 통관정보 처리 시스템) 도입 세관에서 1곳에 담보를 제공할 경우 타 세관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공재 수입 감세제도로 인해, 일본에서 수출된 원재료가 외국에서 가공 또는 조립된 후 재수입될 경우, 동제품에 부과된 관세 가운데 수출 당시 원재료에 해당되는 관세분은 감세가 가능하다. 또한,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종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되어 통관의 신속화와 함께 이용자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

☐ 전산화의 가속 및 인터페이스화

현재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에 규정된 수입절차는 매뉴얼로 처리되고 있는데, 재무성은 각 절차를 전산화하는 동시에 이미 전산화 시스템과 인터 페이스가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위생수속 관련해서 1996년 이후, 동식물검역 수속관련 1997년 이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출서류의 전자정보화에 의한 PAPERLESS화와 세관의 적하 목록 처리에 있어 EDI 촉진 즉, 해상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적하 목록의 제출 및 해당화물의 보세업무를 EDI화도 추진되고 있다.

□ 예비심사제도

예비 심사제도는 1988년 처음 도입되어 1991년 대폭 개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수입자의 신속한 화물인수를 촉진키 위해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 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요 이용대상 화물은 생선, 식품 등 신선도를 요하여 거래선의 납기 기간이 엄격한 화물, 연말 연시 등 주요 시즌에 지급 소요되는 화물, 수입신고 될 화물, 종류가 매우 많아 서류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화물, 기타 법령에 의거한 화물 등이다.

이용상 주요 이점으로 1)서류심사가 화물도착 전에 행해지며 2) 검사여부가 수입 신고 전에 판명되므로 화물의 인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화물은 모든 수입화물이며, 제출서류는 예비신고서(수입신고서 사용), 인보이스, 기타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장소는 화물의 장치 예정장소를 관할하는 세관, 신고시기는 수입신고 예정일의 최대 11일 전이다.

주요 관할처(전화 상담처)

세관명	관련 부서명	전화번호
도쿄세관	업무부 수입총괄 제1부문	03-3528-3666
요코하마 세관	업무부 수입총괄 제1부문	045-212-0300
나고야 세관	업무부 수입총괄 제1부문	052-655-1790
고오베 세관	업무부 수입총괄부문	078-333-4410
오사카 세관	업무부 수입총괄 제1부문	06-6576-1130

자료원: 코트라 작성

일본의 관세와 관련된 주요 참고 사이트

실행 관세율표 2007년	http://www.customs.go.jp/tariff/2007_4/index.htm
관세 제도, 규격, 절차에 관한 정보, 관세에 관한 Q&A 등	http://www.jetro.go.jp/jpn/regulations
관세에 관한 정보 전반	http://www.customs.go.jp

자료원: 코트라 작성

6. 주요인증제도

가. JIS제도

□ 공업표준화법과 JIS

JIS(일본공업규격)는 일본에서 공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공업표준화법(1949년)에 의해 제정된 일본의 국가규격이다.

□ JIS마크표시제도

일본의 공업 표준화 제도는 공업 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일본 공업규격(JIS)'의 제정과 '일본 공업규격 표시제도(JIS마크 표시제도)'의 운영 두가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JIS마크표시제도는 인정을 받은 생산자가 자기 책임 하에 제품에 JIS마크를 표기하는 것으로 JIS마크표시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JIS에 적합한 상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5년 10월에 개정된 JIS마크



자료원: 일본규격협회

나. JAS제도

JAS제도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 호: JAS법)’에 근거하여 농림물자의 ① 품질 개선, ② 생산 합리화, ③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④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 농림수산성 대신이 제정한 일본 농림규격 (JAS 규격)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인정하는 ‘JAS규격제도’와 일반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농림수산성 대신이 제정한 품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모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무화하는 ‘품질표시기준제도’의 2가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제품에 JAS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자는 등록인정기관 (농림수산성 대신의 등록을 받은 기관으로 제조시설, 품질관리, 제품검사, 생산행정관리 등의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사업자(인정 사업자))이 된다.

- 대상품목: 모든 음식료품
- 표시
 - (예)가공식품: ①명칭, ②원재료명, ③내용량, ④유효기간 ⑤보존방법, ⑥원산국명, ⑦수입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나. PSE제도

□ PSE마크

200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전기 용품 안전법”(구 전기용품단속법)에 의하면 동 법에 적용되는 450개 전기용품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PSE마크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 당시, 구 전기용품 단속법에 근거해 마크(T마크)를 부착하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로, 품목에 따라 5년, 7년, 10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5년인 259개 품목의 경우, 2006년 4월 1일부터는 PSE마크를 부착하지 않고서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PSE마크 표시대상품목

구 분	주요 품목	유예기간	신 마크	구 마크
특정전기용품 (112품목) *2개 품목은 유예기간 대상 외	온수기, 온장고 등 32품목	2006.3.31		 <갑종전기용품>
	전기 마사지기, AC어댑터 등 36 품목	2008.3.31		
	형광등용 소켓, 스위치 등 42품목	2011.3.31		
특정 이외 전기 용품 (338품목)	냉장고, 세탁기, TV, 음향 기기 등 227품목	2006.3.31		마크 없음 <을종전기용품>
	전기스탠드, 에어컨 등 65품목	2008.3.31		
	전선관 등 45품목	2011.3.31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7. 지적재산권

가. 일본의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제도 개요

일본의 지적재산권 관련법규로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국제출원법, 부정경쟁방지법, 변리사법 등이 있다.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조약으로서에는 베른협약, UCC, 파리협약이 있다.

일본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시각은 특히 최근 들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기술, 자본, 상품의 국제교류 및 국제이전과 관련하여 각종 첨단기술분야의 신기술 보호와 신기술 개발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1985 년 중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명문화했으며 반도체 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기술선진국으로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는 보호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신기술 제품의 교역자유화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적재산권 관련 절차는 자의적인 부분이 많으며, 등록절차도 복잡하고 정식으로 발효될 때까지 약 5-6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예컨대, 특허권 및 상표권에 있어서 신청·조사 및 검사·부여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요한 발명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의 제기를 접수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있고, 특허 중 특정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만 인정하고, 특허신청도 반드시 일본에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허에 관해 번역에 따른 오기를 인정치 않으며 특허관련 분쟁도 접수 시에 제공된 사례 및 한도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면에서 미흡하다. 특허권의 경우 외국 특허 신청과정의 지연으로 특허권 획득에 보통 2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허보호 범위가 극히 협소하여 경쟁사에 의한 유사특허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상표권의 경우도 4년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벌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판권의 보호기간도 30년으로 여타국에 비해 짧다. 현행 일본의 특허법 하에서는 행정기관이 수입하는 경우 특허모조품을 배제하지 못하며, 특허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당사자가 직접 재판소에 침해를 중지토록 또는 침해에 의해 발생한 부당이익을 반환하도록 제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제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최근 들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에서의 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정부는 2003년에 지적 재산 입국을 표방하고 특허 심사의 신속화, 대학과의 공동연구활동 등을 집중 지원해오고 있으며, 국제적인 특허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지적 재산고 등 재판소도 신설 예정으로 있는 등 특허관련 정책을 집중, 강화해 오고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인프라가 착착 정비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국제적 소송을 주저해오던 일본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중에 후지쓰가 삼성SDI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PDP 소송(이후 화해로 조정완료)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 업계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나. 형태별 개요

1) 저작권

□ 연혁

일본의 저작권법은 1899년(明治 32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일부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소위 판권으로 보호), 현행 일본 저작권법은 1970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1887년	판권조례 제정
1893년	판권법 제정
1899년	일본 베른협약 가입 저작권법 제정(판권법 등 관련 구(舊)법을 폐지)
1939년	저작권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 시행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5조에 의해 전시가산(戰時加算)이 생겨남. 여기서 전시가산이란, 제2차 세계대전의 일본국 패전으로 인해,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의 국민의 저작권에 대해, 기존의 저작권 보호 기간에다 국가간의 전쟁 기간을 더한 기간동안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남아프리카, 그리스, 레바논이다. 이들 국가의 국민의 저작권에 대해선 전시가산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비에트(현재의 러시아)와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전시가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70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현행 저작권법)
1952년	만국저작권조약을 체결
1977년	만국저작권조약의 파리개정조약에 가입
1995년	WTO 가입

□ 저작권의 범주

일본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재산권	복제권, 상연·연주권, 상영권, 공중송신권, 구술권, 전시권, 배포권, 양도권, 대여권, 번역·변안권,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원저작자의 권리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 저작물의 종류

일본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최근 저작권의 대상이 확대 되는 경향이 있어, 아래 이외의 저작물들이 보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언어 저작물	논문, 소설, 각본, 시가(詩歌), 하이쿠(俳句), 강연 등	
음악 저작물	악곡 및 가사 등	
무용 저작물	발레, 댄스, 일본무용, 판토마임 등	
미술 저작물	회화, 판화, 조각, 만화, 서예, 무대장치 등	
지도, 도형 저작물	지도, 도면, 도표, 모형 등	
영화 저작물	극장용 영화, TV용 영화, 비디오 등	
사진 저작물	사진, 그라비아 등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건축 저작물	예술적인 특성을 지닌 건축물 (단, 설계도는 도형 저작물에 해당함)	
그 외의 저작물	2차 저작물	위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등을 시킨 것.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 사전, 신문, 잡지 등의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에는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어, 보호기간 중에만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고, 그 후에는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의 기본적인 보호기한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만든 때부터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이며, 보호 기한 이내라도 그 저작자의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저작권이 소멸된다. (단, 예외적으로 영화 저작권은 70년간 보호)

□ 관련 저작권법

1970년 5월 6일 법률 제48호

□ 국제조약 가입현황(2007년 기준)

1899. 7. 15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975. 4. 20	WIPO
1978. 10. 14	제네바음반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1989. 10. 26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Rome)
1995. 1. 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02. 3. 6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협약(WCT : WIPO Copyright Treaty)
2002. 10. 9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협약(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문화청(文化庁)

일본의 저작권에 관한 법제기관으로는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 <http://www.mext.go.jp>) 산하 기관인 “문화청(文化庁)”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예술 창작 활동의 진흥, 문화재 보호, 저작권 보호, 일본어의 개선과 보급, 국제적 문화교류의 진흥,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 등이 있다.

- 문화청은 1950년에 “문화재 보호 위원회”로 탄생하여, 1966년에 문화국(文化局), 1968년에 문화청(文化庁)으로 개명하였다.

위치	○ 〒100-8959 일본국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5-1(日本国 東京都 千代田 区丸ノ内 2-5-1) ○ JR 도쿄역(東京駅) 지하통로 직결 ○ 지하철 치요다선(千代田線) 니쥬바시(二重橋)역에서 도보 2분 ○ 지하철 미타선(三田線), 토자이선(東西線), 한조몬선(半蔵門線), 오오테마치(大手町)역에서 도보 5분
전화번호	81-3-5253-4111
홈페이지	http://www.bunka.go.jp

□ 재단법인 소프트웨어 정보센터(SOFTIC: Software Information Center)

일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은 재단법인 소프트웨어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위치	〒105-0001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토라노몬 5-1-4 토우도 빌딩 4층 (日本国 東京都 港区 虎ノ門 5-1-4 東都ビル 4F)
전화번호	81-3-3437-3071
홈페이지	http://www.softic.or.jp

□ 신탁위임단체(信託委任)

음악 저작물	○ 사단법인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 (JASRAC) - 음악 저작물의 신탁관리 - 1939년에 설립. 일본 전역에 22곳의 지부를 두고 있음 · 주소: 〒151-8540 도쿄도 시부야구 우에노하라 3-6-12 (東京都 渋谷区 上原 3-6-12) · 전화: 03-3481-2121 · 팩스: 03-3481-2150 · 홈페이지: http://www.jasrac.or.jp
소설 저작물	○ 사단법인 일본 문예가 협회 - 소설 등의 저작자와 저작물을 보호, 관리 - 1926년에 설립된 “문예가 협회”를 1964년에 개명함 · 주소: 〒102-8559 도쿄도 치요다구 키오이초 3-23 문예춘추빌딩 신관(東京都 千代田区 紀尾井町 3-23 文芸春秋ビル 新館) · 전화: 03-3265-9658 · 팩스: 03-5213-5672 · 홈페이지: http://www.bungeika.or.jp

미술품 저작물	○ 사단법인 일본 미술가 연맹 - 미술품에 관한 저작권을 처리. 저작권 계승자의 연락처를 제공 · 주소: 〒104-0061도쿄도 츄오구 긴자 3-10-19 예술가회관 (東京都 中央区 銀座 3-10-19 芸術家会館) · 전화: 03-3542-2581 · 팩스: 03-3545-8429 · 홈페이지: http://www.jaa-iaa.or.jp
사진 저작물	○ 일본 사진 저작권 협회(JPCA) - 1971에 설립. 사진 저작권의 관리 및 조사, 저작권 확립, 관련연수 및 세미나 진행 · 주소: 〒102-0082도쿄도 치요다구 이찌방초 25 JCII빌딩 304호 (東京都 千代田区 一番町 25 JCIIビル 304号) · 전화: 03-3221-6655 · 팩스: 03-3221-6655 · 홈페이지: http://www.jpca.gr.jp
디자인 저작물	○ 사단법인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 협회 -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문제를 연구하거나 조사, 보고하는 일을 진행 · 주소: 〒150-0001도쿄도 시부야구 진구마에 2-27-14 JAGDA 빌딩 (東京都 渋谷区 神宮前 2-27-14 JAGDAビル) · 전화: 03-3404-2557 · 팩스: 03-3404-2554 · 홈페이지: http://www.jagda.or
출판물 저작물	○ 사단법인 일본 서적 출판 협회 - 출판에 관한 저작권 문제의 조사·연구 및 적절한 계약 관행이나 출판사의 권리법제화 추진 · 주소: 〒162-0828도쿄도 신주쿠구 후쿠로초 6번지 (東京都 新宿区 袋町 6) · 전화: 03-3268-1303 · 팩스: 03-3268-1196 · 홈페이지: http://www.jbpa.or.jp
잡지 저작물	○ 사단법인 일본 잡지 협회 - 잡지 저작권의 확립과 보호에 관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잡지의 약 80%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 · 주소: 〒101-0062도쿄도 치요다구 칸다스루가다이 1-7 (東京都 千代田区 神田駿河台 1-7) · 전화: 03-3291-0775 · 팩스: 03-3293-6239 · 홈페이지: http://www.j-magazine.or.jp
출판물 저작물	○ 사단법인 일본 서적 출판 협회 - 출판에 관한 저작권 문제의 조사·연구 및 적절한 계약 관행이나 출판사의 권리법제화 추진 · 주소: 〒162-0828도쿄도 신주쿠구 후쿠로초 6번지 (東京都 新宿区 袋町 6) · 전화: 03-3268-1303 · 팩스: 03-3268-1196 · 홈페이지: http://www.jbpa.or.jp
연극 저작물	○ 사단법인 일본 예능 실연가(實演家) 단체 협의회 - 예능에 관한 저작권의 권리 위임과, 레코드, 씨디 등의 사용료 등의 권리 분배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예능계의 7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음

	- 주소: 〒163-1466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3-20-2 도쿄 오페라 씨티 타워 11층(東京都 新宿区 西新宿 3-20-2 東京オペラシティタワー11階) - 전화: 03-3379-3571 - 팩스: 03-3379-3589 - 홈페이지: http://www.cpra.jp
방송 저작물	○ 일본 방송 협회(NHK) - NHK방송 제작 및 해외에 TV나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공공방송 기관 - 주소: 〒150-8001도쿄도 시부야구 진난 2-2-1 (東京都 渋谷区 神南 2-2-1) - 전화: 03-3465-1111 - 팩스: 03-3481-1803 - 홈페이지: http://www.nhk.or.jp
	○ 사단법인 일본 민간 방송 연맹 - 전국의 텔레비전 방송 및 방송의 디지털화의 추진 및 저작물의 공적인 기록보존 장소로서의 업무 수행 - 주소: 〒102-8577도쿄도 치요다구 키오이초 3-23 (東京都 千代田区 紀尾井町 3-23) - 전화: 03-5213-7717 - 팩스: 03-5213-7714 - 홈페이지: http://www.nab.or.jp
비디오 저작물	○ 사단법인 일본 영상 소프트 협회 - 영상 소프트의 규격이나 기준 결정 및 영상 저작물 등의 이용 수속 소개 - 주소: 〒104-0045도쿄도 츄오구 츠키지 2-12-10 츠키 지MF빌딩 26호관(東京都 中央区 築地 2-12-10 築地MFビル 26号館) - 전화: 03-3542-4433 - 팩스: 03-3542-2535 - 홈페이지: http://www.jva-net.or.jp
영화 저작물	○ 사단법인 일본 영화 제작자 연맹 - 영화제작 촉진과 관람 증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영화제작이나 이용에 관한 저작권에 대해 보호·관리하는 업무 수행 - 주소: 〒103-0027도쿄도 츄오구 니혼바시 1-17-12 니혼바시 빌딩 2층(東京都 中央区 日本橋 1-17-12 日本橋ビルディング 2F) - 전화: 03-3203-9100 - 팩스: 03-3203-9101 - 홈페이지: http://www.eiren.org - 이메일: info@eiren.org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물	○ 사단법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광고나 홍보 및 저작권자를 지원하는 활동 수행 - 주소: 〒112-0012도쿄도 분쿄구 오오츠카 5-40-18(東京都 文京区 大塚 5-40-18) - 전화: 03-5976-5175 (저작권 핫라인: 03-5976-5178) - 팩스: 03-5976-5177 - 홈페이지: http://www2.accsjp.or.jp
초상권의 저작물	○ 초상 퍼블리시티권 옹호 감시 기구 -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영상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6년에 설립된 단체 - 주소: 〒160-8501도쿄도 신주쿠구 요츠야 4-28(東京都 新宿区 四谷 4-28) - 전화: 03-3226-0984 - 팩스: 03-3226-0984

□ 저작권 등록제도

특허나 상표 등의 산업 재산권은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저작권은 이러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물이 창작된 때부터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의 등록제도는, 권리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관계의 법률적 사실을 공시하거나 저작권이 이전된 경우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에 쓰이기 위함이며, 저작권이 등록되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어 권리의 주장을 돕는다.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물을 제외한 그 외의 저작물에 관해서는 창작된 것만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을 공표했다거나 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것 등의 사실이 있을 때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 프로그램 저작물은, 소프트웨어정보센터(<http://www.softic.or.jp>)에서 등록을 담당한다.

등록의 종류	등록내용 및 효과	신청할 수 있는 자
실명등록 (저작권법제75조)	○ 무명 또는 가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실명(본명)을 등록한다. - 등록한 사람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 그 결과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50년 간에서 실명으로 공표된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의 사후 50년 간이 된다.	- 무명(가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저작자 - 저작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
최초 발행된 연월일 등의 등록 (동 법 제76조)	○ 저작권자 또는 무명 혹은 가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발행자가 해당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되거나 공표된 연월일을 등록 한다. - 반증이 없는 한, 등록이 된 날부터 해당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	- 저작권자 - 무명 또는 가명의 저작물 발행자
창작 연월일 등록 (동법 제76조의2)	○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가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이 창작된 연월일을 등록한다. - 반증이 없는 한, 등록된 날에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자
저작권·저작권접권 이전 등의 등록 (동법제77조)	○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의 양도 등을 등록하거나,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 등을 등록한다 - 권리의 변동에 대해,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등록 권리자 및 등록 의무자의 공동신청
출판권 설정 등의 등록 (동법 제88조)	○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출판권의 설정 이전 등의 등록, 또는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을 등록 한다. - 권리의 변동에 대해,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록 권리자 및 등록 의무자의 공동신청

□ 등록 프로세스

접수된 신청서가 심사, 등록, 각하될 때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간이다. 등록, 각하가 진행되기까지 사이에는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신청취소도 가능하다.

□ 공통 구비서류(모든 저작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소정 양식 없음. 용지크기는 A4사이즈(가로21.0 cm X 세로29.7 cm) 신청서가 2매 이상이 될 경우에는 왼쪽부분을 철한 뒤, 간인(間印: 두 면에 도장이 찍히도록 하는 것)또는 서명이 필요.
저작물의 명세서	
위임장 등의 대리인의 권한 증명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각 종류별로 신청에 필요한 자료

구분	서류목록
실명 등록	실명을 증명하는 자료 (호적 또는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주민표의 복사본 등)
최초 발행년월일 등의 등록	최초에 발행된 년월일을 증명하는 자료(영수증, 판매증명서, 전시증명서 등)
저작권 이전 등의 등록이나 출판권 설정 등의 등록	○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자료 (양도증서, 담보 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등) ○ 등록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재판소의 판결문 (등록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 없음) ○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자료. ○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 호적 또는 등기부 등본, 초본. 그 외,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원인을 증명하는 자료 (민법 423조)

□ 등록비용

구분	저작권 이전 등록	건당 18000엔
저작권 등록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담보)설정, 저작권, 당해 저당권 처분 등록	채권금액의 4/1000 (엔으로 환산)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담보) 이전 등록	건당 3000엔
	무명(無名)저작물, 가명(펜 네임 등)저작물의 실명 등록	건당 9000엔
	신탁등록	건당 3000엔
	최초 발행(공표)년월일, 창작년월일 등록	건당 3000엔
	말소된 등록의 회복 또는 등록 변경	건당 1000엔
	등록 말소	건당 1000엔
출판권 등록	출판권의 설정 등록	건당 30000엔
	출판권의 이전 등록	건당 18000엔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담보)의 설정, 출판권, 당해 저당권 처분 등록	채권금액의4/1000 (엔으로 환산)
	출판권의 이전 등록	건당 3000엔
	신탁등록	건당 3000엔
	말소된 등록의 회복 또는 등록 변경	건당 1000엔
	등록 말소	건당 1000엔
저작인접권 등록	저작인접권의 이전 등록	건당 9000엔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담보)의 설정, 저작인접권, 당해 저당권 처분 등록	채권금액의4/1000 (엔으로 환산)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담보)의 이전 등록	건당 3000엔
	신탁등록	건당 3000엔
	말소된 등록의 회복 또는 등록 변경	건당 1000엔
	등록 말소	건당 1000엔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은 1905년 제정되었으며 그 후 수십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현행 법률은 1959년 개정 실용신안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일본은 실용신안에 있어서 심사주의, 1고안 1출원,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 기간	출원 공고일로부터 10년 (단 출원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원 공고	다음 항의 특허법과 동일
위반에 대한 제재	실용신안권 침해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사기행위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 벌금. 특허청 또는 법원에서 위증을 한자: 10년 이하의 징역.

□ 반도체 칩의 설계 (LAY - OUT)

일본의 반도체 칩 회로배치 방법의 보호는 지난 1983년 미국과 일본간의 첨단기술산업 작업회가 반도체 칩의 배치방법에 대한 미국과 일본 양국정부에 건의한 데 따라 실시되었다. (미국은 1984년부터, 일본은 1985년부터)

□ 일본의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에 관한 주요 법률

보호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등록신청	최초 제조 후 2년 이내에만 등록신청 가능
권리의 양도 및 이용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권리의 양도, 전용 이용권 및 통상 이용권의 설정이 가능
보상금 청구의 소급성	등록 전에 회로 배치가 모방되고 이용되는 경우 등록권자는 등록 후에도 그 보상금 청구가능
위반에 대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3) 종묘권

□ 1978년 제정된 "종묘법"의 주요 내용

보호기간	등록일로부터 15년. 단 과수 재목 등은 18년
위반에 대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4) 상표권

일본에서 상표법은 1959년에 제정된 이래 수 차례의 부분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보호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기간	출원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가능
상표 등록권자	선원주의를 채택, 상표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 필요
불사용 취소	3년
출원공고 (이의 신청기간)	3개월
상품분류	34류
위반에 대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5) 의장권

□ 일본 의장법의 주요 내용

보호기간	의장등록일로부터 15년
신규성 장애 요인	국내외 공용공지, 국내외 간행물 게재
위반에 대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기타	심사주의, 등록표시 필요

6) 특허권

일본 특허법은 1899년 제정된 이래 20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는데, 현행법률은 1959년 개정법률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일본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 기간	출원 공고일로부터 15년. 단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 추가특허는 원 특허의 소멸과 동시에 소멸한다.
신규성 장애 요인	공지공용, 국내외 간행물 게재
특허대상이 될 수 없는 발명	원자력 변환의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물질
이의신청	출원공고가 있을 때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 청장관에게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실시의무	특허권 부여 후 동 권리가 3년간 적절히 사용되지 않을 경우 강제 실시가 허용된다. 강제실시는 통산성대신의 요청에 의해 실시된다.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7년
출원공고	특허청장관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출원공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 공개를 하여야 한다.
위반에 대한 제재	- 특허권 침해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사기행위에 의해 특허를 받은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 - 허위표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 법원 및 특허청에서의 위증: 10년 이하의 징역

최근 인터넷 소프트웨어에 대한 copy 방지목적으로 소프트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다. 국가별 일본의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

2006년 수입 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단속된 건 수는 중국이 9,440 건(구성비48.2%), 뒤를 이어 한국이 8,720건(동44.5%), 필리핀이 445건(동 2.3%)이었다. 2005년과 비교하면, 중국이 50% 증가, 한국이 44% 증가하였다.

또, 수입단속 물품 수는 중국이 약45만 개(구성비46.2%), 그 뒤를 이어 한국이 약38만 개(동 39.2%), 홍콩이 약7만 개(동 8.3%)였다. 2005년과 비교하면 한국이 16%감소, 홍콩이 25% 감소, 필리핀이 19% 감소되었다.

수입 시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별 단속실적

(상단: 건 수/하단: 물품 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대전년비	구성비
중국	552	1,630	3,358	6,278	9,440	150.40%	48.20%
	534,495	395,265	434,980	448,680	452,216	100.80%	46.20%
한국	5,334	4,505	4,598	6,045	8,720	144.30%	44.50%
	231,149	240,393	381,371	458,143	384,173	83.90%	39.20%
필리핀	140	299	387	365	445	121.90%	2.30%
	54,503	28,402	37,840	40,974	33,187	81.00%	3.40%
홍콩	476	625	423	369	424	114.90%	2.20%
	77,587	58,997	142,414	91,223	68,727	75.30%	7.00%
태국	242	199	220	272	343	126.10%	1.80%
	33,825	9,823	13,939	25,633	27,798	108.40%	2.80%
미국	23	25	30	38	52	136.80%	0.30%
	1,695	1,009	3,702	2,057	2,987	145.20%	0.30%
베트남	13	24	15	15	44	293.30%	0.20%
	4,190	1,780	1,316	616	5,693	924.20%	0.60%
터키	1	0	0	2	35	1750.00%	0.20%
	200	0	0	14	208	1485.70%	0.00%
대만	40	31	33	21	20	95.20%	0.10%
	19,254	15,871	5,846	3,380	587	17.40%	0.10%
말레이시아	5	8	26	8	14	175.00%	0.10%
	235	129	487	446	67	15.00%	0.00%
기타	152	66	53	54	54	100.00%	0.30%
	35,775	19,637	15,102	26,234	3,581	13.70%	0.40%
합계	6,978	7,412	9,143	13,467	19,591	145.50%	100.00%
	992,908	771,306	1,036,997	1,097,400	979,224	89.20%	100.00%

주: 1. 본 표는 수출국 기준이며, 원산국 기준이 아님.

2. 건 수 및 물품 수는 침해물품에 관련한 일반화물 수입신고 건 수 및 수입우편물의 건 수를 계상한 것임.

자료원: 일본 재무성

2007년 1월 -9월까지의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11,485건으로 전체의 69.2%를 점하고, 뒤이어 한국이 3,587건 (구성비 21.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한국이 49.2% 감소한 반면, 중국이 2.1배, 홍콩이 2.2배, 태국이 2.1배 증가하였다.

수입단속 물품 수로는 중국이 365,673개로 전체의 64.4%를 점하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이 133,202개 (구성비 23.5%) 의 순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한국이 59.5% 감소한 반면 중국이 25.2% 증가하였다.

8. 통관/운송

가. 수입 통관 절차 개요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에 수입 신고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검사를 거쳐 수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수입신고로부터 시작되어 필요한 검사를 거쳐 관세 및 내국 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 허가를 받을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수입통관 절차이다.

□ 수입통관의 흐름

화물의 수입항 도착→보세지역으로 화물반입→수입신고, 납세신고→세관에 의한 심사, 검사→관세 등의 납부→수입 허가→보세지역으로부터 화물 반출→수입자 화물 인수의 수순으로 이루어진다.

나. 수입 신고

1)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신고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특별히 허가 받은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반입된 후이다. 다만, 특정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 채 또는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전에 신고가 인정되고 있다.

2) 수입신고자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입자를 대신하여 통관업자에 의한 대리 신고가 이루어진다.

3) 제출서류

수입신고는 통상, 수입(납세)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 수입부문의 품목별(예: 농수산물, 기계 등)통관담당 부문에 제출한다. 필요 서류로는 송품장, 원산지 증명서(협정세율 또는 편익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일반특혜제도 원산지 증명서(특혜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포장명세서, 운임명세서, 보험료 명세서 등(필요한 경우)이 있다. 이외에도 관세법 이외의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입에 필요한 허가 및 승인서(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입규제를 받는 경우 해당), 감면세 명세서(감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납부서(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4) 수입심사

수입신고서가 세관수입통관부문에 제출되면 다음사항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① 수입신고서, 송품장 등의 제출부수 및 기재사항은 정확한가 또 이들 서류상의 내용은 서로 일치되고 있는지 여부, ② 관세법 이외의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입허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허가,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③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 표준, 관세율표 번호, 세율, 세액 등이 정확한지 여부, ④ 관세 또는 내국소비세의 감면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필요한 감면세 명세서 기타 감면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5) 수입 검사

수입 검사의 목적은 신고내용과 화물의 동일성을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관세 및 내국 소비세를 확보하고 수입 규제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권총 등 위험품 적발 등에 있다.

□ 검사대상물품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물품의 종류, 성질, 목적지 등을 감안하여 예를 들면 ‘세번 및 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특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수입 무역 관리령의 규제 대상품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각성제 단속법,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법, 대마 단속법, 독극물 단속법, 식물 방역법 등의 규정에 의한 수입규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수량확인을 위하여 특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권총 등 사회악 물품의 부정수입 혐의가 있는 물품 등, 특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물품’ 중에서 중점적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검사 장소

수입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같은 장소로 세관 검사장 및 보세 구역 등이 있다. 즉 중량 물품, 산물 또는 위험 물품으로 지정검사 장소이 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것을 '지정지역 외 검사 (指定地外検査)'라 한다

□ 검사의 구분 및 방법

수입 검사를 실시할 것 인지의 여부는 세관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이것을 '검사 지정' 이라하며 검사 지정된 물품은 검사장소의 구분에 의거 검사장 검사(세관구 내 검사장에서 행하는 검사) 또는 현장 검사(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 또는 지정지 외 검사장소 등에서 행하는 검사)가 이루어진다. 검사 방법으로 전부 검사, 일부 지정 검사 또는 견본 검사가 있다.

6) 수입허가

수입 허가는 수입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 서류의 심사 또는 물품의 검사 결과, 신고 내용과 화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동시에 다음에 게시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를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관세, 내국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들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 (납기 연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둘째, 물품이 아편, 마약, 기타 수입금지품이 아닐 것, 셋째, 타 법령의 규제를 받는 물품은 각각의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을 득할 것, 넷째, 물품의 원산지 등이 허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것 등이 있다.

참고로 2003년 7월부터 동경을 비롯한 전국 주요 6개(동경, 요코하마 등)항 에서 24시간 동안 통관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일본 통관업 연합회의 홈페이지 (<http://www.tsukangyo.or.jp>)에 통관업체 리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다. 운송 방법

일본과의 화물 운송은 주로 해상운송이고, 소량 및 단기간 수송이 필요한 경우 항공화물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샘플 정도의 소량의 경우는 국제우편이나, 국제택배도 이용된다.

화물의 거래에 필요한 ‘수입신고’→‘수입허가’의 수속은 통상 해운화물업자나 항공대리점에 위임된다. 수송수단, 화물의 수송량에 따라, 현지에서 일본까지의 수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다르다. 수속 전반을 포함하여 대리점의 대리위임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해상 운송

해상 운송은 운항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정기선(Liner)과 차터로 이용하는 부정기선(Tramper)이 있다. 부정기선은 주로 자동차 등 특정화물 수송에 이용된다. 정기선의 대부분은 컨테이너선이다.

- 통관수속의 대리위임 :
 - 수출자로부터 선적통지(Shipping Advice) 연락이 들어오면 수입자는 기용한 해운화물업자에게 연락하여, 통관수속 대리를 위임한다.
 - 화물의 수취와 보세지역으로의 반입
 - 지정보세지역 등의 보세지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 (원칙으로 수입신고는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된 후)의 조속한 인취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제나 수입신고 후 담보를 제공하여 ‘수입허가 전 인취’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수입 (납세) 신고
 - 납세와 수입 허가
 - 세관에서 수입 신고된 화물의 서류심사, 필요한 화물검사, 또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의 허인가 취득이나 검사 및 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화물에 관해서는 그 충족의 확인 등의 후, 문제없이 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납부가 있으면 수입허가통지서가 교부된다.
 - 보세지역으로부터의 반출과 인취
 - 이 서류를 보세지역의 담당자에게 보여 화물을 보세지역으로부터 일본 국내에 인취할 수 있게 되어, 해운화물업자에 의해, 보세지역으로부터 수입자에게 반출된다.
- 소요일수 :

수입신고부터 허가까지는, NACCS(통관정보처리 시스템)를 이용하며, 빠르면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다. 통상은 그 날 중으로 허가가 난다단, 세관의 현물검사가 이루어지는 등 타 법령의 인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시간이 걸린다. 선박의 입항(화물의 일본 도착)으로부터 수입허가까지의 수입수속 전체에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은 2.8일 (67.1시간) 예비심사제는 2.1일 (51.3시간)이다.

□ 항공운송

항공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에는 항공기 도어(door)크기보다 큰 화물, 항공기 하중을 초과하는 무거운 화물, 가격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화물 및 위험물 등, 특별히 제한되어 수송 가능한 화물, 제한된 물량 및 용기가 사용된 위험물, 항공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포장 및 봉인된 귀중품 등이 있다.

일본의 화물 운송 관련 참고 웹 사이트로는 (사)항공 화물 운송 협회의 홈페이지(www.jafa.or.jp)가 있는데, 일본의 화물운송업체 리스트가 등재되어 있다.

통관수속 순서 등은, 해운화물과 거의 동일하다. 해운화물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주로 납기 면에서 서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다).

- 항공회사로부터의 화물 수취
 - 항공기 도착 시, 화물은 곧바로 분류 점검을 받은 후, 보세장치장에 보관되고, 수입자에게 전화로 도착통지(Arrival Notice)가 행해진다. 수입자는 기용한 항공화물대리점을 동 전화 통화 시 지정하여, 별도 당해 항공화물 대리점에는 통관수속을 의뢰한다. 대리점은 수속을 통해 화물을 받아 보세지역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를 한다.
 - 세관 심사, 납세를 거쳐 수입허가통지서를 취득하여 화물의 받는다.
 - 항공기 입항에서 수입허가까지의 수입수속전체에 필요한 평균소요일 수는 0.7일(17.0시간, 예비심사제에서는 0.2일(4.8시간))이다.
- 도착 즉시 수입신고 취급제도
 - NACCS (통관정보처리 시스템) 로 예비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세관으로부터 검사불요로 분류된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지역으로 반입되지 않고, 신속히 수입신고를 끝내고 즉시 수입허가가 내린다 (도착 즉시 수입허가제도) . 이 제도를 이용한 경우, 항공기의 도착에서 수입허가까지의 평균소요시간은 1.7시간(관세국 조사)이다. 세관의 현물검사가 있어도 거의 반나절이면 화물을 찾을 수 있다.

□ 일본 수출 시 경로 별 운송소요시간

한국에서 오사카로 수출할 경우의 예시로, 도쿄, 후쿠오카, 나고야의 경우도 비슷하거나 1일 정도(해상 운송의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부산항-오사카항 (해상운송) 2일-5일 소요	부산항-오사카항: 1일(페리선), 2-3일(화물 컨테이너선) 오사카항 도착 후 통관 및 하역처리: 1-2일
인천항-오사카항 (해상운송) 4일-5일 소요	인천항-오사카항: 3일 오사카항 도착 후 통관 및 하역 처리: 1-2일 관서지역 다른 주요 항구인 고베항, 사카이항의 경우도 소요기간 비슷함
인천공항-간사이공항 (항공운송) 1일-2일 소요	인천 공항-간사이 공항: 당일 간사이 공항 도착 후 통관 및 하역 처리: 1-2일

자료원: 코트라 작성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 환경

일본의 대외 투자 유치 활동은 9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지역사회의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아름다운 국토창조를 목표로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관련법규를 정비하였다. 외국의 대일 직접투자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자본거래도 완전 자유화 되어 있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단, 석유업 금융업등 일부의 분야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 그러나 엄청난 地價, 인건비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외국의 대일 직접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투자유치의 요건이 되는 경제의 경우, 1990년대 일본이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간에 걸친 불황기를 거쳐오면서 기업도산 (야마이치증권 등 대기업 포함)건수 증가, 실업률 상승,

생산위축 등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 현상을 겪으면서 기업은 인원 및 조직 축소,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을, 정부도 금융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개혁을 비롯한 제반 경제구조 및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일본 경제는 이 같은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02년에 플러스 성장(실질 GDP성장을 1.1% 달성)을 실현한 데 이어, 2003년, 2004년 2% 전후의 성장률, 2005년도에는 3%의 실질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경제성장의 자신감에 의한 제로금리 해지와 디플레이션의 실질적 탈피로 일본정부는 2006년도에는 1960년대의 이나자기 경기(일본의 신으로서 일본은 경기회복세등이 끝나면 상징적인 의미의 작명을 하게 됨)를 뛰어넘는 최장기 회복세를 기록하였다. 나아가 2007년 일본경제는 2%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2007년 1/4분기까지 일본 경제는 수출 및 개인소비 등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기대비 0.6%(연율 2.4%) 성장함으로써 9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실현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음.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종전까지 해외투자 진출 일변도였던 투자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해외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 5월 중 대일투자회의(본부장 겸 의장 고이즈미 수상)을 설치하여, 투자대상처로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각종 투자유치 시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06년 출범한 아베 수상체제 하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서는 2003년 초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도쿄 도심지인 아카사카에 설치하고 분야 별 전문상담역을 두고 외국인 투자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이다.

일본의 대외 투자유치의 외국기업의 대일 직접투자의 내역을 살펴보면 북미나 유럽 등의 유명기업 혹은 유명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개도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의 국가별 투자유치 실적(누적)

	2000	2001	2002	2003	2004	00~04	점유율
미국	9,141	5,139	4,876	3,090	24,372	46,617	38.91
유럽	6,234	8,761	5,805	6,130	6,744	33,673	28.11
EU15	4,267	8,530	5,256	6,018	6,638	30,708	25.63
아시아	378	453	373	1,428	804	3,436	2.87
중국	5	3	3	3	9	22	0.02
한국	48	24	25	34	229	360	0.30
중동	3	2	1	0	4	10	0.01
아프리카	3	28	31	1	-	62	0.05
대양주	62	3	48	14	4	131	0.11
중남미	1,520	518	1,837	4,075	1,254	9,203	7.68
합계	28,276	17,405	17,935	18,722	37,459	119,797	100.00

주) 단위: 100만불, % / 점유율은 00~04년도 수치내에서의 점유율임

자료원: 일본 재무성, JETRO(2007 현재까지 업데이트 분)

이는 기업 고유의 뚜렷한 우위요소가 없는 개도국 기업은 일본의 엄청난 지가, 인건비등에 따른 투자비용을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기업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기업의 우위요소와 차별화 될 수 있는 핵심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진출 후에도 성공하기 어렵다.

한편, 2006년도에 일본의 대내직접투자유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JETRO의 투자실적에 따르면, 2006년도에는 대일투자기업의 원금회수가 많아, 전체 678억 8천만 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본시장에서의 이익을 회수하는 측면이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특히 홍콩, 캐나다, 네덜란드 등으로부터의 자금 회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일본 투자 시 장점과 단점

○ 장 점

- 방대한 인구 및 시장
- 높은 소득수준
- 투자에 대한 법적 자유
- 무역입국으로 제3국 수출용이
- 자본거래상 제한 없음
- 안정된 정치 및 치안
- 기술인력 확보 용이

○ 단 점

- 엄청난 地價 및 높은 물가 (도쿄 및 오사카 중심 평당 신축사무실 임차료 기준)
- 높은 임금수준
- 까다롭고 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관습
- 개도국 제품에 대한 나쁜 이미지 및 소비자의 고급 브랜드 제품 선호
- 고급인력,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고급인력, 기술인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을 선호하여 외국 기업은 확보 하기 어려움)
- 배타성
- 세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기업과 경쟁
- 높은 주재원 부대비용

위기 및 투자시 국가 안전도 면에서 일본은 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불경기가 13년 이상 계속되어왔으나 2002년 이후 경제는 회복세를 보여 오고 있다.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위기설이 제기되어 왔으나 금융재생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실채권 비율(주요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06년 5월 기준 2%대로 낮추는데 성공)이 낮아지고 금융부문의 수익성도 개선되어오고 있어 일단은 위기상황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일본은 국가 위험도면에서는 가장 안전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낮은 국가위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관계를 놓고 보면 우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종종 역사문제 등으로 파국으로 치달고 있어 이 같은 점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신 회사법 시행에 따른 변화

2006년 5월부터, 이제까지 일본의 회사법제를 규정해온 상법(제2편), 유한회사법, 상법특례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묶는 신회사법이 시행되고 있다.(2005년 6월 제정된 바 있음)
외국기업의 일본진출과 관련성이 높은 개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회사설립의 용이성
 - 주식회사 1,000만엔, 유한회사 300만엔의 최저자본금제도가 철폐되고 유사상호 규제 및 발기설립의 경우 관련 금융기관에 의한 보관증명제도가 폐지되어 회사설립 등기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기업의 지점을 일본에 개설할 경우 대표자 전원이 일본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소 1명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면 지정 개설이 가능하다
- 주식회사 기관설계의 유연화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제도가 유한회사가 갖는 유연성을 겸비한 주식회사 제도로 통합된다. 기관설계는 주식양도제한회사일 경우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 1명으로 요건을 충족한다.
- 새로운 형태의 회사유형 창설
 -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및 영국의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을 모델로 하는 합동회사(일본판LLC)가 신설됨에 따라 유한책임의 출자자가 임원의 권한 및 이익배분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어 인재집약형 공동사업 및 산업협력에 의한 기업활동의 촉진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 합병의 유연화
 - 존속회사의 주식으로만 교부가 가능한 현행 합병 대가에 대해 현금과 신회사의 주식을 대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편, 2007년 5월부터는 ‘합병대가의 유연화에 관한 규정’이 되게 되어 현금으로 합병하는 것과 3개사가 합병하는 등의 사항이 가능하게 되는 등, 기업재편과 관련된 법률 등이 거의 재정비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나. 투자진출 유망분야

1) 유망분야

일본 통상백서, 경제백서, JETRO 백서를 통해 살펴 볼 때, 대일 투자 진출 유망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 2x4공법, 새로운 건축자재, 인테리어 소재 및 시스템 디자인을 도입한 주택 건설
- 의료, 복지: 고도 의료기기, 실버서비스, 원격 의료시스템, 생명공학적 의료복지 시설 및 기기

- 환경: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 환경조화형 제품
- 에너지: 절전형 전기제품, 폐기물 이용 발전
- 정보, 통신: 정보제공 서비스, Information Network관련 소프트웨어, 통신교육 서비스
- 유통: 대규모 쇼핑센터,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 생활: 스포츠, 레저 활동 관련제품, 원예, Car Navigation System, 건강관련제품, 예술, 문화, 애완용품
- 직업알선: 인재파견, 직업소개
- 경영지원: Outsourcing, 법률 및 경영자문, 업무대행
- 식품: 건강식품, 유기식품, 바이오 관련 식품.
- IT관련 및 정보통신산업
 - IT분야는 특히 우리기업의 일본 진출이 활발한 분야임
 -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일본사무소(I-Park Tokyo),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본사무소 한국 사업 창출센터(전화:03-3508-0673)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방식에 의한 지원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 기타 온라인 게임 분야 등은 이미 우리 기업(한게임, 그라비티)이 가입자수 1백만 명 이상, 동시 접속 10만 명 이상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해오고 있는 중이다.

2) 특기사항

2004년부터 겨울연가 등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일본 내 한류 붐의 영향으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해오고 있다. 이 같은 한류는 영화, 드라마, 배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라 2005년 들어서는 일반상품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2006, 2007년까지 그 여파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국산 소프트웨어제품이 일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가전제품, 자동차 등도 서서히 인지도를 높여오고 있다. 이 밖에도 고가브랜드의류분야의 직접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한류마케팅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현재와 같은 한류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갈 경우에 대비 한류관련상품의 마케팅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 분야에서의 일본시장 직접 진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일본 경제의 회복으로 ① 여타 제조기업과의 협력이 비교적 쉽고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 가능한 점, ② 거래선과 보다 가까운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납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 ③ 첨단 기술, 소비자 니즈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 가능하고 이를 상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점 ④ 외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 등의 관점에서 투자지로서 일본의 입지조건의 우위성을 재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일부 외자 기업 중에서는 일본에 아시아 역내 본사 기능 및 일본 시장을 겨냥한 제품 개발 거점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최근에는 일본의 연구 개발력과 통신 환경, 특정 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고려해 연구 개발 투자에 착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2년 이후 일본 경제가 민간 수요 주도에 의해 회복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 기업 재편 법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M&A 등의 조직 재편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가고 있으며 회계 기준에서도 국제 수준에 가까운 제도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나아가 민사 재생법 제정 및 회사 갱생법, 파산법 개정 등 일련의 도산법을 재정비함으로써 경영 부진에 빠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가. 투자 형태별

전세계의 대일 투자 건수는 2005년 274건으로 전년 대비 -1건,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3년간 대일투자유치 총779건 중 형태별로 살펴보면 M&A 투자가 617건, 그린 필드 투자가 162건으로 M&A 투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M&A투자에서 일본기업은 2004년에 전년대비 31%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5년에 들어와서는 13.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본 내 외국기업(일본 법인)에 대한 투자는 2003년~2005년 약 20건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린필드 투자(투자국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의 투자)는 2005년도에 68건으로 전년대비 47.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의 무역투자백서2006판(작년 하반기 기준)에 의하면, 2005년도의 해외의 대일 M&A는 감소한 이유로 2002년부터 시작되었던 일본의 업계재편과 재생노력에 연관된 해외 자본에 의한 일본 기업 인수노력등이 저하된 등을 꼽고 있다.

2003년~2005년 대일투자 건수 내역

형태/년	M&A투자			그린필드 투자	합계
	일본기업	일본 내 외국기업(일본법인)	계		
2003	158	24	182	48	230
2004	207	22	229	46	275
2005	179	27	206	68	274
합계	544	73	617	162	779

정보원: 일본 내각부 조사 자료 (2006년8월 기준)

나. 지역, 국가별

과거 투자실적인 779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382건, 유럽 220건, 아시아 150건, 오세아니아 19건, 그리고 기타지역이 8건으로 북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2005년까지 북미의 대일본 투자는 전체의 49.0%로 약 과반수를 차지했다. 유럽의 대일본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03년~05년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아시아도 03년~05년 전체의 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03년~05년 전체에서 미국이 377건으로 가장 많은 48.4%로 한 국가가 전체투자의 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국이 91건으로 11.7%, 중국(홍콩 포함) 63건으로 8.1%, 독일 40건으로 5.1%, 프랑스 38건으로 4.9%, 한국 32건으로 4.1%로 상위 6개 국가가 전체의 82.3%를 차지했다.

2007 상반기 현재에 집계되어 있는 2006년도 9월까지의 발표(JETRO 국별 투자액)로 보면, 미국은 예년에 비하여 2500만불이 감소하고, 유럽의 투자 또한 전체적으로 43억불이 감소하고 있는 등 2006년은 전반적으로 투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일투자기업 연별 지역별 국가별 분류표

지역별	2003		2004		2005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북 미	121	52.7	145	52.7	116	42.3	382	49.0
유 럽	57	24.8	73	26.5	90	32.8	220	28.2
아시아	45	19.6	48	17.5	57	20.8	150	19.3
대양주	5	2.2	5	1.8	9	3.3	19	2.4
기 타	2	5	4	1.5	2	0.7	8	1.0
계	230	100.0	275	100.0	274	100.0	779	100.0

정보원: 일본 내각부 조사 자료 (2007년2월 기준)

다. 업종별

과거 투자실적의 업종별 내역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21건, 상업 57건, 금융 321건, 비제조업 180건으로 금융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1.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제조업이 28.4%, 비제조업이 23.1%, 상업이 7.3%로 나타났다. 금융업 연별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04년에 124건으로 전년대비 49.4%의 큰 증가를 보였으나 05년에는 114건으로 전년대비 8.1%의 감소를 보였다.

2007년도 2월달 현재 발표되어 있는 06년도 상반기까지의 수치로 보아서는 일본의 제조업의 투자액은 18억불의 감소, 비제조업은 95억불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비제조업, 특히 통신업 부문에서의 투자액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대일투자기업 연별 업종별 분류표

분류	2003		2004		2005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제조업	75	32.6	67	24.4	79	28.8	221	28.4
상업	17	7.4	19	6.9	21	7.7	57	7.3
금융	83	36.1	124	45.1	114	41.6	321	41.2
비제조업	55	23.9	65	23.6	60	21.9	180	23.1
합계	230	100.0	275	100.0	274	100.0	779	100.0

정보원: 일본 내각부 조사 자료 (2007년2월 기준)

라. 일본 지역별 투자기업 소재지

한편, 799건 중에 대상 기업의 소재지가 일본에 있는 수는 655건이었으며 그 중에 관동 지역(동경 및 그 주변지역)이 488건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근기지역이 102건, 아이치 및 그 주변지역이 32건, 북해도 및 동북지역이 12건, 큐슈 및 오키나와가 11건으로 나타났다. 도시 별로 살펴보면 동경이 441건으로 67.3%로 투자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사카가 79건, 나고야 지역의 아이치현이 22건으로 나타났다.

대일 투자 외국기업 소재지별 분류표

지역별		2003		2004		2005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북해도, 동북		3	1.6%	5	2.1	4	1.7%	12	1.8%
관동, 갑신월	도쿄	131	69.7%	160	68.4%	150	64.4%	441	67.3%
	기타	14	7.4%	19	8.1%	14	6%	47	7.2%
	계	145	77.1%	179	76.5%	164	70.4%	488	74.5%
중부		12	6.4%	7	3.0%	13	5.6%	32	4.9%
근기	오사카	16	8.5%	27	11.5%	36	15.5%	79	12.1%
	기타	6	3.2%	8	3.5%	9	3.8%	23	3.5%
	계	22	11.7%	35	15.0%	45	19.3%	102	15.6%
중국, 사국		1	0.5%	4	1.7%	5	2.1%	10	1.5%
큐슈, 오키나와		5	2.7%	4	1.7%	2	0.9%	11	1.7%
계		188	100.0%	234	100.0%	233	100.0%	655	100.0%

정보원: 일본 내각부 조사 자료 (2006년8월 기준)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한국 기업의 대일 투자 현황

한국 수출입 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2006년도 대일 투자 건수는 177건 투자금액은 2억 4,591만 달러로 2005년 대일투자건수는 134건, 투자금액 1억7,624만 달러에 비하여 투자 건수는 32%, 금액은 39% 증가하였다. 일본측으로 보아 집계가능한 2005년 대일 직접 투자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미국,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에 이른 6위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을 제외하더라도 2000~2005년까지 과거 6년간을 보면, 연간 평균 건수는 105 건, 평균 금액은 1억2,974만 달러이며, 1999년 이전과 비교하여 확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이는 원/엔 환율차에 따른 투자의 호기를 노리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2006년도 상반기까지의 다른 외국의 대일 투자가 M&A 붐이 주춤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한국 기업의 대일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점을 대변하는 것이다. 2005년도에도 포스코가 포스코 재팬을 통해서 자본금 2억엔에 달하는 [POS-NPC]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투자를 벌이고 있다. 또한, 서울반도체 등이 <재팬서울 반도체>를 자본금 3천만엔에 동경도에 설립하여 액정TV용 백라이트 등의 개발을 나서는 등 움직임을 보인바 있다(이미 2003년, 2004년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금액 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있었다).

기타 최근의 대일 직접 투자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IT 관련(콘텐츠, 게임 등) 투자가 가장 많으며, 이 밖에 한류 붐을 활용한 식음료점의 FC 전개가 활발하다(예, 본죽, 이바동 등)

또한, 제품의 경쟁력 상승으로 동양 전기 등 기존에 대리점을 통하여 수출하던 아국 중견 기업들의 판매 법인 설립을 통한 일본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2007년 8월에는 한국의 미디어 관련 기업인 M&FC가 일본정밀기계를 적대적 인수합병의 형태로 인수하는 것이 있어, 일본 및 한국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금번 한국 중소기업에 의한 일본 상장기업에의 적대적 M&A 성공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나, 한국 및 일본 양국 기업 등의 글로벌한 전략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연도별 대일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0	23	10,020	13	6,768
1991	17	25,324	21	12,123
1992	14	42,724	13	26,682
1993	13	8,758	13	5,999
1994	23	96,210	16	57,954
1995	30	105,708	28	67,623
1996	25	57,108	22	79,906
1997	26	101,434	25	57,083
1998	20	24,337	17	22,678
1999	38	108,781	37	49,219
2000	138	140,051	130	92,426
2001	119	94,079	117	87,812
2002	86	97,160	80	81,679
2003	67	52,024	62	51,524
2004	112	320,036	108	288,732
2005	137	209,193	134	176,239
2006	185	289,124	177	245,914
Total	1,172	1,773,112	1,097	1,437,438

정보원: 한국 수출입 은행

나. 개별투자 안건

과거 일본에 진출한 한국 10대기업으로는 일본 삼성, 하이닉스, 현대 모터, 한화, 대우 등이 있으며, 최근 한국기업의 대규모 대일 투자 사례로는 삼성 전자가 49%를 출자하여 일본 도시바 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도시바 삼성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주식회사(2004년 설립)가 있다. 자본금 70억 엔, 종업원수 700명, 매출액 2,500억 엔이며 주로 PC용 DVD 드라이브 등의 광디스크장치 개발 판매를 하고 있다.

일본 진출 10대 한국 기업 리스트

(단위: 억엔)

연번	회사명	투자년도	사업내용 / 제품	자본금	직원수
1	일본삼성	1975	도·소매업(전자부품 등)	83.3	532
2	하이닉스 세미컨덕터 재팬	1996	도·소매업(반도체 등)	64.0	43
3	현대모터 재팬(연구소)	1979	도·소매업(자동차 등)	35.0	98
4	한화 재팬	1984	도·소매업(석유화학제품 등)	6.9	36
5	대우 재팬	1974	도·소매업(철강제품 등)	4.8	21
6	KNTV	1996	한국어 위성방송	4.1	20
7	한샘	1991	도·소매업(시스템키친 등)	3.7	81
8	포스메탈	1994	냉연강판 제조	3.0	57
9	진로 재팬	1988	도·소매업(주류제품 등)	2.0	-
10	LG 재팬	1980	도·소매업(섬유 등)	0.9	70

정보원: KOTRA 발간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에서 집계, 직원수 2005년도 일본 진출 기업 데이터 발체

다. 우리기업의 유망 투자 분야

한국기업의 지금까지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해 왔지만 성공리에 진출한 예는 많지 않다. 일본기업은 타 외국기업에 비해 시장의 요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일본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요구 레벨도 대단히 높다.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격, 품질, 구매층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 분야, 문화콘텐츠 분야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 분야에서는 이미 ‘라그나로크’, ‘리니지’, ‘한게임 포탈’등 이 좋은 실적을 거두 고 있으며, 한국 영화, 드라마, 출판 등의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일본에는 블로그, 게시판,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대변되는 제2의 인터넷 붐이 일고 있으며, 이미 한국의 커뮤니티 사이트로 Cyworld 가 일본에 진출을 했으며 성공 가능성이 기대된다. 2006년 3월 일본 총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커뮤니티 사이트 전체 회원수가 약 716만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제 태동기의 사업인 만큼 앞으로의 급속한 회원 수 증가가 기대된다.

라. 우리 기업의 진출 지역

2005년도 기준으로 집계된 일본지역 진출 기업 426개사 중 동경도 소재 한국 기업이 260개 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오사카 시 소재 기업이 51개사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로 비제조업에 집중된 한국의 대일 진출 형태로 보아, 수도이며, 소비 시장 및 서비스 시장 공략이 가능한 동경, 오사카 등이 주 진출무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

가깝지만 먼 나라인 일본은 상관습에서도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에서의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일본국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Made in Japan’ 의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일본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저가격만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도 큰 오산이다. 동일한 사양의 제품이라면 디자인에서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하며, 일본 소비자의 성향과 특성, 그리고 트렌드를 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일본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할 때에는 완성품이 출시된 실적이 있는지, 자체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지, 사장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등의 3가지 요소를 중요시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본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인상

플러스 면	마이너스 면
프레젠테이션이 자료가 잘 만들어져 있음	큰소리치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
영어나 일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남	일본 측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함
결단이 신속 집중력과 행동력이 뛰어남	유사한 회사가 너무 많아 평가가 곤란함
사장부터 직원까지 열의에 넘쳐있음	상담내용이 빈번히 변경되어 안심할 수 없음

정보원: 2006 해외투자백서 KOTRA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제한 분야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진출이 가능하며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별도로 정한 일부 업종은 사전신고를 하거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은 국가의 안전 및 OECD 자본자유화 Code에 의거 개방이 유보된 업종이다. 핵연료제조업, 항공기제조업, 무기제조업, 농림수산업, 석유업, 피혁, 제품 제조업 등이 사전신고 업종에 해당한다. 사전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은행업, 보험업, 가스 및 전기업, 증권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각각의 사업법에 의거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사전신고서는 투자실시 3개월 전까지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성 및 소관 성 大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 시 재무성 및 소관 大臣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접투자 내용 변경 또는 투자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일본의 국가의 안전 및 외국환관리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본은행을 신고 접수 후 2주일 내에 투자가능 통지를 한다.

사후신고는 위에 언급된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사후신고는 투자 후 15일 이내에 소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성 및 소관 大臣에게 하여야 한다.

나. 우대제도 관련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해외투자기업이라고 해서 기업소득세 특별히 우대하는 세제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기업/외투기업 공히 사업개시 5년 이내의 결손금의 이월기간은 7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채무보증의 경우, 특정대내투자사업자(외자비율이 1/3 초과인 자회사이며, 설립 8년 내 기업 등의 조건충족필요)의 경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10억엔의 차입금액을 채무보증받을 수가 있다. 또한 그 보증기간은 설비자금의 경우 원칙 10년 이내(거치3년), 운전자금의 경우 5년(거치 3년) 등이 된다. 이외에 외국 및 외자계 기업은 일본 정책투자은행의 융자 제도를 이용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측이 정의하는 바 대일역세스촉진사업(외자1/3 이상인 기업이 일본에서 전개하는 사업으로 대일투자기술 노하우등으로 인해 일본산업 고도화, 산업창출, 고용증가에 공헌하는 사업)의 경우 정책금리를 적용하며 융자비율은 50% 이상이 된다.

예를 들면 대일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인터내셔널 스쿨 등 대일투자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학교등 외국어 교육기관)의 경우 정책금리 II를 적용하며 융자비율 50% 이 되는 것이다.

기타 세액 공제등의 혜택은 일본에 주어지지 않는 반면, 각 지방정부 별로 다소간의 지방정부 자율적인 인센티브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를 위한 대일투자유치의 역점을 두는 중점도시는 치바, 후쿠오카, 히로시마, 카와사키, 기타큐슈, 코베, 교토, 나고야, 오사카, 사이타마, 삿포로, 센다이, 요코하마 등이 있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진출형태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 형태는 아래 4가지가 있다.

1) 주재원 사무소

주재원 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행위를 실시하는 거점으로서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시장조사·정보 수집·물품의 구입·광고 선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으며,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등기할 필요가 없다. 한편, 주재원 사무소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 및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은 통상 불가능 하므로 외국 기업의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 등 개인이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2) 지점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점 또는 자회사(일본 법인)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지점 설치에 외국 기업이 일본에 있어서 영업 활동의 거점을 설치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지점으로서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고 지점의 대표자를 결정한 후에 필요 사항을 등기하면 영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지점은 외국 기업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 업무를 일본에 있어서 실시하는 거점이며, 통상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다. 법률상 지점고유의 법인격은 없으며, 외국기업의 법인격에 내포되는 일부분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점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외국 기업에 직접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 명의로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부동산의 임차도 할 수 있다.

3) 자회사 (일본법인)

외국기업이 일본에 있어서 자회사(일본법인)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법인형태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상법상 합병회사, 합작회사라는 법인격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이 이들에 출자자가 될 수는 없다. 법률상 정해진 소정절차를 거친 후에 등기하는 것으로 일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회사(일본법인)는 외국기업과 별도법인이 되므로 자회사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대하여 외국기업은 법률에 정해진 출자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자회사(일본법인)설립 외에 외국 기업이 일본 법인을 통하여 대일 투자를 시행할 방법으로는 일본 기업이나 투자회사 등과의 합작 회사 설립이나 일본 기업에의 자본 참가 등이 가능하다.

4) 유한 책임 사업 조합 (LLP)

법인은 아니지만 유한책임사업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유한 책임 사업 조합은 일본판 LLP로 불리는 사업체로 유한 책임을 지는 출자자만으로 구성되는 조합 조직이다. 출자자끼리의 합의로 조합 내부의 룰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조합 자체에는 납세 의무가 없으며 출자자의 이익 분배에 대해서 과세되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은행업이나 증권업, 보험업에 종사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일본에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사업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주재원 사무소의 일본 국내에서의 사업활동은 본사를 위한 자산구입 또는 보관, 광고, 선전, 정보제공, 시장조사, 기초적 연구 등 본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적 활동에 한정되며, 일본에 항구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 당해 주재원 사무소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러한 주재원사무소는 장래의 일본 지점 또는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한 일본에서의 활동 거점으로서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과 관련된 자금의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에 대하여 외환관리상 제약은 없다. 단순히 주재원사무소가 아니라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지점형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법인 형태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지점 또는 현지법인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일본에서의 사업전망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재무 계획을 세운 후에 세무상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지법인설립과 지점설치를 비교해보면, 유연성이라는 점에서는 지점설치가 우세하다. 지점인 경우 새로 경영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 운영방법이나 자본금 등에 대하여 세세한 법률규정도 없다.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감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 법으로 정하는 임원이나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고 자본금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지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기만 하면 되고 자본금도 지점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있으면 된다. 반면에 현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이라는 점에서는 현지법인이 우세하다. 현지법인 이라면 법률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청산절차도 엄격한 반면, 지점은 간단하게 폐쇄할 수 있으므로 폐쇄 후에는 일본에 연락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조세체계상 일본법률에 따라 설립된 현지법인과 외국법인의 일본지점에 대하여 과세되는 주요세금에는 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 사업세, 소비세 등이 있는데, 이들 세금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은 현지법인이나 지점이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예컨대 과세소득의 범위, 세액공제방법, 결손금의 이월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세무에 정통한 유명 회계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일본에 거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필요한 정보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인 주재원 사무소와 지점의 설치절차를 알아보는데 그친다. 주식회사 등 현지법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는 비교적 경험이나 재정능력을 갖춘 중견이상의 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초로 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현지의 기관을 통하여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본에 주재원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기로 하였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무소나 지점의 장이 될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파견한다는 사실이다. 일본 국민이나 재일 한국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VISA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람을 일본에 파견해 지점을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취업 VISA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취업 VISA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경영」에 해당하는 재류 자격인정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발급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재원 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기업 내 전근」이라는 비교적 간편한 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종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설립절차의 전체 과정은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취득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재류 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보장되는 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통상 일본에 지점이나 주재원 사무소를 설립하는 데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 둘째 무비자(3개월, 1회한)로 입국하여 사무실 및 직원과 거주지를 확보하고 지점설립등기 등을 완료하여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단계, 셋째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 귀국하여 VISA를 신청·취득하고 재입국하여 본격적으로 설립 절차를 완결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마무리 단계이다.

나. 거점설치요령

외국투자자가 대내직접투자를 할 때는 그 거래에 대해 이하에서 기술하는 구별에 따라 사후보고서 혹은 사전신고서를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장관 및 관할부처장관(관할에 관해서는 각 성청 혹은 일본은행 국제국 국제수지과 총괄그룹 「프리 다이얼 0120- 7966 56」로 사전 조회하면 된다)으로 제출한다.

□ 각 성청의 담당부서

- 재무성(국제국 조사과 외환실)
 - 03-3581-4111 *1
- 후생노동성(의정국 경제과)
 - 03-5253-1111
- 국토교통성(총합정책국 국제기획과)
 - 03-5253-8111
- 문부과학성(대신관방 총무과법령심의실)
 - 03-5253-4111 *1
- 경제산업성(무역경제협력국무역진흥과)
 - 03-3501-1511 *1
- 농림수산업성(총합식료국 식품산업기획과)
 - 03-3502-8111
- 총무성(총합통신기반국 국제부 국제경제과)
 - 03-5253-5111
- 환경성(대신관방총무과 법령계)
 - 03-3580-1374
- 경찰청(생활안전국 생활환경과 생활경제 대책실)
 - 03-3581-0141 *2

○ 금융청(총무기획국 기획과)

- 03-3506-6000 *2
 - 영어로 대응 가능
 - 주요 보고서 양식은 재무성 및 일본은행의 웹 사이트(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재무성 <http://www.shinsei.mof.go.jp/index.htm>
 - 일본 은행 <http://www.boj.or.jp>

□ 사전준비단계

- 목적별로 일본에 주재원 사무소나 지점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 거점설립을 담당할 직원이 단기체류자격을 받아 현지로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현지 사전조사와 각종 증빙서류의 준비이다.
- 사전 조사해 두면 좋은 것
 - 필요에 따라 2-3개월 머무를 수 있는 장기 체재용 호텔과 임시 사무실
 - 사무실 물건 리스트
 - 주거 물건 리스트
 - 고용할 사무원의 채용조건 및 근로기준 등
-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일어번역본 필요)
 -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시 제출할 입증 자료를 위주로 사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단계

일본거점설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비자(3개월, 1회)로 입국을 하여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일이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본에서 설립절차 전체를 대행해줄 사람이 있다면 입국할 필요조차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취득을 포함한 제반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로 직접 현지에 들어가 여러가지 작업을 다 해내는 수 밖에 없다. 참고로,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임시적인 3개월/1회(현지 연장 원칙적으로 불가능) 무비자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사무실 확보

거점설립작업 중에서도 상당히 이른 단계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 사용할 사무실을 구해서 확보하는 것이다. 설립등기나 공적인 신고, VISA를 취득하기 위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신청, 은행구좌 개설, 종업원 채용을 비롯한 대부분의 거점개설 작업에는 사무실의 주소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재원 사무소 설치의 경우에 재택근무를 할 생각으로 오피스텔(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념의 오피스텔은 흔하지 않음) 같은 것을 얻는 것도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거와 분리된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다. 다만,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발급에 있어 입국관리국의 재량이 많이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체로 주거와 사무실을 분리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무실을 알아본 후,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압축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교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에 있어서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의 상관습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사전에 다음과 같은 일본의 상관습을 잘 이해한 후 교섭에 임할 필요가 있다.

□ 주거확보

현지 거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둘러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향후 자신이 생활할 주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생활의 거점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지점의 대표로 취임하여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거가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된다.

주거를 찾는 데는 신문이나 정보지의 광고에 의존하여 찾는 것보다는 부동산 중개회사(브로커)에 의뢰하는 편이 선택의 폭도 넓고 시간도 절약된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브로커를 활용하는 이외에 직접 소유주를 접촉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직접 접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월 100만엔 이상의 고액 물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부동산회사나 금융기관이 주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직접 접촉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는 일본국내에서의 계약이기 때문에 통상 일본어를 사용한다. 회사의 사택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계약주체는 실제로 거주하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다. 고액물건일수록 소유주는 회사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개인도 일본에 거주하는 보증인을 한 명 세울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보증인이 되어줄 사람을 수배해주는 업자도 있다. 임대차계약은 통상 2년이며, 3개월 전에 통지하면 벌과금을 물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2년이 지나 그 주거지에 계속 살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분 정도의 갱신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주거 임대예 드는 비용

	내 용	지불처
계약 시	·敷金(통상 집세 6개월 분) ·첫달 분 집세 ·禮金(關東지역 대부분) ·수수료(통상 집세 1개월 분) 중개회사	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집주인 중개회사
매월	·다음달 집세 및 관리비	집주인 또는 관리회사

레이킨(禮金)이라는 것은 일본(주로 關東지역)에 독특한 관습으로 월 임차료 2개 월분 내외를 지불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도 반환 받지 못하는 일종의 사례금이다. 시키킨(敷金)은 퇴거 시에 반환 받을 수 있지만 현상복구 비로 얼마 정도 공제하고 되돌려 받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 지불액수가 각각 다르나 관동지역은 2개월 분 내외, 관서지역은 6개월 분을 선납해야 한다. 임대료는 교섭 가능하지만 사무실과는 달리 큰 할인율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고액 물건일수록 할인율은 높아지는 편이다. 한편, 부동산 중개인에게서는 임차료 1개월 분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에 입주할 경우 초기 경비가 과다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종업원 확보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지점개설을 위하여 '투자·경영'에 해당 하는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현지직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본래 종업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채용조건의 결정과 동시에 급여 및 수당규정, 인사 고과규칙, 취업규칙, 연금플랜 등의 인사제도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인사제도 구축은 이것저것 처리할 것이 많으므로 채용 예정자의 얼굴을 보아가며 제도화해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본에 있어서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인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뿐만 아니라 노사관련 각종 관행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일본 현지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보험가입의무가 발생한다. 사회보험제도에 는 후생성 관할 사회보험(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및 노동성 관할 노동보험(고용보험, 노동자 재해보상보험)의 4가지가 있다.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보험은 원칙적으로 일괄 가입하여야 한다. 법인조직은 전부, 개인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가입으로 되어있다. 단, 모기업이 미국 및 벨기에인 경우에 해당 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가입을 면제하게 된다(2007년 현재).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소(예컨대, 3명의 현지직원이 있는 주재원사무소)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市區町村 사무소에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에, 후생연금보험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한편, 종업원의 퇴직금은 고용계약에 따른다.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지점(사무소)의 설립

주재원사무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은행업이나 증권업, 보험업의 경우 해당사업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허가나 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등기가 필요 없으며, 세법상으로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점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무실, 주거, 종업원 등이 확보되고 나면 실제로 지점 설립절차에 들어가게 된다.지점 설립절차는 설립등기로 일단 완료되는데 등기절차를 밟기까지의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인허가사항의 유무 확인

- 지점을 설립하기 전에 관공서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각 도도부현청에 인허가의 유무와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취득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外爲法상의 사전신고 요부 확인

- 지점설치는 外爲法 (外國爲替 및 外國貿易法) 제26조 2항 5호에 따른 대내직접투자 에 해당되므로,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대장성대신 및 소관대신에 대하여 사후보고 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 보고가 원칙이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일본은행 또는 외국환취급은행이나,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 개인의 인감 작성 및 인감증명 취득
 - 인감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취득하여야 지점의 대표로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인감은 주거지의 사무소(市役所·區役所)에 등록함으로써 인감증명을 교부 받을 수 있다.
- 회사의 인감 작성
 - 등기신청서에 날인해야 하는 대표자가 등기소에 신고하는 인감으로, 개인인과 겸용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별도로 한다. 지정설립등기 직후에 대표인을 인감증명서 교부 신청서에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로부터 지점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교부된다.
- 지정설립등기
 - 지점을 신설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법무국 산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점의 신설은 정관이나 연차보고서의 번역 등 방대한 작업이 들어 비용이나 노력의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宣誓供述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지정등기를 할 수 있다.
 - 우선 지점의 경우에는, 정관을 새롭게 작성하는 대신에 본국 모회사의 정관 원본을 가져와 모회사의 기본정관, 부속정관, 일본지점 대표자에 대한 임명장 또는 고용 계약서, 선서 공술서 등을 지참하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관에 주재하는 공증인 앞에서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선언한 후, 대사관에서 서류를 인증해 받는 절차이다.
- 일본은행 국제국 투자과 대내직접투자계
 - 東京都 中央區 日本橋 本石町 2-1-1
 - Tel : 03-3279-1111

□ 관공서에 대한 각종 신고 및 보고

1) 세무 신고

세무신고에는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청 산하의 세무서에, 지방세와 관련하여 별도로 해당 지자체 소속 都道府縣稅事務所に 각각 하여야 하는데, 보통 회계-세무 사무소에 대행시키는 경우가 많다.

세무신고 중에는 청색신고승인신청서라는 것이 있는데, 기업은 청색 또는 백색 중 어느 하나의 신고법인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백색법인에는 특별히 우대세제가 없지만, 청색신고법인에는 각종 세액공제와 더불어 '특정 대내투자 사업자'로 인정 되면 회사 설립일 이후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종료하는 각 사업 년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10년을 한도로 하여 이월할 수 있는 세제상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다. 대신, 청색신고법인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를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기록함과 동시에 장부서류의 법정기간 보존이 의무화된다. 일본지점의 설립의 경우, 당해 사업 년도를 포함하여 청색신고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설립 후 3개월을 경과한 날과 설립 후 최초사업 년도의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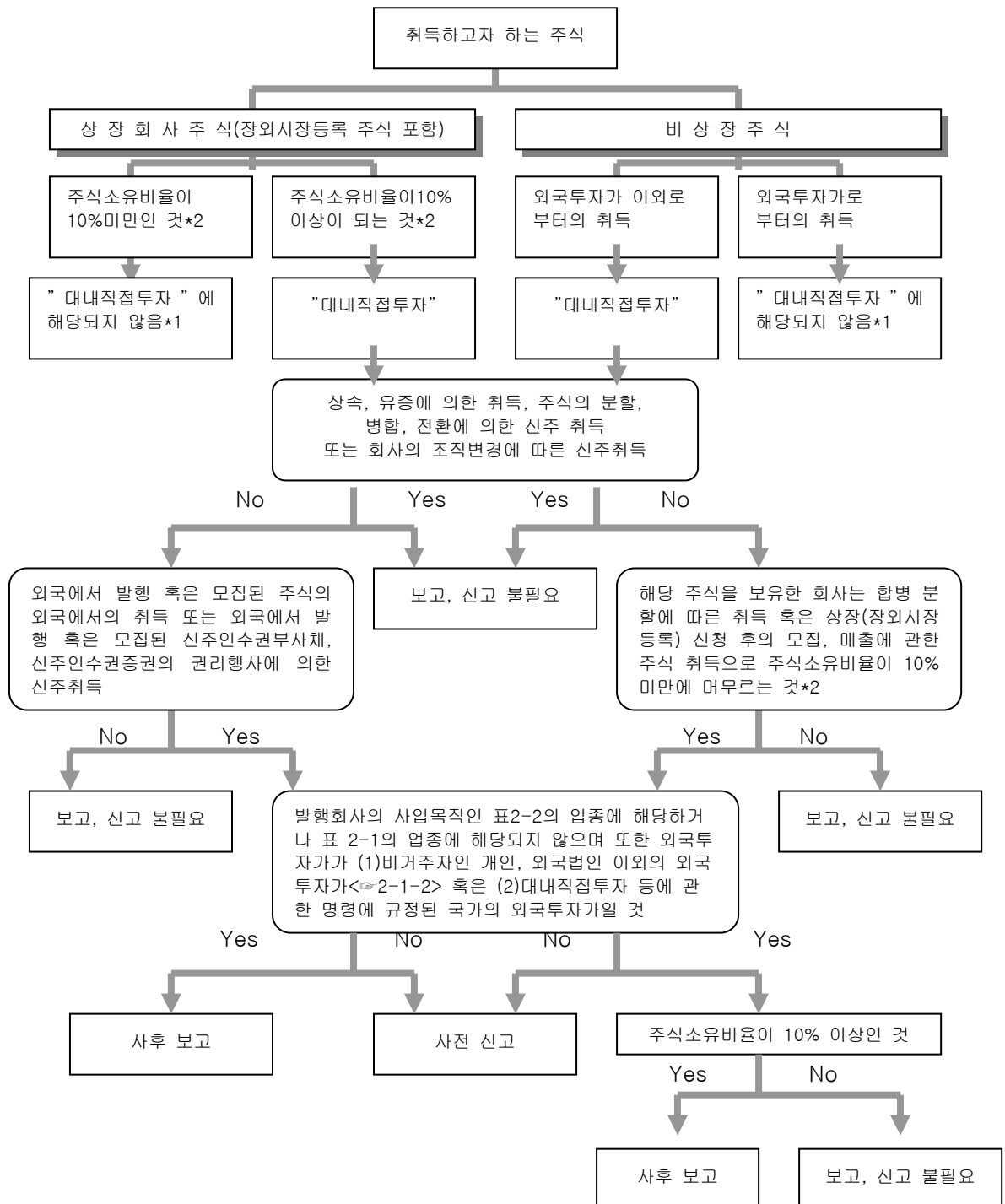
2) 사회보험관련신고

- 사회보험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4) 종업원확보' 에서 언급한 바 있다.

3) 일본회사의 주식을 취득시에 보고

- 일본 회사의 주식을 취득시에 보고기준 및 여부는 다음과 같다.

외국투자자에 의한 일본 회사 주식 취득에 관한 외환법상의 보고 및 신고



주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주2: 상장회사 주식(장외시장등록주식을 포함)의 5%를 넘는 주식을 취득한 자는 증권 거래법상 5일 이내에 재무장관에게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상세한 사항은 일본은행 국제수지과(Tel: 03-3277-2107)로 문의

(자료원: JETRO 서울사무소)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

- 지점 또는 주재원 사무소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취업 비자의 취득문제이다. 비자발급은 입국허가를 추천하는 의미로 외무성(재외공관) 소관사항이며, 재류자격 인정서 증명교부는 일본 내에서 상당기간 이상의 체재를 인정하는 의미로 법무성 입국관리국 소관사항이다.
- 재류자격은 통칭 VISA STATUS라고 부르는데 27종류가 있으며, 이 중 취업 VISA STATUS 에 해당되는 것은 14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지점설치의 경우에는 '투자·경영'이라는 재류자격이 필요하고, 주재원 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기업 내 전근'이라는 재류자격이 필요 하다고 보면 된다.
-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리 신청은 대리신청뿐 아니라 인정신청까지 허용되는 행정서사(신청중개자증명서라는 분홍색 증명서를 갖고 있으며, 일본국내에 약 100명정도 밖에 없다.)에게 의뢰하는 경우, 본인은 한번도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지 않고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 신청의뢰는 변호사, 사법서사, 기타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인정신청 수속을 신청중개자 증명서가 있는 행정서사에게 재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대행 비용은 25만엔-80만엔 정도이다.
- '투자·경영'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류자격 인정 증명 교부 신청서: 양식 1, 2B(상용, 취직), 3B(상용, 취직) 1통
 - 사진 2매
 - 입증자료(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제3에 게재된 자료, 단 공공간행물 등에서 회사 개요가 명확한 경우에는 불요)
-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 혹은 이런 사업에 투자하여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상이 필요하다.
 -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당해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총수를 입증하는 자료: 회사 안내서 또는 고용보험 납부서 등 사본, 상근직원수가 2인인 경우 당해 2인의 직원에 관련된 다음의 자료(고용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주민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사업소의 개요에 관한 자료: 회사 안내서, 사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업소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 혹은 이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신하여 그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하가 필요하다.
 -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발행 후 3개월이 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당해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총수를 입증하는 자료: 회사안내서 또는 고용보험 납부서 등 사본, 상근직원수가 2인인 경우 당해 2인의 직원에 관련된 다음의 자료(고용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주민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사업소의 개요에 관한 자료: 회사안내서, 사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업소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로 활동의 개요, 기간, 지위, 보수 등이 기재된 문서: 계약서 사본, 파견장 사본, 인사이동통지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 일본 내에서 개시 또는 투자된 무역 기타 사업의 관리에 종사 또는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 혹은 이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신하여 그 관리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하가 필요하다.
 -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당해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 총수를 입증하는 자료: 회사안내서 또는 고용보험 납부서 등 사, 상근 직원수가 2인인 경우 당해 2인의 직원에 관련된 다음의 자료 (고용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주민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사업소의 개요에 관한 자료: 회사안내서, 사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업소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있어서 3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서: 재직하고 있던 기관이나 재직중인 기관에서의 직무 내용 및 재직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대학원에서 경영 혹은 관리에 관계되는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입증하는 문서
 - 다음의 어느 하나로 활동의 개요, 기간, 지위, 보수 등이 기재된 문서: 계약서 사본, 파견장 사본, 인사이동통지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 '기업 내 전근'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하와 같다.
 - 재류자격 인정 증명교부 신청서
 - 사진
 - 입증자료(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 표제3에 기재된 자료, 단 공공간행물 등에서 회사 개요가 명확한 경우에는 불요)
 -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외국의 사업소와 일본의 사업소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 안내서, 사업자 등록 관련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 일본의 사업소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상업, 법인 등기부 등본(발행 후 3개월이 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안내서
 - 외국의 사업소에 있어서의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입증하는 문서: 외국의 사업소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 전근 전 1년간 종사하였던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입증 하는 것
 - 외국의 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 법인 등기부 등본(발행 후 3개월 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 계획서)
 - 다음의 어느 하나로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입증하는 문서: 전근명령서 사본, 파견대상기관의 사령장 사본, 이에 준하는 문서
 - 졸업증명서 및 경력을 입증하는 문서: 졸업증명서 또는 그 사본, 신청인의 이력서
입국관리국에서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 XX를 입증하는 서류" 라는 식으로 규정할 뿐, 서류의 세부사항이나 양식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류의 기재방식이나 표현 방법의 타당성과 보조자료의 제출 등 운영면에서의 세부적인 판단은 창구의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는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신청 후 2~3개월이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한 체류자격과 다른 자격으로 증명서가 발급될 수도 있는데, 체류자격의 최종결정은 입국 관리국에 맡겨져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마무리 단계

□ VISA취득 및 재입국

-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고 나면 국내에서 소재하는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게 된다. 일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비자발급신청서 1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1부, 신청인의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한다.
- 비자 신청을 하면 일본공관에서는 여권의 비자 페이지에 VISA STATUS를 표시하는 도장을 날인하고 그 밑에 재류자격번호를 기입해준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해도 재외공관 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각각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 시 상담 또는 대행 의뢰하였던 전문가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 취업비자로 일본에 입국하면 입국항에서 입국 심사관이 여권에 재류자격의 도장을 찍어준다. 이것으로 일본에서의 장기체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 전근' 은 1년마다 비자 갱신을 하여야 하며, '투자.경영' 은 1~3 년마다 갱신한다. 비자 갱신 역시 다소의 수고가 필요한데, 주거지를 관할하는 입국 관리국(사무소 소재지 관할 입국 관리국이 아닌 점에 주의)의 지침에 따라 갱신하면 된다.

3) 각종후속조치

□ 외국인 등록 증명서

- 일본에서의 재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주거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난 후 그 주거지 관할 사무소에 등록을 한다. 신규 등록절차는 사무소의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여권 및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약 2~3주 정도 걸리며, 카드형식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교부 받게 된다.

□ 재 입국 허가 신청

- 일본은 주재 중 귀국 또는 제3국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출국 전에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 입국 비자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또는 제3국에서 최초 입국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 입국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게 된다. 재입국 허가는 일단 받아놓으면 최장 1년간 유효하며, 기한이 되면 재 신청하면 된다. 허가에는 단수와 복수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재입국 허가 신청도 대행을 의뢰할 수는 있으나 그다지 어려운 절차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서류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입국 허가 신청서 1통, 수입인지 등이 있다.
- 현재 한일간 영사회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별로 통용되지 않는 재 입국 허가제를 철폐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처럼 일단 입국비자를 받아놓으면 비자 유효기간 중 마음대로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98.10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측은 우리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 참고사항(거점 설립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 (주)대일투자 서포트 서비스 (FIND)
 - 주소: Sixth Floor, Akasaka Annex, 2-17-42 Akasaka, Minato-ku, Tokyo, Japan
 - 전화: 03-3224-1203
 - 팩스: 03-3224-9871 (<http://www.fid.com>)
- JETRO 비즈니스 서포트센터 (BSC)
 - 전화: 03-5562-3131
 - 팩스: 03-5562-3110
 - <http://www.jetro.go.jp/EXPORT/jet02-4.html>
- 법무성 입국 관리국
 - 전화: 03-3580-41111
-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동경)
 - 전화: 03-3213-8523~7
- 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과 그 관계자로부터의 상담이나 안내에 응하기 위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및 요코하마의 각지방입국관리국과 지국에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화와 방문에 의한 문의에 일본어뿐 아니라 외국어도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상담하고 있다. 인포메이션 센터의 운영은 재단법인 '入國協會'에 위탁되어 있다.

6. 투자입지여건

가. 공장설립 진출시

일본에서는 투자진출시 공장 설립이 가능한 천연 개의 공업단지가 있다. 그러나 공업 단지별로 입주조건이 상이하여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각 공업단지별로 사전에 충분한 기초정보를 입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 공장용지에 관한 정보는 용지조성 주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일본 전체적인 정보는 통산 산업성 立地指導室이나 일본 입지센터에서도 입수가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공장용지를 조성, 분양하고 있는 지역 진흥정비 공단에서는 기업입지 정보 센터를 개설하여 전국의 공장용지 및 공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3월에는 외국기업의 공장입지 선정편의를 위하여 JETRO와 지역 진흥정비 공단이 공장 입지추진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동 세미나에서는 최근의 입지동향 및 외국기업의 입지 경험담 등이 소개된다.

나. 부지 확보

공장 건축을 위한 공장 부지는 임대하는 방법과 분양 받는 방안이 있다. 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물건마다 상이하여 입주대상 지역을 선정 후 지방자치단체등과 임대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계기구 제조업 및 Software 개발 등 기반적 기술산업분야의 기업의 경우 지역진흥 정비 공단을 통하여 공장,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으며 동 공단을 이용하는 경우 초기단계에 최소한의 자본만 투자하여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장용지를 분양 받는 경우는 제세감면, 보조금지급,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지방공업 단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은 工場等制限法에 의거 500s/m 이상의 공장의 신설, 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에 의거 도시 내의 도시계획 용도지정지역은 공장부지 확보가 제한되어 있다.

지방진흥을 위한 공업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공업 재배치 촉진법 및 각종 지역개발법에 의거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세제 면에서 감가상각특례와 사업소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보조금으로는 산업 재배치 촉진비 보조금, 전원지역산업 재배치 촉진 보조금, 지역 고용 개발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외국기업의 대일투자 촉진을 위해 일본은행, 지역 진출 정비 공단 등에서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독입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도시계획법에 의거 필요한 신청을 하거나 국토이용 계획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용지면적이 2ha를 초과하는 경우는 農林水産大臣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며 2ha이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한다.

다음과 같은 특정업종의 경우는 공장용지, 공업단지 이외에 사무용지 및 산업단지 내 용지확보도 가능하다. 용도별 입주가능 업종 및 입주지역은 다음과 같다.

- Technopolis 개발: 첨단산업, 학술 관련업종: 大分, 熊本, 宇部 등 26개 지역
- 頭腦입지 개발: Lease, Software, 정보처리서비스, 광고대행업 리스,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 八戸, 富山, 徳島 등 26개 지역
- 지방거점 개발: 연구소, 첨단Service기업, 지역기반 육성에 기여하는 업종 歳, 石巻, 南國 등 85개 지역
- 지방산업 집적 활성화 개발: 제조업 지원을 위한 기반적 기술 산업: 廣島 등 22개 지역

지역별 분양가격을 포함한 가용 用地 현황은 일본 입지센타 Home page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 설립절차

공장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용지조정(농지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계획법)-조성 완료신고(개발 허가권자) -토지등기 (등기소) - 건축확인신청(지방자치단체건축과: 건축기준법) - 특정공장 신고(공장 입지법) - 공해시설신고(지방자치단체장) - 건축

공장설립 절차는 규제사항을 순리대로 처리해 나가는 절차와 같다. 일본의 경우 공장설립과 관련한 규제에는 공장입지법, 건축기준법, 工業等제한법 그리고 환경관련법이 있다.

- 공장입지법은 특정공장과 녹지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특정공장이란 敷地面積 9,000s/m 이상 또는 건축면적 3,000 s/m 이상의 공장을 의미한다. 특정공장을 新增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후 90일 이내에 의견이 없으면 건축이 가능하다. 녹지면적은 공장용지면적 대비 공장부지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녹지면적이 30/100 이상이어야 한다.
- 건축기준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율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동법에 의거 공사 착수 전에 건축확인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 하여야 하며 신청 후 21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 공업등제한법은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 공장설립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다. 동 법률에 의거 수도권의 경우 공장면적 500s/m 또는 1,000s/m이상의 공장은 신 증설이 제한된다.
- 공해방지관련법은 공해를 규제하기 법률로 수질오염 방지, 대기오염 방지, 소음 방지, 진동 방지, 악취 방지, 폐기물 처리 등이 이에 해당하며 관련시설 설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해방지 관련법률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률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률은 국가가 정한 법률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라. 산업단지

1) 響灘東部 工業團地 (HIBIKINADA TOBU INDUSTRIAL AREA)

- 소재지: 1, HIBIKI-CHO, WAKAMATSU-KU, KITAKYUSHU-SHI
- 부지면적: 5,982,735㎡
- 조성주체: 北九州市
- 공단성격: 기타큐슈시 북쪽에 위치한 해면매립 공업단지이며 도시계획법, 항만법에 의거 임해공업 전용지역임.
- 입주비용: 분양가격 26,500엔/㎡ 원칙적으로 계약 시 일괄 지불해야 하나, 분할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공업용지면적 5,982,735㎡ 중 미분양면적 1,781,224 ㎡ 계약 시 입주 가능.
- 교통
 - 철도: 신간선 코쿠라역까지 12km, JR와 카마쓰역까지 4km
 - 공항: 후쿠오카 공항까지 약 75km, 기타큐슈 공항까지 약 23km (약 30분)

- 전력: 큐슈전력의 보통고압(6KV), 특별고압(66KV)이 가설되어 있으며 입주 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응
- 용수: 기타큐슈시 운영 公共用 수도로 최대 공급량 54,210㎥/일 급수
- 통신: 전화, 컴퓨터 통신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노동력확보 용이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14만엔/월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제조업, 유통업, 일부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업, 정보처리 서비스 업)에 한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내에 조업 개시해야 함.
- 우대조치
 - 보조금: 대상시설이 마루면적 3,000엔/㎡(2,000㎡를 초과하고 신규 상용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6,000엔)
 - 고용장려금: 공장 신 증설 시 종업원 1인당 30만엔
 - 자금융자: 공장 신 증설 시 1개 기업 당 5억엔
- 입주여건에 대한 의견: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 있어 대 한국 출입여건은 좋으나, 기타큐슈시의 인구가 약 100만으로 큐슈지역의 수요가 극히 한정되어 있음.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까지 유통할 경우 물류비가 상당한 부담이 됨.
- 공단연락처: 북구주시 경제국 기업 입지과
 - 주소: #803 1-1, SHIRONOUCHI, KOKURA-KITA-KU, KITAKYUSHU-SHI
 - 전화: 81-93-582-2065
 - 팩스: 81-93-581-9352
 - 담당자: MR. GURIBIYA

2) 北九州 테크노파크 (KITAKYUSHU TECHNO PARK)

- 소재지: NAKAHARA SHINMACHI, TOBATA-KU, KITAKYUSHU-SHI
- 부지면적: 53,000㎡
- 조성주체: 北九州市 토지개발공사
- 공단성격: 산업의 두뇌부분을 동 지역에 집적시킴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꾀하는 '두뇌 입지법'이 제정되고 기타큐슈 시가 집적 촉진지역으로 지정됨.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시설의 유치를 꾀하고 있음.
- 입주비용: 분양가격 78,000엔/㎡, 원칙적으로 계약 시 일괄 지불해야 하나, 분할 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공업용지면적 53,000㎡

- 교통
 - 철도: 신간선 코쿠라역에서 12km, JR와 카마쓰역에서 도보 1분
 - 공항: 후쿠오카 국제 공항에서 약 70km (1시간)
 - 도로: 큐슈 공업대학에 근접해 있음.
 - 전력: 전기, 가스, 수도, 전화시설이 집중화 되어 있으며, 보통고압, 특별고압이 가설 되어 있음.
 - 용수: 기타큐슈시 운영 公共用 수도로 급수
- 통신: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노동력확보 용이. 생산직근로자의 평균임금 14만 엔/월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디자인업, 기계설계업, 엔지니어링업, 연구개발시설에 한함.
- 우대조치
 - 보조금: 대상시설이 마루면적 3,000㎡ (2,000㎡를 초과하고 신규 상용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6,000엔)
 - 고용장려금: 공장 신 증설 시 종업원 1인당 30만엔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인구 100만 명의 큐슈지역의 중심지역으로 큐슈공업 대학과 기타큐슈 테크노센터가 인접해 있어 연구시설, 정보 서비스업의 진출기지로 적당.
- 공단연락처: 북구주시 경제국 기업입지과
 - 주소: #803 1-1, SHIRONOUCHI, KOKURA-KITA-KU, KITAKYUSHU- SHI
 - 전화: 81-93-582-2065
 - 팩스: 81-93-581-9352
 - 담당자: MR. KONO

3) 大朝地區 工業團地 (OASA INDUSTRIAL PARK)

- 소재지: OASA, OASA-CHO, YAMAGATA-GUN, HIROSHIMA-KEN
- 부지면적: 181,333㎡
- 조성주체: 히로시마현 기업국
- 공단성격: 추고쿠(中國)내륙의 공업벨트에 일익을 담당, 공업 재배치법에 의한 유도 지역,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 조치법에 과소지역, 공업 입지법에 의한 공장 적지
- 입주비용: 분양가격 16,050엔/㎡ 원칙적으로 계약 시 일괄 지불해야 하나, 분할 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공업용지면적 181,338㎡, 분양 모집 중. 계약 시 입주 가능.

- 교통
 - 철도: 신요우신간선 히로시마역까지 60km,
 - 공항: 히로시마 공항까지 90km
 - 도로: 중국횡단자동차도 오오아사(大朝) IC까지 1km
 - 전력: 보통고압전력(6,600V고압선)은 현의 부담으로 가설됨.
 - 용수: 1,500㎥/일 급수가능
- 통신: 전화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오아사(大朝町)타운의 인구는 약 26,000명이며 고졸자수는 약 400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약 100명 수준 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4만/월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공해방지기준에 의거 환경보전을 위한 각서제출
- 우대조치
 - 보조금: 대상시설이 마루면적 3,000엔/㎡ (2,000㎡를 초과하고 신규 상용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6,000엔)
 - 고용장려금: 공장 신 증설 시 종업원 1인당 30만엔
 - 자금융자: 공장 신 증설 시 1개 기업 당 5억엔
- 입주여건에 대한 의견: 공업 재배치 촉진법에 의거 조성되는 신규공단으로 입주비용은 타 공단에 비해 저렴하나 히로시마에서 약60km 떨어져 입지 조건상 다소 불리함.
- 공단연락처: 히로시마현 상공 노동부 기업 입지과
 - 주소: #730 10-51, MOTOMACHI, NAKA-KU, HIROSHIMA-SHI
 - 전화: 81-82-223-5050
 - 팩스: 81-82-223-6314
 - 담당자: MR. HAMANOTO

4) 三次 工業團地 (MIYOSHI INDUSTRIAL PARK)

- 소재지: MATSUGASAKO, HIGASHI-SAKAYA-CHO, MIYOSHI-SHI, HIROSHIMA-KEN
- 부지면적: 756,000㎡
- 조성주체: 히로시마현
- 공단성격: 추고쿠(中國)내륙의 공업지역으로 1983년 4월 정비가 완료된 제조업 중심의 공단으로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입주비용: 분양가격 14,770엔/㎡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공업용지 면적 756,000㎡ 중 극히 일부만 미분양 계약 시 입주 가능.

- 교통
 - 항만: 히로시마항까지 60km
 - 철도: 산요우신간선 미요시驛까지 4km
 - 공항: 히로시마 공항까지 60km
 - 도로: 추고쿠자동차도로 미요시(三次)IC까지 2km
- 전력: 보통고압전력(6,600V)이 가설되어 있음.
- 용수: 1,200㎥/일 급수 가능
- 통신: 전화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산지市 주변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노동력 확보 용이/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4만엔/월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환경보호규칙에 의거 각서제출
- 우대조치
 - 조성금: 히로시마현의 공장 및 시험연구시설에 해당할 경우 1억 엔의 조성금 지원
 - 자금융자: 공장 신 증설 시 1개 기업 당 3억엔
- 입주여건에 대한 의견: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식품, 목재 등의 제조업과 트럭 운송업이 입주해 있음. 이미 31개사가 입주해 있어 생산거점으로 유리함.
- 공단연락처: 히로시마현 상공노동부 기업입지과
 - 주소: #730 10-51, MOTOMACHI, NAKA-KU, HIROSHIMA-SHI
 - 전화: 81-82-223-5050
 - 팩스: 81-82-223-6314
 - 담당자: MR. HANAMOTO

5) 北攝三田 테크노파크 (HOKUSETSU SANDA TECHINO PARK)

- 소재지: 3-1, SUZUKAKEDAI, SANDA-SHI, HYOGO-KEN
- 부지면적: 989,000㎡
- 조성주체: 주택, 도시정비공단
- 공단성격: 코오베시 중심부에서 북방 27km 떨어진 한신(阪神)도시권에 인접하는 공업 단지로 표고 약 200m의 구릉지에 조성된 제조업중심의 공단. 1971년 공단으로 조성됨.
- 입주비용: 분양 가격 120,000엔/㎡ 원칙적으로 계약 시 일괄 지불해야 하나, 분할 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공업용지 면적 989,000㎡

- 교통
 - 항만: 코오베항까지 20km
 - 철도: JR 후쿠지야마선 신산다역까지 1km
 - 공항: 칸사이공항까지 60km
 - 도로: 舞鶴자동차 도로 三田西IC까지 1km
- 전력: 보통고압, 특별고압 등 기업입지에 따라 대응 가능
- 용수: 공업용수 5,000㎥/일 급수, 지하수는 공해 방지협정에 의거 사용 금지
- 통신: 전화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노동력확보는 용이,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6만엔/월

6) 綾部공업단지

- 소재지: 교도부
- 단지면적: 137.5ha
- 입주기업: 9개 업체
- 주요입주기업: 일동정공, 아사히맥주, 토스텀등

7) 이색병 산업단지

- 소재지: 大阪府
- 단지면적: 66ha
- 입주기업: 6개 업체
- 주요입주기업: 서효제강, 남해화공

8) 오사가 링구타운

- 소재지: 大阪府
- 신도시형 타운구성
- 입주기업: 51개사
- 전일본공수, 아사히에어포트서비스, 히루마등

9) 풍강중핵공업단지

- 소재지: 兵庫縣
- 단지면적: 47.2ha
- 입주기업수: 19개사
- 주요 입주기업: (주)산마루겐, 단마전자 등

10) 氷上 공업단지

- 소재지: 兵庫縣
- 단지면적: 18.5ha

- 입주기업: 7개
- 주요입주기업: 동양전기, 빙상제작소, 村上공업

11) 小野 공업단지

- 소재지: 兵庫縣
- 단지면적: 94.6ha
- 입주 기업수: 7개
- 주요입주기업: 일본햄식품, 高岡화학, 日光제작소

12) 西氷 공업단지

- 소재지: 兵庫縣
- 단지면적: 275ha
- 입주기업수: 7개
- 주요입주기업: 住友시멘트, 三菱전기, 西礪통운

13) 六甲 아일랜드 공업단지

- 소재지: 神戸市
- 단지면적: 580ha
- 입주기업수: 30개
- 주요입주기업: 六甲물류, 大日통운, 神戸이스스자동차, 清水운수

14) 桃山 공업단지

- 소재지: 和歌山縣
- 단지면적: 17.2ha
- 입주업체: 3개사
- 주요입주기업: 半島화학, 桶上擊物(끝)

15) 나고야지역 산업단지

□ 개 요

에도 시대부터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고 2차 대전 후에는 중공업, 자동차 산업이 발전된 지역으로 제조품 출하액에서 일본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굴지의 공업지대임. 나고야지역의 산업단지는 집적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산업의 고도화, 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음.

□ 아이치현 기업용지 안내

나고야시가 소재한 아이치현(愛知県)의 구조개혁특구로 지정된 곳은 중부공항도시 국제교류 특구(도코나메시 전역/나고야 공항지역), 국제 자동차특구 (토요하시시, 토코나메시, 가마고 오리, 미토町, 다와라 전역), 아이치/나고야 제조연구개발 특구 (나고야시, 세토시, 카스 가이시, 토요타시, 오히리아사히시, 나가쿠테町 전역)으로 기업용지를 분양 또는 리스 하고 있음.

기업용지 및 토지리스 제도에 관한 문의처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아이치현 기업청 기업입지부 기업유치과 기업유치 그룹	(460-8501) 名古屋市 中区三の丸三丁目1番2号県 自治センター12階	TEL : 052-954-6691 FAX : 052-961-7004 www.pref.aichi.jp/youchi kigyo-yuuchi@pref.aichi.lg.jp
아이치현 기업청 기업입지부 기업유치과 도쿄유치 그룹	(102-0093) 東京都千代田区 平河町6番3号都道府県会館 9階	TEL : 03-5212-9092 (대표) FAX : 03-5212-9095
아이치현 기업입지 추진협의회	(460-8422) 名古屋市 中区栄二丁目10番19号 名古屋商工会議所 プロジェクト推進部内	TEL : 052-223-5702 FAX : 052-231-5703
아이치현 기업입지정보코너	(460-8501) 名古屋市 中区三の丸三丁目1番2号 県西庁舎7階	TEL : 052-961-2111 (대표) 내선 3366 / 3367 FAX : 052-961-7246 www.pref.aichi.jp/shinsangyo/

- 참고: 지역별 투자환경 가이드는 아래에 각 지역별로 통계등이 나와있다.
- Jetro 홈페이지 Investing In Japan 内 <http://www.jetro.go.jp/en/invest/region/>

마. 이외의 기타 일본의 투자관련 우대 조치

일본의 대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우대조치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특정 투자진출 사업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세금우대, 책임보증, 저리융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 단체 별로 상이한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 투자진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로는 세금우대와 책임보증 제도가 있다. 세금우대는 현행 세법상 5년인 손실금 이월을 10년으로 연장해주는 제도이다. 책임보증은 투자 진출 후 5년간 차입한 사업자금을 산업기반 정비기금이 차입금의 95%를 10년간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사업소세, 자산세, 취득세 감면 등의 세금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투자유치 촉진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低利융자, 대부제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주요 우대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비과세: 특정 지역 내 공장 건립 시 토지보유세 비과세
- 세감면: 생산설비 신 증설 시 3년간 취득세, 사업소세, 고정자산세 감면
- 보조금: 특정생산설비 및 연구소 신 증설 시 고도기술자 1인당 10만엔 보조
- 융자: 특정 생산설비 건축과 관련한 자금의 80%를 년6% 이내로 융자

1)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융자제도

외국기업 및 외국계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할 경우, 토지, 건물 및 기계설비 등의 구입자금, 연구개발자금, M&A 자금에 대해서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 정책 투자은행의 융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문의처
- 일본정부투자은행 국제부
- 전화 : 03-3244-1770 / 팩스 : 03-3245-1938
- <http://www.dbj.go.jp/>

2) 대일직접투자 종합안내 창구 설치 운영

관계부성청은 2003년부터 대일투자에 대한 행정수속의 명확, 간결, 신속을 도모하고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여 대일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문의처
 - 내각부 대일직접투자 추진실
 - 전화 : 03-3581-8950 / 팩스 : 03-3581-4772
 - <http://www.investment-japan.go.jp/jp/>

3) 시장개방 문제에 고충 처리 체제(OTO)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입 및 대일투자 장벽 등의 정부규제 등에 대한 고충을 내외 기업으로부터의 넓은 의견을 수집 처리하고 있다.

- 문의처
 - 내각부 시장개방문제 고충 처리 대책실
 - 전화 : 03-3581-0384 / 팩스 : 03-3581-9897
 - http://www5.cao.go.jp/access/japan/oto_main_j.html

4)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지원 서비스

Jetro는 대일투자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Jetro 대일투자, 비즈니스 서포터 센터(IBSC)을 설치하여 외국기업의 대일투자 및 대일비즈니스를 지원 하고 있다.

- 문의처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대일투자부 대일투자과
 - 전화: 03-3582-5571 /팩스 : 03-3505-1990
 - <http://www.investjapan.org>
 - E-mail : invest-japan@jetro.go.jp

바. 사무실 설치시 도심 임대료 현황

도쿄

(단위: 천엔, 3.3평방 미터 당)

지 역	월 임대료(천엔)	보증금(천엔)
마루노우치 오테마치지역 (도쿄의 금융중심지역)	38-45	480-693
가스미가세키지역 (도쿄의 행정중심지역)	26-34	312-408
교바시 니혼바시지역 (도쿄의 상업중심지역)	22-27	264-324
니시신쥬쿠지역 (부도심지역)	17	204

오사카

(단위: 천엔, 3.3평방 미터 당)

지 역	월 임대료(천엔)	보증금(천엔)
우메다지역	9-13	80-122
미도스지혼마치 주변	6-30	60-300

7. 노무관리

가. 고용 계약

1) 근로 조건 명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고용계약을 맺는다. 고용자는 다음의 조건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해야 한다.

- 계약 기간(기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그 사유)
- 근무 장소 및 그 업무 내용
- 출퇴근 시각, 초과 근로의 유무, 휴식 시간, 휴일, 휴가 등
- 임금, 임금의 계산 및 지불 방법, 임금 지불의 시기 등
- 퇴직에 관한 사항(해고 사유 포함)

2) 고용 계약 기간

고용 계약의 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상한이다. 단지 고용 계약의 기간의 첫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근로자는 고용자에게 언제든지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3) 인턴 기간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능력과 적정을 판별하기 위한 인턴 기간을 두는 것은 인정한다. 인턴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이나 그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 그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와 같은 것이 되어 그것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4) 배치 및 전근

일본의 기업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 전환과 전근이 빈번히 행하여 진다. 일반적으로 고용자는 업무의 합리적인 필요성에 의해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회사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다.

나. 취업 규칙

일본에서도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고용 계약이 있으나 고용 계약에 의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용주와 노동자간에 합의 되고 관련 정부 부처에서 승인한 취업 규칙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노동의 평등성 및 기업의 취업에 대한 통일성, 균질성 유지를 위함이다. 취업 규칙은 노동 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 지는데 취업 규칙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으로 임금 규정, 표창 규정, 복리 후생 규정, 해고 규정 등이 있다.

취업규칙이란 노동시간·임금 등의 노동조건이나, 경영상의 필요로 근로자가 취업하여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직장의 규칙이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 한 고용주는 취업 규칙을 작성해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의견서 첨부이 필요하다.

1)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취업 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시작 및 종료 시각, 휴식 시간, 휴일, 휴가(출산, 육아휴가 포함) 및 근무조를 나누어 교체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무 전환에 관한 사항
- 임금(임시의 임금 등을 제외)의 결정, 계산 및 지불의 방법, 임금의 지불의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해고 사유 포함) 또, 퇴직 수당, 상여, 안전 위생 등

2) 주지 의무

고용자는 취업 규칙 외 노동 기준법으로 규정하는 노사 협정 등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근로 기준 시간, 휴가 및 휴일

근로 기준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주간 40시간, 1일 8시간(법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소매, 영화·연극, 보건 위생, 음식점·오락장에 대해서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 기준 시간이 6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45분 이상, 8시간을 넘는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휴일은 주에 1일 이상, 또는 4주간 4일 이상 주지 않으면 안 된다(법정 휴일). 휴일이란 꼭 일요일이나 경축일일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1) 시간외 근로·휴일 근로에 관한 협정(시간외 협정)

사업소로서 법정 근로 시간을 넘은 근로나 법정 휴일에 있어서의 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시간 외 노동·휴일 노동에 관한 협정계”를 관할 노동 기준 감독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예외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경영자와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야노동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며 노동 시간·휴식·휴일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3) 변형 노동 시간제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노동 시간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일정 기간 내의 평균 노동 시간을 법정 노동 시간으로 해서, 법정 노동 시간을 넘어도 할증 임금의 지불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근로 시간 제도의 채용이 인정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사 협정 또는 취업 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유급 휴가

고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계속 출근하고 전 노동일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서 10노동일의 유급 휴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단, 근로자의 유급 휴가의 신청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고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을 시킬 수 있다. 근속 연수와 연차 유급 휴가의 부여, 날짜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근속연수	6개월	1년 6개월	2년 6개월	3년 6개월	4년 6개월	5년 6개월	6년 6개월 이상
부여날짜	10일	11일	12일	14일	16일	18일	20일

연차 유급 휴가의 권리는,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즉, 그 해에 취득한 연차 유급 휴가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월 분과 신규 취득한 유급 휴가를 합계해 최대 40일(근속 연수가 7년 6개월 이상의 사람)까지의 유급 휴가의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의 결혼, 근친자의 사망, 배우자의 출산 등에 있어서는 상기와는 별도로 며칠간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일본의 기업에서 흔한 관습이다.

5) 출산·육아·개호(간호)

☐ 산전 산후의 휴가

고용주는 출산 예정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예정일의 6주간(2인 이상의 태아를 임신 경우는 14주간)의 휴가를 인정해야 한다. 또, 출산일의 다음 날부터 8주간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 육아 휴가

1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로부터 휴가(원칙적으로 아이가 1세에 이르는 날까지의 기간. 특별한 경우에는 1세 6개월에 이를 때까지)의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 노사 협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고용되고 나서 1년 미만의 사람,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등은 육아 휴업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 개호(간호) 휴업

요양 간호 상태의 가족이 있는 근로자로부터 그 간호를 위해 휴가(1명의 가족에 한해 통산 93일 간을 한정)를 청구할 경우, 1회에 한해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사 협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고용되고 나서 1년 미만의 사람, 3개월 이내에 고용 관계가 종료하는 사람 등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 아이의 간호 휴업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는 1년에 5일까지, 병·상처를 입은 아이의 간호를 위해서 휴가를 낼 수 있다.

라. 일본의 사회 보장 제도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적인 건강(의료) 보험 및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노동·사회보험 제도의 개요

일본에는 근로자를 위해 기업이 가입하는 것이 의무인 보험은 4 종류가 있다.

-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
 - 근로자의 업무와 통근 중에 있어서의 상해·질병에 대한 보험
- 고용 보험
 - 근로자 실업 보상 지급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조성금·장려금 등) 보험
- 건강 보험·개호(간호, 특히 육아) 보험
 - 의료·개호(간호, 특히 육아)의 지출에 대한 보험
- 후생 연금 보험
 - 노후, 사망, 장애에 대한 지급을 위한 보험

통상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과 고용 보험을 합쳐 “노동 보험”, 건강 보험·개호 보험, 후생 연금 보험을 합쳐 “사회보험”이라 한다. 가입 수속은 기업측이 감독 관청에 대해 노동·사회보험의 신고를 실시한다. 보험료의 지불은 기업측이 종업원 부담 분의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고용주의 부담분과 함께 감독 관청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 제도

적 용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사업주 등도 신청에 의해 특별 가입이 가능
지 급	근로자가 업무상에 또는 통근 중의 재해에 의해 생긴 부상·질병·상해·사망에 대해서 지급
보험료	원칙적으로 근로자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함. 그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최고 11.8%(수력 발전 시설 등 사업)에서 최저 0.45%(금융업, 통신업 등)까지 (2006년 4월 개정) 보험료를 고용주가 부담함
신 고	보험 관계 성립이 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노동 기준 감독청에 신고.

3) 고용 보험 제도

적 용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 근로자. 단, 단시간 근로자에 한해서는 주간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고용할 예정에 한함. 해외 본사 등으로부터의 부임자는 가입 면제
지 급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전직을 했을 경우에, 전직의 이유, 피보험자인 가입 기간, 연령 등에 의해 정해진 금액과 기간의 실업 급여금이 지급. 또, 그 외 고용안정과 관계되는 각종의 지급도 실시함
보험료	노동자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보험료율은, 일부의 업종을 제외 하고는 1.95%. 고용주가 1.15%, 근로자가 0.8%부담(2005년 4월 개정)
신 고	보험 관계 성립이 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공 직업 안정소에 신고

4) 건강 보험·개호 보험 제도

적 용	적용 사업소	모든 법인 및 상시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 사업소.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외국 기업의 일본 지점·영업소는 법인으로 취급되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 사업소로 취급이 됨)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모든 종업원. 단지, 단시간 노동자에 한해서는 노동 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3/4 이상인 사람. 해외 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됨. 예외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파견되는 사람이 미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가입이 면제됨
	피부양자	피보험자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직계 존속, 배우자, 자, 손, 제매도 이 보험의 지급 대상이 됨
	개호(간호) 보험	40세 이상의 사람만 적용
지 급	치료비	보험 적용 의료 기관(건강 보험 적용 의료 기관. 일본 내의 대부분의 의료 기관이 여기에 해당됨) 치료에 필요로 한 비용 중 7할은 보험자로부터 직접 의료 기관에 지불되고, 3할은 피보험자가 부담. 치과 의료에도 적용됨
	해외 치료비	해외 체제 중 또는 여행 중에 의료 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 귀국 후 신청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일본의 의료비로 환산한 금액의 7할이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됨. 외국인인 피보험자가 모국, 그 외의 나라에서 의료를 받았을 경우도 적용됨
	고액 치료비	피보험자가 동일한 달(역월)에 동일한 의료 기관에 지불한 일부 부담금의 액수 등의 금액이 일정액을 넘었을 때는 고액 치료비로서 지급됨
보험료	정부 관장 건강 보험의 일반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표준 보수 월액(상한 98만엔) 및 표준 상여액(상한 200만엔)의 8.2%, 개호 보험료율은 1.23%이며, 피보험자 및 고용주 가 각각 1/2씩 부담함(2006년 3월 개정). 조합 관장 건강 보험은 보험료율의 설정에 있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음	
신 고	보험관계성립일 다음날부터 5일 내 관할 사회보험 사무소 또는 건강 보험 조합에 신고	

5) 적용 대상자 이외의 경우 (국민 건강 보험)

적 용	상기 건강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주거지의 시구읍면에서 운영하는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
지 급	국민 건강 보험의 지급 기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강 보험과 동일
보험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에 의해 결정된 보험료.

일본에서는, 상기와 같이 공적인 건강(의료) 보험 제도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외국 에서 민간의 의료보험에 가입해 일본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 지급 내용이 일본의 건강 보험과 중복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좋다.

6) 후생 연금보험의 제도

적 용	적용 사업소	모든 법인 및 상시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 사업소.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외국 기업의 일본 지점·영업소는 법인으로 취급되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 사업소로 취급이 됨)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모든 종업원(단, 70세를 넘는 자는 제외) 단지, 단시간 노동자에 한해서는 노동 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3/4 이상인 사람. 해외 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됨
급 부	노령 연금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 기간과 보험료 면제 기간을 합산 한 기간이 25년 이상으로, 65세 이상일 경우, 지불한 보험료와 지불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이 지급됨
	장해 연금	장해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기간에 생겼을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 보험료를 지불한 기간 등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 또는 일시금이 지급됨
	유족 연금	피보험자, 상기 노령 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장해 연금의 수급자 가운데 중증의 장애자 등이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됨.
보험료	요율과 부담	피보험자의 표준 보수 월액(상한 62만엔) 및 상여 액수(상한 150만엔)의 14.288%(2005년 9월 개정)를 피보험자와 사업주로 절반씩 부담
	연금 협정	현재, 일본은 독일, 영국, 한국, 미국과의 사이에 각각 사회 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독일, 영국, 한국, 미국의 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파견되는 경우, 사회보험 사무소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써 일본의 연금 보험 제도에 가입이 면제됨
	탈퇴 일시금	외국인이 연금을 수취하지 않고 귀국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지불한 기간과 지불한 보험료의 액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반환됨
신 고	보험 관계가 성립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사회보험 사무소에 신고	

7) 적용 대상자 이외의 경우(국민 연금)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상기 후생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국민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매달 보험료는 정액(13,860엔)으로 노령 연금, 장해 연금 및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또, 후생 연금 보험과 같이, 탈퇴 일시금 제도도 있다.

마. 급여 기준

1) 급여 지불의 원칙

급여는 법정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 해야 한다. 단, 근로자 노동의 동의를 얻은 다음 급여를 근로자 지정 계좌에 납입하는 것과 사회 보험료, 세금 등을 급여로부터 공제해 지불하는 것은 인정한다.

2) 최저 임금의 보장

지역별 및 산업별로 최저 임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어 양 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수가 높은 쪽에 적용된다.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로 도쿄도의 최저 임금은 시간급 714엔(2005년 10월 개정)이다.

3) 임금제도

일반적으로 일본 기업에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상여는 하계와 동계의 연 2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월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주택 수당, 가족 수당, 통근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액 안에서 차지하는 상여의 액의 비율이 비교적 큰 것이 특징이다. 급여 안에 각종 수당과 상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시간외 노동 등에 대한 수당의 단가를 낮게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액이 올라가는 연공 임금이 오랫동안 중심이 되었지만, 지금은 직능급·직무급 및 성과주의 임금을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많아졌다.

□ 임금의 구성

- 기본급((본인(속인적)급+직무직능(능력)급))+제수당+기능수당+개근 수당+통근 수당+ 가족수당(배우자+60 세 이상의 부모+22 세 미만의 자녀)+주택 수당·기타 복지수당· 단신 부임 수당 등 다수의 수당+상여금+퇴직금
- 최근의 일본의 임금 체계의 경향으로 기본급의 병존형(속인급+능력급) 체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50%이상, 중견기업(종업원 100-1,000 명)의 경우 20% 전후, 중소기업의 경우 10% 전후의 비율로 이러한 체계에 의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50세 전후(기업에 따라서는 45세)부터 기본급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이 되면 상승을 정지시키거나 삭감시키는 기업도 있다. 전체적으로 임금에서 차지하는 제수당의 비율증가하고 있으며 참고로 중견기업의 평균적인 제수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참고: 중견기업 평균제수당 내역
 - 직책수당: 30,000 엔, 기술수당: 10,000 엔, 장려수당: 7,000 엔,
 - 가족수당: 16,000 엔, 주택수당: 11,000 엔
- 참고: 임금인상체계
 - 정기승급(년1회)+베이스인상(년1회)+승급(격)가산인상(년1회) 승급(격) 인상은 개개인의 근속년수와 능력에 따르며 일률적으로 전원 이 오르는 것은 아님
- 참고: 일반적인 급여 구성 내역
 - 총 급여: 100(정기급여(74) + 특별급여(26))
 - 정기급여: 74(소정 내 급여(기본급, 제수당) 67 + 소정 외 급여 : 7)
 - 특별급여: 26
 - 일시 급여: 상여금
 - 기본급 인상액 차액의 소급지불 등

4) 임금 이외의 비용(FRINGE BENEFIT)

- 의무적 사항
 - 명기된 각종 보험
 - 후생 연금제도

- 관행적 사항
 - 휴직 수당
 - 경조금
 - 기업 연금 제도
 - 저리 융자 제도
 - 재해 위문금 제도
 - 주택론의 이자 지급 제도
 - 사원 주택의 제공
 - 자녀 학자금 보조

한편 프린지 베네피트(임금 외에 유급휴가나 차량제공 등 추가로 근로자들에게 주는 혜택)의 총 임금 지불에 대한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생산성 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프린지 베네피트의 총 급여에 대한 비율은 90 년 약 15%정도이다. 이러한 프린지 베네피트는 기업간, 산업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일수록 프린지 베네피트 지불액이 많으며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 광업 등의 분야에서 많으며 금융, 보험업 또한 많은 편이다. 반면 도소매,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의 프린지 베네피트는 전산업 평균에 비해 훨씬 적다.

바. 초과 근무 수당

노동 기준법 제 37 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 경우 8 시간 이상 노동 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 근무의 임금 할증률은 25% 또는 25% 이상이다(상한은 없음). 한편 시간외 근무가 오후 10 시-오전 5 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할증율이 50% 이상이다. 또한 휴일근무시 할증율은 25%이며 오후 10 시-오전 5 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50%를 적용받는다.

사. 해고 절차와 조건

기간의 규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가 자기퇴직(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퇴직 의사 표시하는 것에 의해서 노동 계약이 종료되는 것)의 경우는, 2주일 전에 사전 통고를 해야 한다. 취업 규칙 등에 퇴직 예정일의 2주일 보다 전에 통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는 확정된 판례는 없지만 1개월 이내이고, 1개월 이상의 사전 통고 의무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해고(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퇴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의해서 노동 계약이 종료되는 것)의 경우에는 몇 가지의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1) 해고가 정당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가 된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리 취업 규칙 등에서 가능한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정해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고의 유효성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노동법의 전문가(변호사, 사회보험 노무사 등) 등에게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정리 해고(기업 경영 악화에 의해 실시하는 해고)의 경우는 많은 판례가 있으며 이하의 4개의 요건에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해고의 필요성
 - 기업이 인원 정리를 해야 할 만큼, 경영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 해고를 막으려는 노력
 - 배치전환, 희망 퇴직자의 모집 등, 해고를 막기 위해 경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인선의 타당성
 -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 해고 수속의 타당성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2)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

-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업무를 쉬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
- 여성 노동자가 산전 6주간(2인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는 14주간), 산후 8주간 쉬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

3) 해고 수속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경우는 적어도 30일전에 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고 의사를 표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는 해고와 동시에 30일 분의 임금(예고 급여)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아래의 경우와 같이 관할 노동 기준 감독 소장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고 예고나 예고 급여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근로자의 책임으로 해고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내에 있어서의 절도, 횡령, 상해 등 형사상의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 현저하게 품기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직장 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고용해 때 경력을 사칭 했을 경우
- 2주간 이상 정당한 이유 없고 무단 결근해, 출근의 독촉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해, 몇 차례에 주의를 받아도 고치지 않는 경우

아. 노조 결성

- 아무런 제한 없이 결성 가능하다

자. 노조 활동 보장

-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단체행동권 등이 헌법이나 노동 관련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측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고용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 황견 계약(黃犬契約)
- 단체교섭의 거부
- 지배개입 등

8. 조세제도

가. 일본 조세제도의 개요

일본의 조세제도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공공단체(都道府縣과 市.町.村)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헌법상, 지방공공단체의 행정권을 보장하고, 그 집행의 일환으로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세나 지방세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국세: 소득세(원천소득세, 개인 신고 소득세), 법인세
 - 지방세: 법인주민세(都道縣民稅, 市町村民稅, 事業稅)
-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 지방세: 고정자산세
-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
 - 국세: 소비세
 - 지방세: 지방소비세
-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 국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 지방세: 부동산취득세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은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경우 진출형태에 따라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일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일본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 소득의 원천이 외국이고 그 이익에 대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경우 소득원천지국과 일본에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외국에서 과세된 세금을 일본에서 과세되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외국법인의 일본지점에 대해서는 일본국내에서 발생한 일정 소득만을 일본에서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이 일본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일정 소득을 얻었을 경우 원천징수에 의한 수속, 또는 신고에 의한 납부수속에 따라 세액이 산정되어 납부하게 된다.

나. 일본 국내 원천 소득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외국법인의 일본에서의 활동 형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범위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 원천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공사채 이자, 일본 내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예금 이자
- 일본 국내 업무에 관계된 대부금 이자
- 내국법인의 주식, 증권투자신탁 배당
- 내국부동산, 기타 유사재산 사용대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한 선박 또는 항공기 임대료
- 일본에서의 용역에 기인한 급여, 임금, 보너스 등 보수
- 거주자로서의 용역에 기인한 퇴직수당 또는 연금
- 일본에서의 자유직업 용역의 대가
- 연예인, 자유직업자 또는 기술자 등 인적 용역 사업의 대가
- 국내업무에 관련된 특허권, 노하우, 저작권 등의 사용료 또는 양도의 대가
- 국내업무에 관련된 기계장치 사용료
- 국내 광고선전과 관련된 상금
- 국내에서 체결된 계약에 기초해 지급되는 연금
- 국내에서 발행되는 할인채권의 상환차익
- 일정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
- 국내 부동산 양도에 의한 일정 소득
- 익명조합 계약에 기초한 이익의 분배
- 상기 이외의 국내 자산 운용, 보유, 양도에 의한 일정 소득
- 사업소득
- 민법에서 규정하는 조합 계약에 기초한 이익의 분배

다. 법인소득 과세 개요(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법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해 일본에서 과세되는 세금으로는 법인세(국세,), 법인주민세(지방세), 사업세(지방세)(이하 ‘법인세 등’으로 지칭)가 있다. 법인주민세, 사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 과세소득의 산정은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법인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인주민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 이외에 자본금 및 종업원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균등과세이며 법인사업세는 자본금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형 표준 과세이다.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 등은 회사의 사업 년도 별로 계산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이 밖에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퇴직연금 등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등이 있다.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주민세 및 사업세의 세율(법인소득에 대한 세 부담 및 균등할)은 아래와 같으며 지방세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 소득에 대한 세부담

과세소득금액 구분	400만엔 이하	400만엔 초과 800만엔 이하	800만엔 초과
법인세	22.00%	22.00%	30.00%
법인주민세			
- 도부현민(道府縣民)	1.10%	1.10%	1.50%
- 시정촌민(市町村民)	2.70%	2.70%	3.69%
사업세	5.00%	7.30%	9.60%
종합세율	30.80%	33.10%	44.79%
실효세율	29.33%	30.85%	40.87%

자료원: JETRO

주: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는 도쿄도의 예시(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세액이 연 1천만엔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은 연 2천5백만엔 이하. 2개 이하의 지역 사무소, 사업장 소재지)

법인주인세 균등할 과세

자본금		종업원수	균등
¥5,000,000,000 초과	-	50인 초과	¥3,800,000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50인 초과	¥2,290,000
¥5,000,000,000 초과	-	50인 이하	¥1,210,000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50인 이하	¥950,000
¥1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50인 초과	¥530,000
¥1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50인 이하	¥290,000
¥1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50인 초과	¥200,000
¥1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50인 이하	¥180,000
-	¥10,000,000 이하	50인 초과	¥140,000
-	¥10,000,000 이하	50인 이하	¥70,000

자료원: JETRO

라. 법인 설립, 지정 개설과 세무신고

일본법에 기초해 새롭게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립 또는 설치 후 일정 기한 내에 세무당국에 설치와 관련한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지점을 설치하지 않았어도 아래에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장소나 용역을 통해 활동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신고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국내에 건설, 설치, 조립, 기타 작업 또는 작업의 지휘감독 업무를 1년 넘게 제공할 경우의 건설, 작업 현장
- 이하에서 열거하는 일정 대리인
 - 외국 법인을 위해 사업에 관계된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있고 이를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자
 - 외국 법인을 위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량의 자산을 보관하고 그 자산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인도하는 자
 - 외국 법인을 위해 상습적으로 사업과 관계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문의 취득, 협의 기타 행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

마. 주재원 사무소

주재원 사무소를 통해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인으로서 해당 주재원 사무소가 광고선전, 정보제공, 시장조사, 기초연구, 기타 법인 사업의 수행에 있어 보조적인 활동을 위해 설치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법인의 일본 내 사무소, 사업소가 자산을 구입할 목적으로만 해당 장소를 사용할 경우, 또는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도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바. 법인과세 소득의 범위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은 소득의 원천을 불문하고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로 구분한 후 그 내용에 따라 국내원천 소득 가운데 각각 정해진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가 과세된다. 단, 3번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사. 법인과세 소득의 산정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업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산정된다. 아래에서 열거하는 일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 원가, 경비는 공제된다.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일본 국내원천소득의 산정상 공제 대상이 되는 원가, 경비에 대해서는 발생장소에 제한이 없다.

단, 국외에서 발생한 원가, 비용을 국내 소득 산정상 공제하기 위해 배부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 원가, 비용 공제에 제한이 있는 일정 항목의 예

- 법인세 및 벌과금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 교제비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 각종 충당금 이월액
- 감가상각 자산 및 이연자산의 상각한도 초과액
- 자산의 평가 감소
- 임원 상여, 임원에 대한 과대 보수, 과대 퇴직급여

아. 법인 사업세의 외형표준 과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 부가가치, 자본금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외형표준 과세가 적용된다. 소득당, 부가가치당 및 자본당 등 각각의 표준 세율은 다음과 같다.

외형표준 과세

소득당	연 400만엔 이하	3.8%
	연 400만엔 초과 800만엔 이하	5.5%
	연 800만엔 초과	7.2%
부가가치당		0.48%
자본당		0.20%

자료원: JETRO

주: 3개 이상 지역(도도부현)에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 소득 할 표준과세는 일률적으로 7.2%를 적용

참고: JETRO발간자료, KOTRA 해외투자백서,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일본은 외환 관리가 자유화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없으며 외환법이 외환 관리의 골자를 이루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가. 외환법의 목적

일본의 외환법은 “외환, 외국 무역 그 외의 대외 거래가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을 기본으로, 대외 거래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관리 또는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외 거래의 정상적인 발전 및 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기하며, 국제 수지의 균형 및 통화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외환법의 변천

외환법은 1949년에 “외환 및 외국 무역 관리법”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당시의 일본경제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대외 거래 원칙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후 1980년의 개정에 의해, 대외 거래를 원칙적 자유롭게 하는 법 체계로 개정했으며, 1998년의 개정에서, 사전의 허가·신고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외환 공인 은행 제도, 환전상 제도를 폐지 하는 등, 자유롭게 신속한 대외 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미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대외 거래 환경의 정비를 실시 했다. 이 개정에서, 국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시, 또는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하기 위할 시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경제 제재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1년 9월 미국에 있어서의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의 발생 이후, 국제사회에서 테러 자금 대책이 중대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2년 5월에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을 실시 했다.

또한, 2004년 2월에는 최근에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가 있을 시에는 내각회의를 거쳐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게 개정을 했다.

이와 같이 외환법은 일본 국내의 규제완화의 흐름, 국제 금융의 글로벌화,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재차에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다. 외환법의 내용

외환법은 외환, 외국 무역 그 외의 대외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며, 일본의 대외 거래의 기본법이다.

□ 내외 자본 거래

- 기업이나 개인은 자유롭게 해외의 기업이나 개인과 자본 거래, 결제 등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 외환 업무

- 1998년 4월 이후, 외환은행 제도, 지정 증권 회사 제도, 환전상 제도가 폐지되어 외환 업무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었다. 따라서, 은행 이외의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외화의 매매를 업무로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외환거래, 예금의 수용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은행법 등이 적용된다.

□ 사후 보고 제도

- 1998년 외환법 개정에 의해, 내외 자본 거래 등과 관련되는 사전 허가·신고 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며, 그 대신에 사후 보고 제도가 법 운용상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불 등, 자본 거래, 외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후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며 국제 수지 통계의 작성이나 시장동향의 파악 등에 이용하고 있다.

□ 국제적인 요청에 대응(경제 제재 조치 등)

- 외환법은 대외 거래가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 규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가 있어 대응 조치를 해야 할 각의 결정이 있을 때”, 주무 대신(재무 대신 및 경제 산업 대신)은 필요한 경제 제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경제 제재 조치로서 이라크 前정권의 기관 및 이라크 前정권의 고관 또는 그 관계자등, 탈레반 관계자 등이나 테러리스트, 밀로세비치 前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리베리아 前정권의 고관 또는 그 관계자,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무기 수출입 금지 조치 등에 위반한 사람 등에게 자산 동결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일정액이 넘는 현금 등의 휴대 수출입에 대한 신고

- 일정액이 넘는 현금 등을 휴대해 출국·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에의 신고가 필요하다.
- 휴대하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이 100 만 엔이 넘는 경우
 - 현금(외국 통화 포함)
 - 수표(여행자 수표 포함)
 - 약속어음
 - 유가증권
- 휴대하는 금(순도90% 이상)의 총량이 1킬로그램을 넘는 경우

□ 외화 환전 업무에 관한 보고 제도

- 1개월의 거래 합계액이 100 만엔 상당액을 넘는 환전 업자는 사후 보고가 필요하다. 보고할 사항은 외국 통화 또는 여행자 수표의 매각·매입 거래 건수·금액의 합계이다.

일본 외환관리 정책의 변화

년	내 용
1931	금수출 再금지(금본위제 정지)
1932	자본 도피방지법제정
1933	외환 관리법 제정(「외환은행 제도」)의 도입)
1936	대장성수(한국의 재경부에 준함)에 의해 무역 환율 관리 개시
1941	외환 관리법 개정(전시체제에 이행)
1945	GHQ의 전면 관리
1947	민간 무역의 일부 재개
1949	단일 환율의 설정 1 달러=360 엔 「외환 및 외국 무역 관리법」(외환법) 및 「외자에 관한 법률」(외자법)의 제정
1952	IMF(국제통화기금), 세계 은행에 가맹 외환 관리 위원회의 폐지, 외환 등 심의회 설치
1954	외환 은행법 제정에 수반해, 외환은행을 외환공인은행으로 개정
1964	외환 예산제도의 폐지, IMF 8조국에 이행, OECD에 가맹
1971	환율의 변경 1 달러= 308엔
1972	외화 집중 제도의 폐지
1973	변동 환율제 시행, 대내 직접투자에 대해, 예외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인 자유화 결정
1980	외환법을 원칙적으로 자유 법체계로 개정, 외자법폐지
1984	선물 외환 거래에 관한 실수요 원칙 철폐
1986	오프쇼어 계산의 창설에 수반한 외환법의 일부 개정
1987	코콤(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s) 규제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벌칙·제재의 강화에 수반하는 외환법의 일부 개정
1992	대내 직접투자 등에 대해, 사전 신고제로부터, 원칙적으로 사후 보고제의 이행에 대한 외환법의 일부 개정
1998	내외자본 거래 등의 자유화, 외환 업무의 완전 자유화에의 이행에 수반하는 외환법의 일부 개정(제목에 「관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외환 및 외국 무역법으로 고침)
2002	미국 동시다발 테러사건을 경위로 자금 대책 강화를 위해, 본인 확인과 관련되는 노력 규정의 의무화 등(2003년 1월 6일 시행), 관계 부처 등에 의한 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정비 등(2002년 5월 7일 시행) 외환법의 일부 개정
2004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할 시, 각의 결정에 의해, 지불, 자본 거래, 역무 거래, 화물의 수출입 거래 등에 대한 규제 발동을 가능하게 하는 외환 법의 일부 개정(2004년 2월26 일 시행)

자료원: 일본 재무성 자료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초일류 부품소재 기업이 이끄는 거대 내수 시장

일본의 초정밀 고기능 부품 소재 기업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제조업을 리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형모터, 실리콘 웨이퍼, 화합물반도체, CCD소자, 세라믹필터, 청색LED, 광통신용렌즈 등 의 분야를 들수 있겠다. 특히, 액정, PDP, 유기EL 등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핵심설비와 부품의 대부분을 일본 기업이 공급중이다. 단, 한국 및 대만 등과 규모의 경제, 시설투자등의 측면에서 경쟁중으로 볼 수 있다. 각 분야별 세계시장 점유율로는 일본이 액정제조설비(96%), 편광막 보호 필름 (100%), PDP부품 (94%) 등을 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내수시장은 세계 2위로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나. 소비의 양극화 진행, 선별적 소비형태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난 일본은 소비자의 소비행태에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가격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한편,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매스 마케팅의 시대로부터 다품종 소량생산, 선별소비, 개별적 마케팅으로 이행하는 추세는 명확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침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명확한 컨셉에 입각하여 개발된 “진품(혼모노, 本物,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의미)”의 상품 및 서비스, 확실한 기술력에 기초한 고품질 상품,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상품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세이다.

다. 단카이 세대의 퇴직/초고령 사회

일본은 과거부터 최장수 국가였으며, 2007년 현재(2005년 세계통계기준) 이탈리아와 함께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이탈리아와 일본 공히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원이 20%를 차지하고 있음) 여기에다 주목할 점은 1947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난 680만명 가량의 단카이세대 (인구통계에서 단과<덩어리>처럼 뭉쳐있다고 해서)가 60세 정년을 맞이하는 첫해로서 앞으로 2~3년간 대량 정년 퇴직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가임여성 1인당 출산인원 또한 1.3명에 불과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비약적인 유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천만명을 정점으로 쇠퇴하여 사회구성원 수의 증가에 따른 소비 시장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더욱더 격렬한 판매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년퇴직하는 단카이세대를 포함한 60세 이상의 인구가 일본 전체의 개인금융자산 1400조엔의 절반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커다란 구매력을 가진 시니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고령화 상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라. 유통구조 변화

□ 메이커의 유통업계에 대한 지배력 약화

일본은 여전히 복잡한 유통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십수년간 크게 변화하여 도매업에서 소매업까지를 수직적으로 지배해온 메이커의 유통시장에 있어서의 지배력이 크게 감퇴되는 등의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이의 배경에는, 메이커가 가격(다테네, 建値)을 설정, 유통업자의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명된 점, 소매업자의 PB(Private Brand)상품 개발, IT를 활용한 물류·판매 관리 시스템의 합리화 촉진, 외자계 유통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 하에 일본의 유통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수입형태의 다양화

종전에는 해외의 메이커가 제조, 가공한 제품을 종합상사, 수입 총 대리점, 전문수입 업자가 수입하여 1차도매상으로부터 2차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전문점, 백화점 등)으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인 수입품의 유통경로였다. 하지만 근년에는 대형 소매상, 도매상에 의한 개별수입,

일본 메이커의 해외 생산공장으로부터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또한 중소 도매, 소매상에 의한 소규모 수입, 소비자가 직접 행하는 개인수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수입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소매상이 저가격, 양질의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형태로 제품조달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1차, 2차 도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상품이 유통되는 형태가 실현되어 일본의 전통적인 유통경로의 단축, 합리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 가격경쟁의 격화, 인터넷의 보급 등 수입품의 유통을 둘러싼 환경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마. Private Brand 상품 생산의 확산

글로벌 상품 조달력을 갖춘 소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 물류를 컨트롤하여 리스크를 부담함으로써 저코스트를 실현하여 소비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오리지널리티를 어필하고, 내셔널브랜드 판매에 따른 무한가격경쟁에 휩쓸리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 소매업체로부터 중소규모의 소매점까지 확산중이다. 과거와의 차이점을 볼 때, 과거 PB상품이 저가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진품의 PB브랜드상품 개발에 착수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거나 혹은 아직 일본에 소개되지 않은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오리지널 상품을 제안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포로는 무지루시(無印良品) 등이 대표적이며, 편의점, 슈퍼등의 유통망에서도 활발히 존재하고 있다.

바. 최근의 히트상품

일본경제 신문에서 발표하는 “올해의 히트상품”은 과거 20년 전부터 매년 선정,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본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된다. 여기에는 꼭 상품뿐만 아니라, 가장 주목받은 경제 관련 현상이나 주제를 선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과 관련해 2004년에 히트 상품 1위로 뽑힌 것이 바로 ‘한류’, 그리고 배용준 씨가 주연한 ‘겨울연가’ 였다.

2005 히트 상품	2006히트상품	2007유망상품
- ipod 나노 - 아이치 엑스포 - 블로그 서비스 - 한천 (다이어트 제품) - 헬시오(스팀 전자렌지) - 경사 드럼 세탁기(공간 절약) - 쿨비즈(여름반팔타이 복장) - 지갑휴대폰(핸드폰 결제 방식) - 전차남(영화/만화/드라마) - 미야자토 아이(여성골퍼)	- 닌텐도DS lite & 뇌단련게임 - 경자동차 - TSUBAKI (상푸: 광고비 50억 엔) - mixi(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 W-zero3(PDA 방식 휴대폰) - 라브레(식물성 유산균 음료) - EOS Kiss Digital(일안 카메라) - 다빈치 코드(책, 영화, DVD 등) - 키레이노미스트(주방 세제) - 오토코마에두부점(두부)	- 피로회복상품군 - 모바일 SNS (휴대폰 블로그 연동) - Wii(닌텐도 신형 가정 게임기) - 매니지먼트워터 (기능성 음료수) - 모바일 TV (통신, 위성 등 휴대 TV) - 다이아믹패키지 (여행 종합 상품) - 혈액형별 요구르트 - 초고속센서 디지털 카메라 (고속 촬영) - 고구마 과자 (감자칩류의 고구마판) - 동경 미드 타운 (신개발 건물 상점가)

주: 유망상품은 2006년도 10월 이후 발표된 제품 및 2007년도 히트 예상품목을 임의로 선정하여 닛케이트렌드 라는 잡지를 통해 발표된 내용

2. 물가정보

가. 일반사항

2007년도 상반기까지도 일본의 물가상승은 이루어지지 있지 않다. 단, 일본 은행은 2007년 소비자 물가는 0.1%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금리인상의 시점등과도 맞물려 있는 사항으로서 2007~2008년 사이에는 순조로운 경제의 회복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본은 90년대 들어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오랫동안 지속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층은 고급지향의 일부 부유층과 소비 지출을 가능하면 꺼리는 일반 대중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예전에 일본 국민의 80%를 차지하던 중산층도 지금은 신흥 부유층으로 상승하는 층과 니트(NEET)나 프리터 등으로 전락하는 빈곤층으로 세분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시내 곳곳에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을 100엔으로 구입할 수 있는 100엔숍, 중고용품을 재 판매하는 리사이클숍 등이 눈에 띈다.

한 마디로 15년 전에 비하면 중국산을 비롯하여 저렴한 외국산 제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고 대량 생산기술이 발달 한 탓에 일반소비생활의 물가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비용 사회구조를 띄는 일본에서는 아무리 해도 낮아지지 않는 물가가 있는데 바로 인건비와 교통비 부분이다. 택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조차도 우리나라 보다 3배~5배는 비싸다는 느낌이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등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다. 다만 기름값만은 세금구조의 차이 때문인지 우리나라 보다 10% 가량 싸다.

한편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각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파견직 사원이나 계약직 사원을 활용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힘쓴 결과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높은 교통비용 부문만은 사회적 구조 조정과 합리화가 더욱 진척되기 전까지는 상당기간 지속되리라 본다.

食 부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생맥주 한 잔(350ml-500ml) 당 500-600엔 가량을 받고 있고 일반 서민이 맥주 한두 잔을 포함하여 간단히 음주 식사를 하는 경우 1인당 2,000-3,000엔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가격의 상한선을 둘 수 없는 최고급 레스토랑도 셀 수 없이 많고 반대로 냉동식품, 라면 등의 경우에는 한 끼를 100-200엔으로 때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소비가 양극화로 치달으며 물가도 역시 값비싼 소비 지향과 염가 지향의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화되어 일률적으로는 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 도쿄와 지방 도시 - 예컨대 후쿠오카, 나고야 등 - 간의 물가 수준은 차이가 커서 동일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20-30% 내외의 가격 차이를 보인다.

□ 도시: 도쿄 물가수준 (환율: US\$1 = ¥119 기준)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순모100%)	820.59	7.1	구두(1켤레, 소가죽)	220.59
1.2	넥타이(1개,실크100%)	75	7.2	치약(150g, 1개)	2.5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105.88	7.3	칫솔(1개)	2.5

1.4	양말(1컬레,면100%,현지산)	8.82	7.4	면도기(1세트)	8.38
1.5	코트(1벌,롱코트,추동)	1,058.82	7.5	건전지(1세트, 1.5V AA)	4.62
1.6	스타킹(1컬레,밴드타입,현지브랜드)	4.41	7.6	화장지(1통, 300매)	2.5
1.7	청바지(Levi's)	150.88	7.7	비누(1개)	2.21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안심)	8.82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6.61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2.03	8.2	볼펜(12개)	3.02
2.3	닭고기(1KG, 생 닭)	7.9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3.76
2.4	쌀(1KG,Short Grain)	2.92	8.4	공CD(1통, 12개입, 700MB)	9.31
2.5	밀가루(1KG)	1.5	8.5	휴대폰(범용형)	174.71
2.6	설탕(1KG, 백설탕)	1.08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40.59
2.7	계란(10개)	2.65	8.7	인터넷가입비(1회최초,1회설치)	17.65
2.8	감자(1KG, 현지 산)	3.34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24.71
2.9	미네랄워터(1.5ℓ,Evia 1Pet)	2.21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12,310.92
3.1	고추장(1Kg)	5.82	9.2	엔진오일(1L)	14.71
3.2	된장(1Kg)	3.97	9.3	휘발류(1L)	1.18
3.3	라면(1개)	0.5	9.4	자동차등록비(2,000cc)	705.88
3.4	설령탕류(1인분,설령탕,곰탕등)	10.08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198.9
3.5	불고기(1인분, 200g)	8.40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6.72	10.1	지하철(1구간)	1.09
3.7	김치찌개(1인분)	8.4	10.2	시내버스(1구간)	1.68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5.55
4.1	햄버거(1개)	2.1	10.4	택시(추가요금/Km)	1.34
4.2	피자(1판)	28.24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1.01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39.16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74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4.12
4.5	담배(수입산, 1갑)	2.52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07
4.6	위스키(1병, 750ml)	18.32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25
4.7	커피(1병, 175g)	7.52	11.5	국제전화(현지-서울,3분,평상)	0.39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1통,2~3페이지)	0.67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4,369.75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1통,10g이하, 현지-서울)	0.76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4,159.66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58.82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3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2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7.23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1.09
6.1	TV(29인치, 칼라, 범용)	359.66			
6.2	VTR(6헤드, 범용)	67.06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75.46			
6.4	전자레인지	149.58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603.36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712.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외국인학교 수)	40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	6
12.2	외국인학교(등록금,American School)	없음	18.2	상여금(월급여대비%,연간)	440~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대비%,연간)	12.5%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6,302.52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0~2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6,302.52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6주간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6,302.52	18.6	연간국경일	13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그린피 (비회원, 18홀, 1라운드)	132.77	18.8	노동쟁의 시냉각기간일수	없음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13,025.21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52.94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436.76	19.1	법정최저자금	0.01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1.68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2,521.01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0.08	19.3	외국인업체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2,811.33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375%부터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35.71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5.38			
14.4	치과(스켈링, 1회)	44.12		※19.1 최저 자본금 엔화 기준 ¥ 1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2.73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32.77			
15.2	한국신문(1개월)	42.02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20.29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3.36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49.18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20.65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41.18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07.61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7.65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6.72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급여, 대졸초임)	1,638.66			
17.2	사무실비서(월급여, 학력불문)	1,478.99			

□ 후쿠오카지역 물가 수준 (1US\$=¥110 기준)

항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내역
식 품 기호품	김치찌개	8.20	1인분
	햄버거	2.40 , 5.52	맥도널드 빅맥1개, 세트
	수입담배	2.73	말보로 라이트1갑20개피
주 택 사무실	고급아파트 월 임차료	1,818~4,545	시내, 신축, 100m2/월
	중급아파트 월 임차료	636~1,272	후쿠오카 시내, 신축2~3LDK/월
	사무실 임차료	455 /909~1,273	하카타구 20m2 / 50m2
교 통 차 량	자동차 2000cc	17,273	현대JM,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0.9	후쿠오카 시내 1구간
	택시 요금	5.4 / 5.55	소형 / 중형 기본요금
	택시 요금	0.73	추가요금, 2분15초(365m)당
통 신 전 기	공중전화요금	0.09 , 0.44	근거리1분, 장거리1분
	국제전화요금	0.45~1.09	일본->한국, 1분당
	전기요금	2.70	큐슈 전력, 10암페어1kwh
	인터넷사용료	27.27~45.45	1개월, ADSL 100M
교 육	사립학교 수업료	2,727~9,090 (평균5,454)	수도권사립초등학교 연간 수업료
	외국인학교 수업료	578	재일한국학교 월간수업료
레저,오락	골프장 그린 피	100	비회원, 18홀1라운드, 평일
	영화 관람료	16.36, 13.63	성인요금, 학생할인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15~20	의료보험적용(본인부담30%), 내과초진기준
호 텔	특급호텔 숙박비	136 ~182	싱글1박
	보통호텔 숙박비	63.63 ~90.9	싱글1박, 조식포함
임 금	사무실비서 월 급여	1,364~1,545	학력 불문, 초임
	사무실직원 월 급여	1,636~1,818	대졸, 초임(수당별도)

자료원 : 후쿠오카 무역관 자체 조사

나. 물가 참고 자료

일본의 물가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최근 원/엔화 환율차 때문에 한국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에 과거처럼 살인적으로 높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품목	가격(엔화/USD:(2007년도1월말기준)	참고
폴로 면100% 남방셔츠	10290엔/84.48불	백화점 판매가/캐주얼, 긴팔
리바이스 청바지 501	12600엔/103.45불	
남성 아르마니 상하의 1벌	117000엔/960.59불(최저) 157000엔/1288.99불(중급)~ 283500엔/2327.57불(고급)	백화점 판매가/순모 100%, 춘추복, 바지 1벌 투피스 기준
여성 아르마니 상하의 1벌	114450엔/939.65불~ 123900엔/1017.24불	백화점 판매가/순모 100%, 춘추복, 스커트 1벌 투피스 기준
돼지고기 안심 1근	1578엔/12.96불(치바산)~ 1764엔/14.48불(카고시마산)	
스타벅스카푸치노 톨 사이즈	360엔/2.96불	
맥도날드 빅맥세트	580엔/4.76불	
에비앙 생수(330ml)	113엔/0.93불	편의점 등 소매점 판매가
최고급 아파트 가격	3730000엔/30623.82불	록본기 최고급 아파트의 평방미터당 매매가
중급 아파트 임대료 범위	200000엔/1642.03불~ 300000엔/2463.04불(동경)	중산층이 임대하는 아파트 하한-상한가 (2 BED룸, Un furnished 기준)
사무중심가 사무실 임대료 범위	38888엔/319.28불~ 44444엔/364.89불	(록본기 평당7~8만엔) 사무 중심가 사무실 임대료의 평방미터당 임대료 하한-상한가
모리나가 조제분유729그램	3000엔/24.63불	
중형기저귀 (60개들이)	1800엔/14.78불	상표: 메리르
맥클라렌테크노 XT 유모차	30000엔/246.30불	유아용 중급가격 모델
어린이집(데이케어센터) 월 소요비용	40000엔/328.41불(구립), 70000엔/574.71불(사립)	탁아시간5시간~9시간 범위, 통학용 교통비를제외한 전비용
사립 초등학교 등록금	30000엔(100000엔)	사토에 학원 사이타마현 수업료만. (중식비, 보충수업료 등 포함시)
휘발유(리터당)	150엔/1.23불	
대중교통(버스)	200엔/1.64불	한구간
대중교통(지하철)	140엔/1.15불	한구간
대중교통(택시)	660엔/5.42불	기본요금
유명 오케스트라 콘서트 티켓	10000엔/82.10불	스페인국립방송교향악단 공연
영화관람요금	1800엔/14.78불	1편당, 주말 저녁시간 기준
특급 호텔 숙박비	41580엔/341.38불	동경제국호텔 싱글룸 조식/세금/봉사료 포함가격
골프피	평일9000엔/73.89불, 토요일17500엔/143.68불, 공휴일16500엔/135.47불	이치하라 골프 클럽- 동경에서 1~2 시간 거리 퍼블릭코스 18홀, 캐디 없이 라운딩 시 비회원가(세금 포함)
루이비통 스피디 백	80850엔/663.79불(30인치), 77700엔/637.93불(25인치)	백화점 판매가격/ '06년 모델
양주 발렌타인 17년산	10492엔/86.14불	백화점 판매가격
BMW 525	6280000엔/51559.68불	4 DOOR, 오토매틱, 기본옵션

조사: KOTRA 동경무역관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한국에서 일본의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KOTRA 등 수출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시장개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KOTRA의 주요 시장 개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상세한 서비스 내용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자세한 안내가 게재되어 있다.

□ KOTRA 해외시장개척지원 서비스

1) 지사화 사업

지역별로(일본지역은 연간 이용료 360만원) 일정금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해당 지역 KOTRA 무역관 참가가 확정되면 수출희망품목에 대한 해외 현지 시장동향, 바이어발굴 의뢰, 거래상담 지원 등 토털 수출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지사정에 능통한 무역관 직원이 전담해서 수출지원 서비스를 행하므로 다른 일회성 서비스에 비해 밀도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수출중소기업에 인기가 높다.

2) 해외시장 조사 대행

수출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성 분석, 관심 바이어 명단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현지 시장의 분석자료 등을 의뢰할 수도 있다. 사안별로 서비스 이용가격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해당 품목의 현지시장성 분석이나, 일회성 바이어 정보 확인의 경우 유용한 서비스이다.

3) 수출 상담회

수출 상담회는 한국상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이나 유망 바이어를 해외 각지에서 초청 하여 한국기업과 상담회는 개최하는 것이다. 국내 참가업체 모집은 KOTRA 홈페이지나 경제 신문 등에 공지한다.

4) 해외시장개척단파견

KOTRA, 국내 지자체, 업종별 전문단체가 주관이 되어 국내 참가기업을 모집한 후 해외 현지로 직접 가서 바이어와 상담한다. 바이어는 해외 KOTRA 무역관에서 알선한다. 농수산물 시장개척단, IT시장개척단, 기계부품, 전자부품 시장개척단 등이 일본지역으로 주로 파견 된다. 자세한 일정은 KOTRA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인터넷을 통해 한국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바이어는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 KOTRA의 무역 포털사이트인 바이 코리아 (www.buykorea.org)는 품목 별, 국가 별로 거래 희망 바이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 JETRO 비즈니스 매칭 데이터베이스(www3.jetro.go.jp)
 - JETRO에서 제공하는 매치 메이킹 데이터베이스로 영문으로 제공됨

- 그 외 일본의 각종 조합, 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직접 검색하면 해당 회원 기업들의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다.
- 일본은 수많은 조합, 협회 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품목은 해당 조합이나 협회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색방법은 일본어 검색 웹사이트 (야후 재팬 등)의 검색창에서 한자로 해당 품목명과 조합, 협회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된다. 일본어는 한자가 많으므로 일본어를 모르더라도 개략적인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복장

정장이 원칙이고, 와이셔츠도 흰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비즈니스맨의 경우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약간의 색상이 가미된 복장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패션성이 강하거나 무늬가 요란한 복장은 점잖치 못하다는 인상을 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비즈니스맨은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 긴 팔 와이셔츠에 상의를 입고 (혹은 들고)다니기 때문에, 덥다고 해서 노타이 차림으로 다른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실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5년부터 일본 정부 주도로 Cool-biz(하절기 간편복장)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최근에는 노타이 차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중요한 상담이나 첫 대면 등에서는 아무래도 정장차림으로 나오는 것이 상대방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나. 명함

상담 시 명함 교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본에서 명함은 늘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필수품으로 인식되어 있다. 또한, 명함은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순 한글로 된 명함보다는 한자와 영어로 된 명함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가족으로 된 명함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며, 깨끗한 상태의 명함을 상대방에게 건네주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수첩이나, 지갑에서 때가 묻은 명함을 꺼내서 건네주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다. 상담자료(카다로그, 샘플)

상담이전에 자사 카다로그를 미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꼼꼼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상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인은 회사의 규모나 실적 등을 중시하므로 회사의 규모나 연혁,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회사소개자료나 공개해도 무방한 거래처의 리스트 등의 자료를 카다로그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상담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거래선 중 유력회사가 있다면 회사의 신용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일본인들에게 활자는 진실에 버금가는 것이므로 무역이나 기타 분야의 정기 간행물 등에 자사나 자사 제품에 대한 소개기사가 게재되었을 경우 이것을 보여주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작성하는 것이 비즈니스상담에는 효과적이나 별도로 구비되지 않을 경우 영어자료라도 준비하도록 하자.

라. 좌석

상대방 기업에 방문하였을 경우 방문자는 자리를 안내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상담 태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타협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인은 타협할 자세를 갖추고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이 너무 많거나 공격적이며 타협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경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노골적인 혐의 과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한 인상을 가질 수 있다.

상담은 중간관리층이 행하는 것이 좋고, 젊은 직원을 상담 대표로 보내는 것을 불쾌하게 받아 들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회사가 상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반대로 규모가 크지 않은 상담에 임원급이 참석하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담대표로는 중간관리층이 가장 적당하다. 상담 시에는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비어나 속어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통역을 두고 상담하거나 일본어에 대단히 능통하고 있지 않는 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어나 속어의 사용은 좋지 않다.

그러나 오래 동안 거래하여 서로간에 잘 아는 사이일 경우는 농담이나 익살스런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일본기업은 기본적으로 거래선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며 가능한 한 동일 기업과 오래 거래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어 거래선 선정에 대단히 신중하다. 따라서 첫 상담에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과욕은 금물이며 무엇보다 처음 상담에서는 일본측에게 신뢰할 수 있고 거래를 해도 안전한 상대방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일본기업과의 거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하는 한탕주의적인 거래태도는 버려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발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대화도중 상대방의 발언을 가로 막는 것은 대단한 실례이기 때문이다. 비록 상대방이 이야기가 요점을 벗어나고 있더라도 끝까지 들어준 후 얘기가 끝나면 "예, 그렇습니다만.." 이라고 발언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상대방의 질문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겸손은 일본인의 미덕이므로 일본인은 상대방의 상품에 관심이 전혀 없더라도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이 전혀 없거나 간단한 대답만을 하는 등의 경우는 관심이 없다는 의사표시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시장은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일단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처음으로 방문하여, 연회석을 마련하는 일은 금물이며, 추후 거래가 성약되고 거래관계가 잘 유지되고 상호 친하게 된 후에는 고려할만하다.

□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큰 기업의 경우 홈페이지 등에 거래처, 거래은행이 게재되어 있어 거래실적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큰 규모의 계약이나, 거래실적이 불분명한 바이어인 경우 일본의 유료 기업정보기관(제국데이터뱅크, 닛케이 텔레콤)을 통해 신용조사 의뢰를 해 볼 것을 권장한다.

중요한 상담과정은 반드시 문서(팩스, 우편, 이 메일 등)를 통해 교신하고, 보관하여 둔다. 또한, 거래조건, 대금지불 등 중요한 서신의 경우는 상대방 대표자의 날인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간혹 담당자의 서명만으로 작성된 서신이 있는 데 이는 향후 문제 발생 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한다.

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납기, 물량, 금액에 대한 도량형(단위)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대금결제 방법, 지불기한 등을 명시한다. 또한, 품질 불량문제 등 사후 클레임 발생에 대비하여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PL법(제조물 책임법)의 강화로 인해 수출상품의 결함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입자가 모든 책임을 수출자가 지도록 계약서에 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되는 일본은 보수적인 바이어들의 성향, 복잡한 유통경로, 우리와 많이 다른 상관행 등으로 인해 무역 및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진출 시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량 다품종 대응: 최소수량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래성약이 불가능하다.
- 품질 중시: 제출견본과 거래상품이 모든 면에서 일치해야 한다.
- 납기 엄수: 늦으면 계약이 취소, 클레임 소지가 있다.
- 유통경로 복잡: 사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 판매가 될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규제조항 사전 파악: 수입규제, PL법, 부당경쟁방지법, 약사법, 의장법, 상표법, 특허법 등 관련법규 조항의 사전확인 필요.
- 가격경쟁력 필수: 품질, 납기 등에 대해 장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최초 거래에는 우선 가격요소가 부각되어야 한다.
- 빠른 회신은 기본: 인과이어리에 대해 빠른 대응이 필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라도 최소한의 연장 또는 조정에 대한 답변이라도 송부하여야 한다.
- 일본시장으로 자사의 상품을 팔고 싶을 경우 그냥 “가죽제 가방”, “니트 스웨터”라고 하면 안 된다. 우선 신사용인지 여자용인지 정장 타입인지 비지니스 타입인지, 캐주얼 타입인지 자세히 명기할 필요가 있다. 니트웨어라고 해도 컷앤손(CUT & SEWN)인지, 폴패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상품의 정의에 따라 팔 상대가 전혀 달라지고 구체적인 바이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 자사 상품의 가격수준과 판매 희망장소를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고급점에 적합한 것인지 일반 대중 마켓에 적합한지 정해진다.

- 지금까지 일본과 거래한 적이 있으면 중복하지 않도록 일본의 고객명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과 OEM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견본을 보이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앞으로 OEM을 토대로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자기 회사의 견본도 타사에 보일 지도 모른다고 해서 일본기업이 신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자기상품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려야 한다. 가격이 싼 것인지, 주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명시한다. 타사와 비교하여 특징이 없는 상품으로는 값으로 승부하게 되는 데 저렴하지 않으면 안 팔리게 마련이다.
- 일본기업은 타사와 차별화된 신상품을 구하고 있다. 타사에 없는 신소재, 개성 있는 디자인, 부가가치가 창출된단지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계약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품질, 납기시기 등 기본적인 사전협의 사항은 상식선에서 완수해야 한다.
- 일본 내 수입수요가 높은 일상 소비재 (생활용품, 의류, 장신구 등)는 이미 거래선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신규 바이어의 발굴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팔아야 하므로 항상 현지의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안전” “건강” “쾌적” “환경”을 감안한 상품에 대한 니즈가 높다. 시대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 팔 경우, 훨씬 시장진출에 유리하다.
- 급히 바이어를 찾기 전에 시장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미에 맞는 지, 품질, 가격 면에서 현지 유사품과 경쟁력이 있는지, 자재가 일본 풍토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장성 여부가 스스로 확인되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며 어떤 경로로 나가면 좋을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사전조사의 결과, 일본에 맞지 않는 상품이라면 시장에 맞도록 개량하거나 포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OEM을 할 각오도 필요하다. 아무리 글로벌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지의 유행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 세부적으로 도시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동경의 경우, 오사카와 비교하면 화려하고 다소 큰 사이즈의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꽃이나 핸드백 디자인을 보면 오사카는 수수한 색깔에 비교적 소형상품을 선호하나 동경은 멋진 문양에 다소 큰 형태를 좋아한다.
- 또한 동경에서는 주문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에 반해 오사카는 중소기업이 많아 상담 시 담당자가 사장이나 책임자가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 일본에 팔려고 오는 사람은 상품 지식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 완성품을 팔면 그 이상 필요 없다는 태도이면 안 좋다. 부자재의 성질에 따라 완성품의 수명이 큰 차이가 나므로 그 상품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져야 한다.
- 준비가 부족한 사례도 많다. 완성된 견본은 준비되었지만 가격이나 납기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상담에 필요한 요소, 가격, 납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상담에 참여하여야 한다.

- 일본 시장을 표적으로 할 경우, 될 수 있으면 간단한 일본어판의 팜플렛이나 카탈로그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다. 또 직접 무역을 하려면 가급적 일본인을 고용하거나 일본어가 가능한 담당자를 양성하여 일본어로 거래할 수 있게 해야 순조롭게 진행된다.
- 마무리 포장에 중요하다. 구미에서는 물건만 좋으면 마무리나 포장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건 통용되지 않는다. 포장하기에 따라 팔림새가 좌우된다.
- 일본에서는 비즈니스라도 인간관계가 아주 중시된다. 모처럼 잘 되는 거래가 담당자가 바뀌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를 위해서 새로 교체된 담당자에게 비즈니스의 경위, 단서, 상품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교섭에 노력해야 한다.
- 욕심을 부려서 복수의 상품을 한꺼번에 팔려고 하지 말고, 주요품목을 정하여 거래를 신청하고 이 품목의 거래를 착실히 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 종류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만능 비즈니스맨은 일본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전문화된 상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본시장은 폐쇄적이다. 여러 가지 관세 이외에 규제가 많아 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들다”라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일본은 구미와 비교하여 수입관세가 평균적으로 저렴하고 비과세 품목도 많아 시장진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규제가 엄격한 점은 있지만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
- 만약 불행하게도 출하된 제품에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절대로 도망가거나 핑계 대지 말고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신용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장기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손해 봐야 이익을 얻는다”는 적극적인 해결 자세가 필요하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여기에서는 KOTRA가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는 지사화 사업의 일본지역 최근 성공사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가. 성공사례

1) B사 사례

B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5년8월이며, 도쿄무역관과 그 해 9월부터 지사화사업을 시작했다. B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지구본에 좀 더 아이디어를 더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지사화사업을 신청한 B사 제품을 CRM-Rainbow상에서 처음 접한 순간, 이 제품이라면 일본시장에도 충분히 통용되겠다는, 막연하지만 일말의 확신이 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인테리어 요소가 많이 가미된 문구로서 제품에 센서가 붙어 있어 밝은 곳에서는 세계지도가 보이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다수의 별자리가 보이게 설정된 제품이다. 동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시 한 번 제품사양에 대해서 검토하고 곧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제품판매상황 및 주요소비층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통화를 해 나가면서 막연히 생각했던 일본시장 판로개척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졌다.

도쿄무역관인 경우, 지사화 신규가입 신청업체가 하루에 한 두 건 있을 정도로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시장성 내지 상품성이 있어 보이는 제품은 그리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물론 전혀 시장성이 없다고 하면 그 또한 과장된 표현이겠으나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이라면 좀 더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선택 하는게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B사 제품은 솔직히 내 자신도 접해 보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B사 담당자에게 가격표를 요청하고, 좀 더 검토하고 연락을 드리겠다는 인사말로 통화를 끝냈다.

곧바로 인터넷검색 및 기존 문구점, 인테리어점 등을 대상으로 동종 제품의 유무를 조사해 보았다. 불이 켜지는 지구본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제품에 두가지 기능을 가진 동종제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서내 회의를 거쳐 B사제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9월부터 지사화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9월초에 동경 빅사이트에서 “제60회 인터내셔널 기프트쇼”가 열렸다. B사 제품 특성상 이러한 전시회가 일본시장 공략장소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지구본 샘플 2개를 직접 들고 B사 사장님과 전시장으로 같이 찾아갔다.

먼저 지구본을 다루는 전시부스를 방문해서 제품을 보여주며 제품설명을 하자, 3곳에서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L사에서는 금방이라도 구매할 것 같은 태세로 이것저것 많은 걸 물어왔다. 전시회가 끝난 다음, 전시회 때 만난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바이어를 직접 방문해서 구매의사를 타진했다. 가장 관심을 보였던 L사가 먼저 동사 바이어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고 샘플3개를 주문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 순간 반은 성공했다는 확신이 섰으며, 그 다음부터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샘플을 건네고 3주정도 지나자 첫 주문으로 600개, 한달 뒤에 1,200개 등 L사는 매달 일정량을 주문해 왔다.

L사와의 거래가 성공적으로 시작된 만큼,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바이어들에게도 자신감을 갖고 좀 더 과감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L사와 같은 판매처를 갖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상대에 있는 K사와 접촉을 할 때는 L사의 구매상황정보를 일부러 조금씩 들려줬다. 제품에는 꽤 관심을 보였으나 구매까지 신중하게 천천히 움직이던 K사는 예상했던대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빠르게 진행을 해 왔다. 곧바로 L사와는 제품을 다르게 보이고 싶다고 추가비용을 들여 자사 오리지널 포장박스 제작을 의뢰했으며 처음부터 1,000개의 주문을 해 왔다. 첫 주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추가로 800개를 주문할 정도로 열의를 보여, 당사자로서도 조금 놀랐다.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올해 1월에는 새로운 거래처로 E사를 발굴, 기존 2개 바이어와 별다른 문제없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부연 설명을 하므로써 의외로 E사와는 회사소개에서 제품설명까지 2주만에 첫 주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대로라면 B사 사장님 말씀대로 연간 100만불 수출은 무난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월 초, 뜻하지 않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지난 2001년부터 일본경제산업국에서 시행한 “PSE(전기용품 안전법)”의 유예기간 5년이 끝나고, 2006년 4월부터는 동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PSE마크가 없는 전기용품제품은 판매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B사 제품인 지구본인 경우도 전기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만큼 PSE마크를 부착해서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 PSE에 대해서는 지사화담당자 뿐만아니라 바이어들도 수입전부터 일본경제산업국에 PSE마크부착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했으나 그 당시에는 문구류이기 때문에 PSE적용대상외라는 회신을 받아 PSE마크부착 없이 판매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2월초 일본전역이 새로 시행되는 PSE법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시점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본경제산업국에 재도 확인을 한 결과, 전기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PSE적용대상이라는 이전과는 다른 답변을 듣게 되었다.

현재 B사는 PSE마크취득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제품을 개량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오는 7월에 동제품의 PSE 마크 취득은 무난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면 잠시 주춤했던 수출도 다시 활기를 찾아 연간 100만불 수출도 가능하리라 믿는다.

2) M 사 사례

M 사는 연마테이프를 제조하는 메이커로서, 동사가 코트라 동경무역관 지사화사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5년 9월이었다. 연마 테이프라고 하면 일상 생활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예서도 LCD/FPD 패널 및 유리 가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파이널 공정에 사용되는 제품이었다.

일본시장은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위치적인 요소 및 세계시장에서 자사제품의 품질 및 시장성을 확인할수 있는 바로미터가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접근을 하고 있으며, 동사도 마찬가지로 현재 세계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 기업과의 경쟁 또는 파트너쉽을 찾아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동경무역관 지사화사업을 진행하였다.

동경무역관 지사화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2005년9월이었으며, 마켓 및 바이어조사를 진행 하며 일본시장의 접근을 시도한것이 2005년 12월 일본 전시장 참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스타트를 하였다. 당시 전시회장을 방문, 경쟁회사의 제품을 보고 감탄을 하거나 화를 내면서 내년에는 꼭 자사제품을 전시장에 출품하겠다고 말씀하시던 동사 사장님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관련 제품 바이어 리스트업으로 인터넷 조사 및 전시장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일본바이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코트라를 설명하고 구매담당자를 찾아 담당자에게 동사를 어필, 관련 자료를 송부하겠으니 검토를 해달라고 영업을 전개 하였다. 물론, 동사의 사장님 및 직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제품 개발을 위해 전력을 다했으며 지금에서는 경쟁회사 의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개발에 성공을 하였다.

제품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한국제조업체를 지켜보는 일본 바이어의 특성상 인내를 가지며 진행을 하였으며, 진성바이어를 가려 내는것이 우선이었다. 접촉한 바이어수가 50개 이상, 방일출장 4회, 방한바이어 5회, 담당자들과의 전화 및 메일등의 교환은 점점 늘어만 갔다.

현재 M사의 일본바이어는 제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F사, H사, S사등으로 구분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 국내에서도 한국의 S사, L사, 외국계 한국진출 기업으로 부터도 테스트 받아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평가를 받았다. 동사는 끊임없는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일본바이어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했으며 이에 감복한 바이어가 이제는 동사 사장님을 믿고 비지니스를 진행하겠다고 고백 했을 때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이후 양사는 윈윈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하자고 협의를 맺었다.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엔드유저 1개사가 연간 사용하는 양이 100만불 이상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외 한국 국내 및 유럽쪽의 메머드급 회사와도 견적을 진행중에 있어 앞으로 3년안에 G7 및 G8(세대) 타켓을 맞추어 생산 라인의 증설을 고민 해야하는 시기가 올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많은 ‘스토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위험한 상황을 넘기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양사가 보여준 인내, 신뢰가 무엇보다 가장 컸다고 생각하며, 그 와중에 동경 무역관 지사화사업에 대한 확신 및 전담직원을 믿어주신 동사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섰다는 동사 사장님의 겸손한 말씀과 2005년 전시회에서 약속한 내용을 2006년 전시회 참가 및 참관으로 맺어진 많은 파트너십들을 이루어낸 동사의 웅비를 믿는다.

나. 실패사례

미용가전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는 A사(한국기업)는 미용기를 국내에서 개발하여 빅히트를 시키고, 일본의 B회사에 독점공급을 하였고,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과 그 상표를 국내 상표 등록은 A사에서 하고, 일본에서는 바이어인 B사가 등록하도록 일임하였다. 일본 내에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니 제조사에서는 판매를 하는 바이어가 일본 국내 상표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은 아니다. 한국에서 빅히트를 친 제품의 동일한 상표를 일본 국내에서 바이어가 등록하고 권리를 소유했다. 일본에서도 동 제품은 인기리에 판매되었으며 매스컴 등에서도 소개가 되며 제품의 브랜드는 동제품군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았다.

초기 모델 이후, 신모델을 등장시키며 제품의 인기와 판매는 더욱 촉진되려 했으나, 한국의 파트너사와 일본의 B사가 A사 몰래 한국내 타사에서 더 저렴한 제품을 개발해 일본 국내에서 A사 제품의 브랜드에 모델번호만 추가한 상태로 후속모델로서 판매를 개시한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동일 디자인제품이 출시되었으나 한국내 상표권은 A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일본의 경우 B사가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타사가 만든 유사제품이 동일 상표를 달고 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에 대한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었다. B사는 향후 일본에서 A사의 제품도 지속적으로 취급할 것을 약속했으나 제조원가가 더 저렴한 타사의 제품을 A사 제품이 이미 구축해놓은 브랜드의 힘을 이용해 고가로 판매할 수 있어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일본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 등의 각종 비용은 잉여투자 또는 부담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기초투자 비용으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통 한국 내의 등록만으로 일본에서도 통용된다고 생각하거나, 일본 내의 비용의 부담때문에 주저하거나 바이어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한국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한국 업체들이 일본 현지시장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등 각 종 등록에 대해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일본에서는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국민 건강보험, 은행 계좌 개설, 은행 대출 등이 불가능하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집을 구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동경의 주택가가 중심가를 중심으로 2006년도 이후 상승하고 있으므로, 선택이 쉽지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희망지역의 부동산업자(복덕방)를 접촉하여 물건을 물색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도일하기 직전에 인터넷으로

해당지역의 임대물건을 물색해 보거나, 최소한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업자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 업자에게 희망 임대료, 넓이, 교통수단 등을 알려주면 구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맨션을 소개해 준다. 집을 빌릴 때에는 집세 이외에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시키킹, 레킹,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료 등이 필요하며 이것을 다 계산하면 집세의 4 ~ 6개월 분이 된다. 또한 계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필요하다.

- 시키킹: 시키킹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 집세의 1~3개월 분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사를 나갈 경우, 집세 미납분과 수리 및 청소를 위해서 사용한다. 통상 맡긴 금액의 50% 정도 돌려 받는다.
- 레이킹: 레이킹이란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집세의 1~2개월 분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갈 때에도 돌려주지 않는다.
- 중개 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방을 소개한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보통 집세의 1개월 분을 지불한다.

그 밖에 임지에 사무실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아파만(아파트맨션)정보' 등의 주간지를 보고 부동산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집의 도면 등을 팩스로 받아 본 다음, 현지를 방문하는 편이 한 번에 많은 물건을 볼 수 있어 좋다.

부동산 업소에 비치된 물건 내역을 보면, 임대조건, 가장 가까운 역으로부터의 도보 소요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도보소요시간은 실제 걸어보면 2-5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통상 00역 도보 5분과 00역 도보 10분은 동일한 물건의 경우라도 월 임차료가 5,000-15,000엔 정도 차이가 있다.

1) 주택 임차 시 주의 사항

도로나 철로 인근의 경우, 의외로 소음이 큰 경우가 있으므로(특히 야간) 유의해야 하며, 다이에, 이토요카도, 자스코, 세이유 등 대형슈퍼가 인근에 있는 경우가 물가가 저렴하며, 부근에 유흥가가 있을 경우 소란하고, 사고도 많다.

건축 년 수가 오래된 경우, 임대료는 싸지만 입주 후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차고증명이 있어야 하나, 아파트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업자에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주차장도 별도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도쿄는 월20,000-50,000엔 전후, 기타 지역은 월 15,000-35,000엔 정도이다. 자동차등록 시 차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차고 증명서를 차고지(주차장)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주차장에 대한 복비(통상 1개월 치)도 지불해야 한다.

임대조건 중 보증금은 어느 정도 네고(협상)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에어컨이 방마다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 월 5,000엔 정도 임차료를 올려 주고 1대를 추가로 달아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점(거주기간을 감안, 직접 구입하는 것과 어느 쪽이 이익인지 고려해 보아야 함) 등을 감안하여 협상을 해야 한다.

외국인(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인)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주인이 종종 있으므로, 미리 부동산업자에게 그런 집은 보여주지 않도록 지시해 두고, 회사계약 (법인 계약이라고도 하며,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되는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통보해 주면 집구하기가 수월하다. 일본인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무실 현지직원의 양해를 얻어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대비도 필요하다.

통상 부동산업자만 만나고 집 주인과 대면할 기회가 없으므로, 집을 계약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업자에게 연락을 해 두어야 하며, 퇴거 시 원상 복구 비용을 물어야 하므로, 못 구멍, 벽의 흠집, 창외 알루미늄 샷시의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인터넷 가입의 경우 1달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 집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도 불가능하므로 더더욱 그러하다. 인터넷 회선 사업자와,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2중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조금 복잡하다. 집주인 등에 문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임대주택의 경우, 위치, 입지와 함께 조망, 전경 등이 큰 가격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생각하고, 대체로 고층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일본의 경우 분리수거의 종류가 많지는 않으나(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그러나 철저하게 분리하지 않으면, 수거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행정절차

1) 외국인등록

집을 구하고 나면,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것은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일본과 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자, 외교관, 영사관직원, 공용 여권 소유자, 미군 및 그 가족은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2) 등록절차

☐ 입국 시

일본에 90일 이상 거주할 예정인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은 일본에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고 있는 시구청촌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여행자는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서류로는 여권, 사진 2장(4.5cm×3.5cm). 단, 16세 미만인 사람은 사진이 불필요하다.

☐ 자녀가 출생한 경우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거주지 시청이나 구청의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재류 자격 취득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주의)필요서류로는 출생신고수리증명서 또는 아이가 병기된 여권 (여권 미 취득인 경우에도 등록 가능) 등이다.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는 의사나 조산부가 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의 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서를 내면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여권에 아이를 병기하려면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하여 후일 승인서를 받아서, 그 승인서를 가지고 주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여권에 병기 한다. 이 절차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외국인등록증교부 (카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외국인 등록증」은 일본에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16세 이상인 사람은 항상 소지할 의무가 있다. 등록 후 약 2주일 ~1개월 후에 발급 받으며 16세 미만인 사람은 신청한 날에 바로 교부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 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등록지의 시청 또는 구청에 가서 재발급 신청을 받아야 한다. 사진 2장(4.5cm×3.5cm) 이 필요.

외국인 등록 신청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시청(구청)내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담당 창구로 가서 건강보험신청을 하게 되는데, 월말에 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일할 계산하지 않고 1개월 치 보험료를 전액 징수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일본면허증 발급

한국운전면허증은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의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수속은 거주지 근처의 운전면허센터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다.

운전면허의 전환에 대해서는 JAF홈페이지를 http://www.jaf.or.jp/inter/fr/f_index5.htm 보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글(gif파일)대응)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운전면허신청서(시험장 비치)
- 사진1장(가로2.4cm×세로 3cm) 신청장소에서 유료로 촬영가능
- 한국의 운전면허증
- 여권(출입국 기록이 있는 것)
- 한국운전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

운전면허증 등에 대한 번역문은 공증이 필요하므로 발급국(한국)의 영사관 및 일본자동차연맹(JAF)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수수료는 면허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오토바이 면허 등은 한국의 1종면허의 경우 포함되어 있으나 일본면허로 변경시 기재비용을 더 내야 하며, 125CC 미만까지는 탑승이 가능하다.

다. 전화신청

전임자의 것을 인수하거나, 가까운 NTT전화국 등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 동시 가입 신청 서비스가 있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휴대폰의 신청은 각 휴대폰 회사에 따라 절차가 틀리나, 외국인 등록증이 있을 경우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휴대폰 기계의 가격은 0엔~30,000엔 사이이며 요금방식은 다양 하여 선호에 맞게 신청을 하면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연계한 IP 전화가 저렴한 가격과 국제전화비를 바탕으로 보급되고 있어, 집주인에게 문의하는 편이 좋다.

라. 구좌개설

우선 집세 자동이체를 위한 구좌개설이 필요하다. 구좌를 개설할 때, 집세 외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해 두면 편리하다. 구좌는 지정망이 확충되어 있는 미쯔비시 도쿄UFJ, 미즈호, 미쯔이 스미토모 은행 등 대형 은행에 개설하는 것이 좋다. 구좌개설 시에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일본), 인감(사인 가능) 이 필요하다. 구좌개설시 동시 신청하는 현금카드의 경우 최근은 생체코드(지문, 혈관등)을 응용한 인증을 추가로 선택할 수도 있어 보안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 비품 구입

일본의 경우, 집을 구할 때 아무런 집기나 비품이 없으므로 구입해야 할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물가를 감안하여 이삿짐으로 부칠 물건과 현지에서 구입할 물건을 사전에 면밀히 체크해 두어야 한다. 물론 현지인 또는 먼저 부임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가전제품

가전제품 양판점 또는 디스카운트 스토어 이용이 일반적이다. 동일한 상품의 경우에도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갖고 천천히 구입할 것을 권한다. 어디서 구입해도 신품의 경우 A/S에 문제는 없다. 물건에 따라서는 수출용으로 제작되어 220V 겸용(일본은 100V)인 것도 있으므로 귀국 후 사용하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가구

할인판매점에서 구입한다. 이 때 책방에서 무료 또는 저가로 판매하는 통신판매 카탈로그 등을 보고 가격 비교를 면밀히 해 두는 것이 경제적이다. 가전제품보다도 더욱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최근(2006 이후)에는 유럽의 IKEA 등의 브랜드에서 가구 등의 가격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 기타집기

할인점이나 집 근처 대형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IKEA, 무지루시, 도큐멘즈 등의 대형 마트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 통근

☐ 현지차량 운행

차량의 구입가격은 별반 문제가 없으나, 교통규칙이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차량 주차비 월 20~50,000엔이 소요된다.

교통규칙 준수와 양보가 생활화 되어 있다. 최근 주차위반 단속강화로 인해, 주차 위반이 거의 사라졌으며, 참고로 주차위반 벌금은 최고 1.5만엔, 속도위반은 최고 4만엔 이다.

한국인의 경우, 차량 차선 변경 시에 많은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방향에 따라 50m 정도는 전에 차선을 변경해 놓을 필요가 있으므로 가급적 네비게이션 등의 안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대중교통 이용

일본의 경우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 교통수단이 매우 비싸나, 시내의 주차료는 더욱 비싸기 때문에 정기권등을 끊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기권은 출발역에서부터 도착역까지 개인의 신분(학생, 대학생, 직장인등)에 따라 차등하여 발급하며 정해진 기간동안은 해당 구간내에서 횟수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가 있다.

동경의 경우 2007년 3월 이후부터는 동경의 JR라인과 국철이 모두 같은 SUICA, PASMO의 비접촉식 IC카드를 통한 제휴, 체크를 하고 있어 (한국의 T머니와 유사) 더 간편하게 지하철 및 버스 등을 이용하여 환승할 수가 있다.

8. 출장가이드

가. 국토

1) 개요

일본열도는 지각변동에 의해 형성된 산맥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의 약 3/4이 산지 혹은 구릉지대이고 2/3은 산림으로 덮여 있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섬의 수는 6,852개에 달한다.

일본 국토 면적

면적(km ²)	해안연장(km)	영해면적(km ²)	접속수역면적(km ²)	배타적 경제수역면적(km ²)
377,915	33,889	약43만	약32만	약405만

자료원: 일본국세도회 2006/07, 야노즈네타기념회 간

2) 영토 분쟁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북방 영토(에도로후 섬을 비롯한 총면적 5,036km²에 이르는 4개의 섬)를 러시아가 부당 점거하고 있다고 하여 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중국과는 석유자원개발 문제를 놓고 조어도를 둘러싸고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과 관련하여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국토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주변국과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3) 국토의 이용

일본은 1962년 이래 5번에 걸친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책정하여 국토 개발과 사회 자본의 정비를 추진하여 온 바 있다. 그러나 과밀, 과소, 도쿄 일극 집중 등의 문제가 발생, 수도 기능 이전 문제를 포함하여 국토 이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후 개발 행정의 지침이 되어온 전국종합개발계획의 준거가 된 국토 종합 개발법을 국토 형성 계획법으로 개칭하고, 중앙 주도에 의한 계획에서 탈피, 지방의 자율 및 부담을 촉구하는 지방 참가형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 이용의 변화

	1975		1995		2003	
	면적(만ha)	구성비(%)	면적(만ha)	구성비(%)	면적(만ha)	구성비(%)
농용지	576	15.3	513	13.6	482	12.8
농지	557	14.8	504	13.3	474	12.5
채초방목지	19	0.5	9	0.2	8	0.2
삼림	2529	67.0	2514	66.5	2509	66.4
원야	43	1.1	26	0.7	26	0.7
수면.하천.수로	128	3.4	132	3.5	134	3.5
도로	89	2.4	121	3.2	131	3.5
택지	124	3.3	170	4.5	182	4.8
주택지	79	2.1	102	2.7	110	2.9
공업용지	14	0.4	17	0.5	16	0.4
기타(주1)	31	0.8	51	1.4	57	1.5
기타	286	7.6	303	8.0	316	8.4
합계(주2)	3775	100.0	3778	100.0	3779	100.0

자료원: 일본국세도회 2006/07, 야노쓰네타기념회 간

주1: 사무소, 점포 등

주2: 러시아가 점거 중인 북방영토 및 독도를 포함

일본의 국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농용지는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이나 그 대신 주택지 및 사무소 등의 이용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인구

1) 인구 감소 시대의 도래

2005년 12월 27일 총무성이 공표한 국세 조사(매5년 마다 집계)에 의하면 2005년 10월 1일 시점에서 일본의 총인구(잠정치)는 1억2,7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명 가량 줄었다.

인구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전후 처음 발생한 사태로, 일본에서는 드디어 인구감소사회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의 연간추계> 역시 2005년의 출생자수는 107만 명, 사망자수는 108만 명으로 집계돼, 1만 명이 자연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최근 추계 인구

구분	총인구 (천명)	인구증가 (천명)	연령별 인구 (%)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01	127,313	387	14.4	67.7	18.0
2002	127,480	167	14.2	67.3	18.5
2003	127,687	207	14.0	66.9	19.0
2004	127,776	89	13.9	66.6	19.5
2005	127,757	-19	13.7	66.2	20.0

자료원: 총무성 <추계인구>, 일본국세도회 2006/07, 야노쓰네타기념회간에서 재인용

2) 소자화 및 인구 고령화 문제

일본의 소자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합계특수출생률(한 명의 여성이 평생에 걸쳐 낳는 자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1970년에는 2.13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1.29에 불과해 인구를 현재와 같은 규모로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수준인 2.1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아동수당 확충이나 보육 서비스 정비 등 다양한 소자화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편,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3) 외국인 인구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일본 내 외국인등록자수 (2005년 1월 1일 시점 불법체류자 207,299명 제외)는 188개국, 1,973,747명에 달한다. 외국인 등록자수는 총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2년에 총인구의 1%를 초과한 이래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적별 외국인 등록자 비율 (2004년 말 기준)

(단위:%)

한국, 북한	중국	브라질	필리핀	페루	미국	기타
30.8	24.7	14.5	10.1	2.8	2.5	14.6

자료원: (재)입관협회 <재류외국인통계 2005>, 일본국세도회 2006/07에서 재인용

국적별로는 한국, 북한이 가장 많은 607,419명이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 487,570명, 브라질 286,557명, 필리핀 199,394명 등이다. 추세로 보면 한국, 북한 국적의 외국인 등록자수는 1991년 말에 가장 많은 693,050명에 달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데 반해, 중국은 90년에서 2004년에 걸쳐 3배 이상, 브라질은 동기 5배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다. 민족

1) 일본인의 뿌리

일본인의 선조에 해당되는 집단이 일본 열도에 처음으로 건너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3~4만 년 전으로, 그 들은 약 10만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신인(호모사피엔스)의 직접 후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집단은 크게는 동남아시아에서 북상해온 그룹과 중앙아시아에서 남 시베리아를 향해 동진해온 그룹, 2 부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으로의 유입 루트는 한반도 경유 루트와 대만, 오키나와 등 남쪽 섬을 통한 북상 루트 2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부족하여 확실한 바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기나긴 구석기시대가 끝날 무렵 즈음에는 이미 죠몬인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이미 열도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민족국가 일본

죤몬인은 각지고 입체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몸집이 작지만 근육질의 단단한 체구를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약 2300년 전에 중국이나 한반도를 통해 건너온 야요이인은 길고 평편한 얼굴에 큰 몸집을 하고 있었다.

이들 도래계 야요이인은 큐슈북부로부터 일본 열도 각지에 퍼져 쇼몬인과 혼혈하며 본토인의 주체를 형성해갔다. 도래계야요이인의 영향이 적었던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에서는 각각 아이누와 류큐인이 쇼몬인의 모습을 유지하며 독자적 문화를 쌓아갔다. 그 결과 현재의 일본 열도에는 아이누, 본토인, 류큐인이라는 3개의 민족집단이 살고 있다. 따라서 엄격히 따진다면 일본은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

3) 일본인의 2중 구조

일본인의 얼굴을 살펴보면 평평한 얼굴, 입체적이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 등 다양하며 지역별로도 경향이 다르다. 이러한 경향은 쇼몬계열에 도래계열의 피가 지역별로 각각 다양한 수준으로 혼혈되어 생겼으며, 이들이 일본인의 근간을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일본의 사람들은 도래민의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으며 동일본의 사람들은 쇼몬인의 유전자를 비교적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쇼몬계와 도래계의 2 개통이 일본인 집단의 주요 구성요소를 이루는 점에서 흔히 일본인의 2중 구조라고 불린다.

쇼몬인은 각진 직사각형의 얼굴, 높은 코 등의 입체적 얼굴 생김새, 짙은 눈썹, 쌍꺼풀, 큰 콧볼, 긴 사지, 짙은 체모 등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도래계는 둥글거나 타원형 얼굴, 낮은 코 등의 평편한 얼굴 생김새, 옅은 눈썹, 작은 콧볼, 짧은 사지, 적은 체모 등이 특징이다. 원래 일본열도에 살면서 일본인의 원형을 이룬 것은 쇼몬인으로, 이에 도래인이 건너와 혼혈하며 현재의 일본인이 탄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라. 국가원수

1) 일본의 국가 원수는 과연 누구인가?

일본은 형식적으로는 일왕을 정점으로 하는 입헌군주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권재민을 원칙으로 하여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분리된 의회제 민주정 국가이다. 구제국헌법 제4조는 일왕을 원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헌법은 원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본의 국가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일본의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국사행위 등 형식적으로나마 원수로서의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의 태반을 행하는 일왕이 원수라는 설, 일본에는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 행정권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이라는 설, 입법행정사법의 3권의 최고위자공동원수설 등 학설이 분분히 갈려있다. 헌법 개정론에 있어서도 일왕을 원수로 규정하자는 논의는 주권재민과의 관계상 어렵다고 하여 삭제되었으며, 수상공선제를 도입하여 수상을 원수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안도 종교 개보수위원의 반대에 의해 삭제되었다. 일본의 주요 헌법학설은 원수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국 헌법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단어로서, 원수를 누구로 규정짓는가는 원수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원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2) 일왕

위와 같이 일본의 국가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이 없는 상황이나, 일본 정부 역시 일왕을 정의에 따라서는 ‘원수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애매성을 더하고 있다. 외무성 역시 각국에 대하여 ‘일왕은 일본의 원수’라고 통달한 바 있고 실제 외교 의전상으로도 일왕은 일본국 원수로 대우받고 있다. 또한 일왕은 국회의 지명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하고, 또 내각의 지명에 의거하여 최고재판소장관을

임명하며 헌법개정이나 법률, 조약 등을 공포하는 등 헌법에 의한 국사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왕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일체의 국정상의 권능을 지니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정치적 행위나 발언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민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려 있는 등 매우 특이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왕이 일본의 원수이든 아니든 일왕은 일본국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일본국 및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지니지 않는다. 현재의 아끼히토 일왕은 1933년12월23일 태생으로, 1989년 1월 7일 125대로서 즉위하였다. 참고로 한국은 일본국왕을 일왕이라고 칭하나, 일본국은 천황이라고 칭하고 있다.

3) 내각총리대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의 행정부인 내각의 수석각료의 호칭으로서 일본고유의 관직명이다. ‘총리’라는 약칭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수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총리나 수상 모두 영어로는 ‘Prime Minister’에 해당된다. 일본에서 내각총리대신의 부인은 흔히 ‘퍼스트레이디’라고 불린다.

일본의 총리는 다른 국무대신을 임명하고, 내각을 대표 하여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법률 및 정령에 연서를 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 현재의 일본 수상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1936년 7월 16일 생으로, 2007년 9월 취임하였다.

마. 행정구역

1) 都道府県

일본이 종래의 지방영주인 다이묘에 의한 지방통치체제인 번제를 폐지하고 현대적인 지방 행정구역인 현을 도입한 것(폐번치현이라고 함)은 1871년이였다. 그 후 통폐합 등의 조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도쿄 1都, 홋카이 1道, 오사카, 교토 2 府, 43県の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72년이다. 현재 일본의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1都1道2府43県の 광역 지자체가 있고 그 아래에 市町村이 있으며 町과 村은 여럿이 모여 하나의 郡을 이룬다.

2) 정령도시

상기의 도도부현 외에 일본은 지방자치법 제12조가 정하는 ‘대도시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도시(흔히 ‘정령지정도시’라고 칭함)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구가 있다. 2006년 2월 시점에서는 삿포로시, 오사카시 등을 비롯하여 15개의 정령지정도시가 존재한다. 정령지정도시가 되면 都道府県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재정상의 권한을 누릴 수 있고, 都道府県으로부터 다양한 사무에 대해 권한을 위양 받게 된다. 정령지정도시가 되기 위한 법정요건은 인구 50만 이상이나 실제로는 인구 100만 이상 혹은 가까운 장래에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80만 이상의 시가 지정되어 왔다. 한 편 인구 30만 이상인 중핵시, 20만 이상인 특례시 등도 존재한다.

3) 특별구

도쿄도만은 그 아래에 정령지정도시의 구와는 다른 특별구를 두고 있으며 현재 23개의 특별구가 있다. 특별구는 시정촌에 준한 지자체로서 기능하되, 도 행정의 일체성과 통일성의 관점에서 도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위치상, 都道府県市町村은 보통지방공공단체이나 특별구는 특별지방공공단체로 분류된다.

4) 3대도시권

메이지 시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농업을 기간 산업으로 하였으나 점차 중화학공업 등의 2차 산업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지방에서 대도시로 노동자가 유입되어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도쿄도, 오사카시,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한 3대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현저하여 이들 3대 도시 및 그 주변의 지역을 포함하여 3대도시권이라고 부르며 다른 대도시권과 차별화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전 인구의 약 절반 가량이 이 3개 도시의 도심 반경 50km에 집중해 있다.

5) 도주제(道州制)

현재 일본에서는 지방 분권형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나 기능 등이 재검토되며 도주제가 논의되고 있다. 도주제는 현행 도도부현제를 폐지하고 9~13개의 광역 행정체를 만들어 이에 자립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현재보다 중앙 집권체제가 느슨한 연방제 국가를 도입하자고 하는 논의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주제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만약 도주제가 도입된다면 일본의 모습은 현재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6) 시정촌합병

1988년에 71,314개에 달했던 시정촌의 수는 1922년 12,315개, 2006년 1,820으로 격감하는 추세이다. 이는 작은 정촌 등이 모여 하나의 시를 이루거나 하나의 정이 더 큰 정에 편입되는 등의 시정촌 합병의 결과이다. 이러한 시정촌 합병의 배경에는 지방분권의 추진, 소자고령화의 진전, 광역적 행정수요의 증대, 행정개혁 추진 등으로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의 행재정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있다.

바. 주한주재국기관

□ 공관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http://www.kr.emb-japan.go.jp/>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http://www.busan.kr.emb-japan.go.jp/>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http://www.jeju.kr.emb-japan.go.jp/>

□ 일본인단체. 기관

- 서울재팬클럽(주한 일본인 상공회의소): <http://www.sjchp.co.kr/>
- 부산일본인회: <http://www.pusanjc.com/>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http://www.jpfr.or.kr/>
-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서울사무소: <http://www.welcometojapan.or.kr/index.asp>
-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센터: <http://www.jetro.go.jp/korea/>
-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서울일본유학정보센터: <http://www.jasso.or.kr/>

□ 지자체

- 일본 지자체 국제화 협회 서울사무소: <http://www.clair.or.kr/>
- 북도호쿠3현북해도서울사무소: <http://www.beautifuljapan.or.kr/>

- 미야기현서울사무소: <http://www.miyagi.or.kr/>
- 니이가타현서울사무소: <http://www.niigata.or.kr/>
- 후쿠오카현서울사무소: <http://fukuoka.japanpr.com/>

□ 학교

- 서울 일본인 학교: <http://www.sjshp.or.kr/>
- 부산 일본인 학교: <http://www.pusanjc.com/school/>

사. 기후

1) 일본의 기후

4계절의 구분이 분명하며, 전 국토가 북에서 남으로 약 3,300km에 걸쳐 뻗어있고,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아시아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척양산맥이 가로지르고 있는 복잡한 지형과 해류에 의한 영향이 커 지역에 따라 적지 않은 기후 차이를 보임. 대부분의 지역이 '해양성 온대기후'에 속하나 북쪽 지역의 경우 아한대 기후를 나타내며 큐슈 이남 지역은 아열대 기후의 특징을 보임.

6월 초순부터 7월 중순에 걸쳐 약 1개월 이상 장마가 지속되며 8월 중순부터 10월에 걸쳐 남태평양에서 생성되는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음.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동남 계절풍이 태평양에서 불어오고 겨울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아시아 대륙에서 불어옴.

태평양 인근 지역은 대체로 여름에 비가 많고 겨울에는 건조한 바람이 부는 날이 계속됨. 반대로 동해 인근 지역에는 여름에 비가 적은 대신에 겨울에 눈이 많고 지역에 따라 적설량이 2-3미터에 달함. 도쿄의 겨울은 비교적 온화하며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것이 특징임.

2) 도쿄지역 기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의 같은 기간으로 구성됨. 봄에는 각지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 하고 동해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으로 인해 강풍이 발생하며, 초여름에는 '쯔유'라 불리는 우기를 거친 후 한여름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높은 습도로 인해 불쾌지수도 높음. 가을에는 각지에서 단풍을 볼 수 있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며, 겨울철에는 최고기온이 10도를 밑도는 날이 많지만 도심부에서는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뭄. 눈이 전혀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연 1회 정도 10cm가량 눈이 쌓이는 경우도 있음.

3) 오사카 지역 기후

오사카는 위도상으로 한국의 부산, 제주와 비슷한 위치이나, 기온상으로는 연평균 섭씨 2-3도 정도 높은 편임.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어 눈이 내리는 경우도 매우 드뭄. 5월 중순부터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날씨가 시작되고, 9월말까지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인 경우가 많음.

한국보다 평균기온이 높은 편이며 겨울철 난방은 온돌이 아닌 에어컨이나 히터를 주로 사용함. 일반 가정은 오히려 한국보다 매우 춥다고 느낄 정도이고, 호텔 등 숙박시설도 에어컨만을 사용하므로 다소 한기를 느낄 수 있음.

4) 나고야 지역 기후

남쪽으로 태평양을 접하고 서쪽에서 북쪽을 거쳐 동쪽에 이르기까지 산지로 둘러 쌓여 있는 분지 지형임. 하절기에는 남동계절풍이 불어와 매우 고온 다습하고 동절기에도 습도가 높은 날이 많지만 영하기온으로 떨어지는 날이 드물고 적설량도 매우 적은 편임.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나고야의 하절기는 통상 5월말부터 시작하여 9월말까지 계속 됨. 분지 지형의 특성상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짐. 봄, 가을은 짧은 편이며 대부분의 현지 주택에 온돌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동절기에는 한국보다 춥게 느껴짐.

5) 후쿠오카 지역 기후

큐슈는 위도가 대부분 제주도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 아열대성 기후를 보임. 특히 한 때 일본 국내 신혼여행지의 메카였던 미야자키를 가보면 길가에 죽 늘어서 있는 야자수 나무가 남국의 정취를 물씬 풍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계절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더 온화한 편임. 겨울에도 눈이 내리는 경우는 드물어 큐슈 지역 사람들은 스키를 타기 위해서 혼슈로 가야만 함. 대신 화산이 많아 온천이 풍부한 탓에 추운 겨울에는 곳곳에서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음. 바다로 둘러싸인 섬답게 무더운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해상 스포츠를 마음껏 즐기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김. 온갖 꽃이 만발하는 봄에는 특히 벚꽃이 많은 이로부터 사랑 받음.

주요도시 월 평균기온

(단위: °C, 2006년 기준)

도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삿포로	-4.1	-2.7	1.3	5.2	12.9	15.7	20.6	24.3	18.5	11.7	6.2	-0.5	9.1
센다이	0.7	2.2	5	9	15.2	18.9	21.5	24.5	20.4	15.5	10.1	4.8	12.3
도쿄	5.1	6.7	9.8	13.6	19	22.5	25.6	27.5	23.5	19.5	14.4	9.5	16.4
나고야	3.8	5.5	7.8	13	18.7	23.3	26.2	28.5	23.9	19.5	13.2	7.6	15.9
오사카	5.5	6.7	8.6	13.6	19.7	24.3	27.2	29.8	24.6	20.4	14.8	9.1	17
히로시마	5.3	6.1	8.1	13.2	19.2	23.4	26.6	29	23.4	20.1	13.6	7.9	16.3
후쿠오카	6.9	7.7	10.1	14.6	19.2	23.2	27.3	29	23.3	20.6	15	9.5	17.2
나하	18.1	17.9	18.4	21.2	24.8	26.8	29.1	29.2	27.8	26.1	22.9	19.7	23.5

주요도시 월 강수량

(단위: mm, 2006년 기준)

도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삿포로	132	89	117	95	45	77	107	37	58	91	182	118	1,146
센다이	16	63	71	76	102	155	325	41	215	305	143	91	1,600
도쿄	67	113	80	123	99	139	165	126	176	318	135	201	1,740
나고야	50	125	118	105	205	221	275	89	167	89	59	111	1,612
오사카	33	102	114	143	146	170	305	45	87	73	81	103	1,400
히로시마	36	82	104	271	334	295	312	150	228	29	68	54	1,960
후쿠오카	46	93	102	200	184	320	406	256	237	28	107	41	2,018
나하	192	102	113	305	334	334	114	142	136	39	117	143	2,068

아.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없으나, 동쪽에 위치함에 따라 도쿄의 경우 서울에 비해 일출 및 일몰 시간이 1시간가량 빠르며, 하계 썸머 타임제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

2) 근무시간

- 관공서: 9:30 - 12:00, 13:00 - 17:30 (월-금) / 주말 및 국경일 휴무
- 회사: 9:00 (9:30) - 12:00, 13:00 - 17:30(18:00) (월-금) / 주말 및 국경일 휴무
- 은행: 09:00 - 15:00 (월-금) 점심시간 근무 / 주말 및 국경일 휴무
- 우체국: 09:00 - 16:00 (월-금) 점심시간 근무 / 주말 및 국경일 휴무
- 편의점: 24시간 영업 / 연중무휴
- 백화점: 10:00 - 20:00 영업 / 연중무휴
- 슈퍼마켓: 10:00 - 21:00 영업 / 연중무휴

자. 도량형

일본의 도량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터, 그램, 톤, 리터 등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길 이

센티미터	미터	촌(寸)	척(尺)	간(間)	인치	피트	야드
1	0.01	0.33	0.033	0.0055	0.3937	0.0328	0.0109
100	1	33	3.3	0.55	39.37	3.2808	1.0936
3.0303	0.0303	1	0.1111	0.0167	1.193	0.0994	0.0331
30.303	0.303	10	1	0.1667	11.93	0.9942	0.3314
181.82	1.8182	60	6	1	71.583	5.9652	1.9884
2.54	0.0254	0.8382	0.0838	0.014	1	0.0833	0.0277
30.48	0.3048	10.058	1.0058	0.1676	12	1	0.3333
91.44	0.9144	30.175	3.0175	0.5029	36	3	1
미터	킬로미터	정(町)	리(里)	첸	마일	해리(海里)	英해리
1	0.001	0.0092	0.0003	0.0497	0.0006	0.0005	0.0005
1000	1	9.1667	0.2546	49.71	0.6214	0.54	0.5396
109.1	0.1091	1	0.0277	5.4229	0.0678	0.0589	0.0588
3297.3	3.9273	36	1	194.22	2.4403	2.1206	2.1192
20.1	0.0201	0.1844	0.0051	1	0.0125	0.0108	0.0108
1609.3	1.6093	14.752	0.4098	80	1	0.8689	0.8684
1852	1.852	16.977	0.4716	92.063	1.1508	1	0.9994
1853.2	1.8532	16.986	0.4719	92.122	1.1515	1.006	1

면 적

평방센티미터	평방미터	평방촌(寸)	평방척(尺)	평(坪)	평방인치	평방피트	평방야드
1	0.0001	0.1089	0.0011	0.0001	0.155	0.0011	0.0003
10000	1	1089	10.89	0.3025	1550	10.764	1.196
9.1827	0.0009	1	0.01	0.0002	1.4233	0.0098	0.0001
918.27	0.0918	100	1	0.0277	142.33	0.9884	0.1098
33058	3.3058	3600	36	1	5124.1	35.584	3.9538
6.4516	0.0006	0.7026	0.007	0.0002	1	0.0069	0.0007
929.03	0.0929	101.17	1.0116	0.0281	144	1	0.1111
8360.9	0.836	910.51	9.1051	0.2529	1296	9	1

평방킬로미터	아르	헥타	묘(畝)	정(町)	평방리	에이커	평방마일
1	10000	100	10083	100.83	0.0648	247.11	0.3861
0.0001	1	0.01	1.0083	0.01	-	0.0427	-
0.01	100	1	100.83	1.0083	0.0006	2.4711	0.0038
-	0.9917	0.0099	1	0.01	1542.4	0.0245	-
0.0099	99.173	0.9917	100	1	0.0006	2.4507	0.0038
15.424	154234	1542.4	-	1555.2	1	3811.3	5.9552
0.004	40.467	0.4047	40.804	0.4080	0.0002	1	0.0015
2.59	25900	259	2611.5	261.15	0.1679	640	1

체 적

입방센티미터	입방미터	입방촌	입방척	입평	입방인치	입방피트	입방야드
1	-	0.3593	-	-	0.061	-	-
-	1	35937	35.937	0.1664	61027	35.316	1.308
27.826	-	1	0.001	-	1.6981	0.0009	-
27826	0.0278	1000	1	0.0046	1698.1	0.9827	0.0364
-	6.0105	-	216	1	-	212.26	7.8611
16.387	-	-	0.0006	-	1	0.0005	-
-	0.0283	1017.5	1.0175	0.0047	1728	1	0.3703
-	0.7645	27474	27.474	0.1272	46656	27	1

리터	평방척	합(合)	승(升)	두(斗)	英갈론	美갈론	美부셀
1	0.0359	5.5435	0.5543	0.0554	0.2202	0.2642	-
27.826	1	154.25	15.425	1.5424	6.1278	7.3513	-
0.1803	0.0065	1	0.1	0.01	0.0397	0.0476	-
1.8039	0.0648	10	1	0.1	0.3972	0.4765	-
18.039	0.6482	100	10	1	3.9725	4.7656	-
4.5459	0.1631	25.173	2.5173	0.2517	1	1.201	-
3.7854	0.1359	20.983	2.0983	0.2098	0.8327	1	-
35.239	1.2662	195.35	19.535	1.9535	7.7602	9.2995	1

중 량

킬로그램	톤	문(匁)	관(貫)	근(斤)	폰드	英톤	美톤
1	0.001	226.67	0.2666	1.6666	2.2046	0.0009	0.0011
1000	1	-	266.69	1666.6	2204.6	0.9842	1.1023
0.0037	-	1	0.001	0.0062	0.0082	-	-
3.75	0.0038	1000	1	6.25	8.2673	0.0036	0.0041
0.6	0.0006	160	0.16	1	1.3227	0.0006	0.0007
0.4536	0.0004	120.95	0.1209	0.7559	1	0.0004	0.0005
1016	1.016	-	270.94	1693.4	2240	1	1.12
907.17	0.9071	-	241.91	1511.9	2000	0.8928	1

그램	문(匁)	캐럿	그레이	온스
1	0.2667	5	15.432	0.0352
3.75	1	18.75	57.871	0.1322
0.2	0.0533	1	3.0864	0.007
0.0674	0.0173	0.337	1	0.0023
28.349	7.5598	141.74	437.5	1

차. 출입국/비자

1) 여권 발급기관

- 서울: 노원구청, 서초구청,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 구로구청, 송파구청, 마포구청, 성동구청
- 지방: 각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

2) 여권 신청서류 (일반여권)

- 여권 발급신청서 (각 지역 여권발급창구)
- 여권용 칼라사진2매 (여권용 35mm X 45mm / 6개월 이내 촬영, 뒷 배경 흰색,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 및 귀 부분 보이게 촬영, 어깨까지만 촬영 / 얼굴길이 25mm ~ 35mm)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수료
 - 복수여권: 유효기간 10년 55,000원 / 5년 47,000원 / 5년 미만 15,000원
 - 단수여권: 20,000원
- 구 여권
- 도장 (본인 직접 신청 시 사인도 가능)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여권발급동의서(부 또는 모의 인감 날인)와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필요
-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관계서류
- 거주여권, 관용 여권의 필요 신청 서류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조
 - <http://www.0404.go.kr/>

3) 비자 발급기관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의 대사관 또는 총 영사관에서 신청가능
- 재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서울소재):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 재 부산 일본국 총 영사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재 제주 일본국 총 영사관: 제주도

4) 일본비자 신청서류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발급 신청서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비치되어 있음) 1통
- 사진 (칼라, 상반신, 4.5×4.5,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1매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매
- 신원보증서 (신청인의 신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서류)
 -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원
 -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 무직자의 경우 보증인 서류 및 관계증명용 서류
- 위 서류 중 만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 않으며 학생인 경우 여권, 사진, 신청서,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한 일본대사관(<http://www.kr.emb-japan.go.jp/>) 홈페이지의 비자 발급 안내 참조 요망

5) 비자 필요여부 및 특이사항

기본적으로 하기와 같은 비자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90일 이내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기를 희망 하는 경우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며, 본 조치는 취업 의도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아래 1~12에 해당하는 자가 사증면제 대상임.

□ 사증면제 조치 대상자

- 통과, 관광, 오락, 보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협의회, 콘테스트 등에 아마추어로서 참가하려는 자 ('아마추어로서의 참가'의 의미는 참가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며, 주최자가 부담하는 도항비, 체재비 및 입상자에 대한 상품 등은 보수로 간주 하지 않음)
- 지인, 친구, 친족 등을 방문하려는 자 (병문안, 관혼상제 등의 출석을 포함)
- 견학, 시찰 등의 목적을 가진 자 (예를 들어, 공장 등의 견학, 모범 시 등의 시찰을 행하는 자)
- 민간단체 주최의 강습, 회의 등에 민간인으로서 참가하는 자
- 일본에 기반을 갖지 않은 상태로 상담, 계약조인, 업무연락, 애프터서비스, 선전, 시장조사, 기타 모든 단기상용의 목적을 가진 자
- 단기 사내 강습을 받으려는 자
- 참배, 종교회의참가, 교회설립에 관한 업무연락 등을 행하려는 목적으로서 단기간 체재하려는 자
- 보도, 취재 등의 일시적 용무 (일본에 방문하는 국, 공빈 또는 스포츠 선수 등과 동행해서 행하는 취재활동 등)를 목적으로 하는 자
- 자매도시 또는 학교의 친선방문자 (친선사절이 행하는 홍보, 선전을 포함)
- 단기간의 어학연수 (어학연수를 90일 이내에 수료하고, 또한 해당연수 수료 후 계속해서 상급코스 등을 수강할 예정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이러한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학'의 재류자격 취득 필요)
- 기타 단기체재를 하려는 자. 예를 들어, 회사의 설립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단기간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 대학 수험자, 외국법 사무 변호사가 되기 위한 승인을 받는 등의 수속을 위해 체재하는 자 등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은 비자가 필요. 단, 외교 혹은 관용(공용)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외교 혹은 공무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종래부터 비자가 면제

위의 기간 중이라도 한국인이 단기체재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 심사 후 기존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함. 관광 목적의 관광비자신청(15일/ 90일)은 15일 관광 멀티플(제한 1년 내15일씩 출. 입국을 몇 번이고 할 수 있음. 단, 관광에 한해서만)과 3개월 단기체류비자(1년 에 1번, 3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 수 있음), 출장이나 사업으로 15일 초과 체재할 경우 상용비자 발급.

상사주재원의 재류기간은 3년, 1년, 6개월 또는 3개월이며 주재원 가족의 재류 기간은 주재원 본인과 동일함

- 6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필해야 함
 - 외국인 등록절차 및 수속
 - 시기: 일본 입국 일부터 90일 이내
 - 담당기관: 거주지의 市區町村 사무소
 -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 등록신청서 1부, 사진2매
- 재류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비자연장 필요
 - 관할지방 입국관리국에서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
 - 필요서류: 여권,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2부, 신청이유서 1부
 - 신원보증서 1부, 재류기간 갱신 필요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원 보증인의 보증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1부
- 재입국 허가
 - 장기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는 도중 일시 출국할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재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함. 동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 종래에 가지고 있는 비자는 자동 취소되므로 출국 후 재 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받아야 함
- 필요서류: 외국인 등록 증명서, 여권
- 재입국 허가의 종류에는 2종이 있음
 - 싱글: 1회 한 (수수료: 3,000엔)
 - 멀티플: 다 회 출국 및 재 입국 가능(6,000엔)
- 재 입국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재 입국 허가는 무효가 되며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아도 무효가 됨

6) 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 출입국 시 특별한 어려움은 없음. 일본어가 불가능해도 무관
-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별송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그 외의 여행자는 구두로 신고함. 용지는 항공기내, 선내, 세관에 준비되어 있음
- 일본 세관의 통관 검사는 비교적 관대한 편임. 세관원은 매우 수상한 인물에 한해 수화물의 개방을 요구함. 고가의 제품이라도 일본 현지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는 개인용 물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

- 단, 불법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엄격히 단속하며 특히 마약류를 상시 단속함

휴대품 면세범위

품명	수량 또는 가격
주류	3병 (760㎖를 한 병으로 계산)
담배	권련: 200개피 / 여송연: 50개피
향수	2온스 (56㎖)
기타	상기 품목을 포함, 개인당 200,000엔(원화 약 1,600,000원)까지 면세 대상임

- 다음 물품은 법률에 의해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 일본 당국은 하기 물품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소지해서는 안 됨
 - 마약, 각성제류, 총기, 도검류, 외설잡지, 테이프류, 야생 동물류, 식물, 의약품 등

카. 환율/환전

1) 개요

일본 화폐단위는 엔(Yen)이며 표시기호는 ¥임. 화폐는 주화와 지폐로 구성되어 있음. 주화는 1, 5, 10, 50, 100, 500엔 등 6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지폐는 1,000, 2,000, 5,000, 10,000엔권 등 4종임. 2004년 11월 1일부터 10,000엔권, 5,000엔권, 1,000엔권의 신권이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음. 새로운 은행권의 발행 후에도 현재의 은행권(구 지폐)도 계속해서 유효함. 일본은행은 2000년에 500엔권 주화의 디자인을 변경했고 2000년 7월에는 2000엔 권 지폐를 발행했음.

중앙은행 발행 화폐 이외에 한국과 같은 고액권 자기앞수표는 사용되지 않고 T/C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만 통용됨. 당좌수표의 경우 개인 당좌수표는 없으며 법인발행 수표만 통용됨. 엔달러 환율은 2007년 6월 22일 기준 USD 1 당 124.90엔, 엔원화 환율은 100엔당 749.39원임.

일본 출장 및 여행 출발 전 한국에서 미리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함. 일본의 환전업무는 자유화되어 있고 출장자의 경우 은행, 호텔 등에서 주로 환전하고 있음.

2) 환전 가능한 장소

□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지역

- 외환은행 도쿄 지점, 오사카 지점, 후쿠오카 지점

□ 나고야지역

-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원->엔, 엔->원)
 - 중부국제공항 출장소 (07:30-20:00 / 연중무휴),
 - 나고야지점 (09:00-15:00 / 토. 일요일 휴무)

- 미즈호 은행 (원->엔)
 - 나고야지점, 나고야 중앙지점, 나고야역전지점, 나고야빌딩지점, 오조네 지점 이찌노미야 지점, 오카자키 지점, 토요하시 지점 (09:00-15:00, 토. 일요일 휴무)
- 주쿄은행 (원->엔, 엔->원)
 - 본점영업소 (11:45-14:30, 토. 일요일 휴무)
- World Currency Shop (도쿄미쓰비시UFJ은행 계열 외화/환전취급점) (원->엔, 엔->원)
 - 나고야역전 메르사점 (10:00-18:00, 토 11:00-17:00, 일요일 휴무)
 - 나고야점 (09:00-18:00, 토 11:00-17:00, 일요일 휴무)
 - 사카에 메르사프랏츠점 (11:30-18:30, 토 11:30-17:00, 일요일 휴무)
- 우체국 (원->엔, 엔->원)
 - 나고야중앙, 치쿠사, 도요타, 나고 대학 내, 나고야 역 앞 분실(分室)

나고야 지역 해외발행 신용카드(PLUS, CIRRUS) 대응 ATM기 설치장소

설 치 장 소	층수	주 소	영업시간
UFJ 카드			
나고야힐튼호텔	1F	名古屋市中区栄1-3-3	7:00~23:00
나고야관광호텔	1F	名古屋市中区錦1-19-30	7:00~23:00
나고야니시키키워싱턴호텔프라자	2F	名古屋市中区錦3-12-22	24시간
웨스턴호텔 나고야캐슬	1F	名古屋市西区樋の口町3-19	7:00~23:00
메이테츠 메르사	B1F	名古屋市中村区名駅1-2-4	10:00~20:00
테루미나 CD코너	7F	名古屋市中村区名駅-1-2 名古屋ターミナルビル	9:00~21:00
메이테츠 백화점	1F	名古屋市中村区名駅1-2-1	월~토10:00~19:30 일,휴일10:00~19:00
유니몰	B1F	名古屋市中村区名駅-5-26 先ユニモール地下街	8:00~20:30
JR나고야 타카시마야	10F	名古屋市中村区名駅1-1-4	10:00~19:30
중부국제공항	2F	常滑市セントレア1-1	7:00~24:00
미쓰이 스미토모 VISA카드			
JR나고야 타카시마야	10F	名古屋市中村区名駅1-1-4	10:00~19:30
선로드 나고야서비스센터	B1F	名古屋市中村区名駅-7-25名古屋地下街サンロード	7:00~21:00
JCB카드			
도카이 영업부	1F	名古屋市中区新栄町2-13 栄 第一生命ビル	9:00~17:00
시티뱅크			
나고야지점	1F, 8F	名古屋市中区栄3-14-15 スギビル1F・8F	24시간
나고야역 출장소	33F	名古屋市中村区名駅-1-4 セントラルタワーズ内	평일10:00~19:00 토요일10:00~16:00
중부국제공항	2F	常滑市セントレア1-1	24시간
AEON 크레딧 서비스			
AEON ATSUTA 쇼핑센터	1F	名古屋市熱田区六野1-2-11	9:00~23:00
AEON 월드 데스트 나고야	1F	名古屋市中区錦3-4-6 桜通大津第一生命ビル	00:10~23:45
중부국제공항	2F	常滑市セントレア1-1	00:05~23:50
기타 설치장소			
자스코 모리야마점	1F	名古屋市守山区大字吉根字笹ヶ根559-2	9:00~22:00
자스코 세토미즈노점	1F	瀬戸市本郷町68	9:00~23:00
다이아몬드시티 원더시티	1F	名古屋市西区二方町40	7:00~22:00
자스코 도요타점	1F	豊田市広路町1-1	00:00~23:45
자스코 타카하시점	-	豊田市東山町1-5-1(店内オレンジ駐車場前)	9:00~21:00
지하철 혼고역	-	名古屋市中東区本郷2-132	00:15~23:50
AEO아리마쓰 쇼핑센터	2F	名古屋市緑区字有松町200	9:00~23:00

파. 교통/통신

1) 항공편

- 대한항공(KAL), 아시아나항공 (OZ), 일본항공(JAL) 등 6개 항공사가 인천, 부산, 제주와 일본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로에 취항.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은 KAL (대한항공) UAL (유나이티드항공), OZ(아시아나항공), JAL(일본항공), ANA(전일본공수), NWA (노스웨스트) 등이 취항하고 있으며, 김포공항과 도쿄 하네다공항을 연결하는 정기편에는 KAL(대한 항공), OZ(아시아나항공) ANA(전일본공수), JAL(일본항공) 등이 있음
- 항공임은 시기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왕복기준 30~50만원 사이임.
 - 연휴 기간에는 60만원~70만원 수준으로 상승되는 경우도 있음.

한국 → 일본

서울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매일	2시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NWA	매일	
	UAL	매일	
오사카 (大阪)	KAL	매일	1시간 3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UAL	매일	
나고야 (名古屋)	KAL	매일	1시간 3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후쿠오카 (福岡)	KAL	매일	1시간 5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삿포로 (札幌)	KAL	매일	2시간 35분
	JAL	매일	
나가사키 (長崎)	KAL	월, 토	1시간 20분
가고시마 (鹿児島)	KAL	수, 금, 일	1시간 20분
니이가타 (新潟)	KAL	매일	1시간 50분
	JAL	매일	
구마모토 (熊本)	ASIANA	월, 목, 토	1시간 20분
센다이 (仙台)	ASIANA	매일	2시간
고마츠 (小松)	KAL	월, 수, 금, 토	1시간 35분
	JAL	월, 수, 금, 토	
히로시마 (広島)	ASIANA	매일	1시간 20분
	JAL	화, 목, 일	
다카마츠 (高松)	ASIANA	월, 수, 토	1시간 20분
아오모리 (青森)	KAL	수, 금, 일	2시간 20분

아키타다 (秋田)	KAL	월, 목, 토	2시간 15분
오카야마 (岡山)	KAL	매일	1시간 30분
오이타 (大分)	KAL	금, 일	1시간 30분
토야마 (富山)	ASIANA	월, 수, 토	1시간 55분
오키나와 (沖縄)	ASIANA	수, 목, 일	2시간 5분
부산 출발 (김해국제공항)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매일	1시간 40분
	JAL	매일	
	NWA	매일	
오사카 (大阪)	KAL	매일	1시간 1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후쿠오카 (福岡)	KAL	매일	1시간 10분
	ASIANA	금, 일	
나고야 (名古屋)	KAL	매일	1시간 20분
	JAL	매일	
코마츠 (小松)	KAL	금, 토	1시간 30분
제주 출발 (제주국제공항)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월, 수, 금, 일	3시간 10분
오사카 (大阪)	KAL	매일	1시간 35분
	ASIANA	목, 일	
나고야 (名古屋)	KAL	수, 금, 일	1시간 40분

일본→한국

서울 도착 (인천국제공항)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東京)	KAL	매일	2시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NWA	매일	
	UAL	매일	
오사카(大阪)	KAL	매일	1시간 3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UAL	매일	
나고야(名古屋)	KAL	매일	1시간 3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후쿠오카(福岡)	KAL	매일	1시간 5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삿포로 (札幌)	KAL	매일	2시간 35분
	JAL	매일	
나가사키 (長崎)	KAL	월, 토	1시간 20분

가고시마 (鹿児島)	KAL	수, 금, 일	1시간 20분
니이가타 (新潟)	KAL	매일	1시간 50분
	JAL	매일	
구마모토 (熊本)	ASIANA	월, 목, 토	1시간 20분
센다이 (仙台)	ASIANA	매일	2시간
고마츠 (小松)	KAL	월, 수, 금, 토	1시간 35분
	JAL	월, 수, 금, 토	
히로시마 (広島)	ASIANA	매일	1시간 20분
	JAL	화, 목, 일	
다카마츠 (高松)	ASIANA	월, 목, 토	1시간 20분
아오모리 (青森)	KAL	수, 금, 일	2시간 20분
아키다 (秋田)	KAL	월, 목, 토	2시간 15분
오카야마 (岡山)	KAL	매일	1시간 30분
오이타 (大分)	KAL	금, 일	1시간 30분
토야마 (富山)	ASIANA	월, 목, 토	1시간 55분
오키나와 (沖縄)	ASIANA	월, 수, 금	2시간 5분

부산 도착 (김해국제공항)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매 일	1시간40분
	JAL	매 일	
	NWA	매 일	
오사카 (大阪)	KAL	매 일	1시간10분
	ASIANA	매 일	
	JAL	매 일	
후쿠오카 (福岡)	KAL	매 일	1시간10분
	ASIANA	금, 일	
나고야 (名古屋)	KAL	매일	1시간20분
	JAL	매일	

제주 도착 (제주국제공항)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東京)	KAL	월, 수, 금, 토	3시간10분
오사카 (大阪)	KAL	매일	1시간35분
	ASIANA	월, 금	
나고야(名古屋)	KAL	월, 수, 금	1시간40분

2) 선박편

운항구간	선사명	운항수	소요시간	문의처
부산-시모노세키	부관훼리	매일 1편	12시간 30분	TEL) 051-463-3161 ~ 9 02-738-0055
부산-오사카	팬스타라인 (팬스타드림호)	매일 1편	18시간	TEL) 051-468-0501 02-779-4011
부산-후쿠오카	한국고속해운 (비틀/제비)	매일3-4편	2시간 55분	TEL) 051-465-6111 02-730-8666
	미래고속	매일2-3편	2시간 55분	TEL) 051-441-8200 02-725-1101
	고려훼리 (뉴카멜리아호)	매일1편	16시간 30분	TEL) 051-466-7799 02-775-2323
부산-히로시마	부관훼리 (은하호)	매일1편	16시간 30분	TEL) 051-463-3161 ~ 9 02-738-0055

주: 여수-후쿠오카, 제주-나가사키 정기 페리가 취항 중

3) 일본 현지 교통기관 이용방법

□ 철도/지하철

전철을 탈 경우에는 먼저 표를 자동판매기로 구입함. 보통 판매기 위쪽에 노선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역의 이름과 요금을 알 수 있음. 목적지까지의 표를 구입한 다음에 개찰구 통과함. 단, 특급권, 좌석 지정권은 자동판매기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역의 매표소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버스

버스 중에는 정액요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과 승차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것 2가지가 있음. 정액요금 버스인 경우 버스 앞쪽 문에서 타고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함에 돈을 투입함. 승차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버스인 경우 대개 버스 가운데 부분에 있는 문으로 타고 정류장 번호표를 받음. 하차 정류장을 알려주는 안내에 따라 버스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 내릴 준비를 함. 내릴 때 운전석 위쪽에 있는 번호표 번호에 맞는 요금 금액을 확인하고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함에 돈을 투입함

□ 택시

앞 유리 왼쪽에 있는 표시등에 빨간색 글자로 “空車”라고 쓰여 있는 택시는 탈 수 있음. 달리는 택시의 경우 손을 들면 그 택시를 세운 다음, 운전기사가 왼쪽 뒷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면 승차함. 행선지를 운전기사에게 말하고 내릴 때 요금을 지불. 일본에서는 운전 기사에게 팁을 줄 필요가 없음.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승차 전 신용카드 지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4) 일본 현지 전화 이용방법

□ 일본 국내 지역으로 전화

한국과 기본적으로 동일함. 전화번호는 시외국번(지역번호)-시내국번-가입자 번호로 되어 있음. 상대방이 시외국번(지역번호)이 같은 경우에는 시내국번과 가입자 번호만 누르면 됨

□ 공중전화

동전 또는 텔레폰 카드를 사용. 텔레폰 카드에는 자기카드와 IC카드가 있음. 녹색, 회색 공중 전화기는 자기 텔레폰 카드 및 동전의 사용이 가능함. 동전은 10엔 또는 100엔의 사용이 가능하나 100엔 동전을 사용할 경우 잔돈은 반환되지 않음

자기 텔레폰 카드에는 500엔권과 1,000엔권이 있고, 1,000엔권은 1,050엔 분의 통화가 가능함. IC마크가 있는 IC공중 전화는 IC텔레폰 카드를 사용함. IC텔레폰 카드는 카드의 끝부분을 자른 뒤 포켓에 투입하여 다이얼함. 텔레폰 카드는 자동판매기와 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국제 통화 겸용 표시가 있는 공중 전화기는 국제전화 이용 가능

□ 시내전화

국번과 번호만 누르면 되며 요금은 1분에 10엔 (원화 약80원, 2006년 4월 기준)

□ 시외전화

- 0번을 포함한 해당지역번호(시외국번)를 누른 다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누름
- 국내 콜렉트콜
 - 먼저 106을 누름
 - 녹색, 황색, 청색 전화는 106을 누르면 되나 적색 전화는 공중전화를 운영하는 점포 주인의 도움을 받아야 함
 - 교환이 나오면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줌
 - 상대방의 콜렉트콜 수락이 있을 후 통화 가능

□ 국제전화

- 국제전화는 국제자동전화 (ISD)와 교환원을 통하는 국제수동전화의 2가지가 있음
- 국제자동전화
 - 전화통신회사의 고유번호-010-국가번호-시외국번-상대방전화번호를 누르면 됨(전화 통신 회사의 고유번호는 0041,0061,0033,001등이 있음)
- 국제수동통화: 먼저 010을 누른 다음 원하는 지역과 번호를 말하면 됨
- 국제전신전화 안내: 03-3270-5111

주요 국가의 국가번호

국가	번호	국가	번호
미국/캐나다	1	한국	82
프랑스	33	중국	86
영국	44	홍콩	852
독일	49	대만	886

5) 국내/국제 우편

국내 우편요금

내용	중량	요금
정형우편물(편지)	25g이하	80엔
	25g~50g	90엔
정형외우편물(소포)	~50g	120엔
	50g~100g	140엔
	100g~150g	200엔
	150g~250g	240엔
	250g~500g	390엔
	500g~1kg	580엔
	1kg~2kg	850엔
	2kg~4kg	1,150엔

- 정형우편물 규격
 - 길이 14~23.5cm, 폭 9~12cm, 두께 1cm이하, 무게 50g 이하
- 우편엽서: 50엔 (왕복엽서는 100엔)

6) 국제우편 요금 조회

- 일본우정공사 홈페이지(한글)
 - http://www.int.post.japanpost.jp/index.php?page=charge/cha/c_normal_air_1_1

하. 호텔/식당

1) 호텔

□ 일반 호텔 (ホテル)

일본의 일반 호텔 요금은 지역과 등급 및 시설 수준별로 매우 다양함. 연중 시기별 수급 동향에 따라 요금 변동폭도 적지 않음. 통상 싱글(1인실)을 기준으로 15,000~25,000엔 수준임. 주로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주요 도시의 호텔에서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호텔예약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는 현지 인터넷사이트도 늘어나고 있음.

일본 일반호텔 검색 및 예약 가능 인터넷사이트

사이트명	홈페이지	한국어 지원
일본숙박정보 (Accommodation JAPAN)	www.e-stay.jp	가능
JTB숙박예약정보 (JTB宿泊予約情報)	dom.jtb.co.jp/yado	불가
Rakuten TRAVEL (楽天トラベル)	travel.rakuten.co.jp	가능

□ 비즈니스 호텔 (ビジネスホテル)

잡은 출장 업무에 분주하고 저렴한 숙박비를 선호하는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 시설로 룸과 욕실이 일반 호텔보다 좁음. 요금은 싱글(1인실)을 기준으로 7,000~10,000엔 선으로 일반 호텔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며 룸 서비스, 포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일본 비즈니스호텔 검색 및 예약 가능 인터넷사이트

사이트명	홈페이지	한국어 지원
비즈니스호텔찾기달인(ビジネスホテル探しの達人)	www.good-businessshotel.com	불가
비즈니스호텔JARAN(ビジネスホテルじゃらん)	biz.jalan.net	불가

□ 료칸(旅館, 여관)

일본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일본 전역에 약 90,000개의 여관이 있음. 객실요금은 지역 및 시설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함. 유명 관광지의 고급 여관의 경우 특급호텔요금 수준 (약 30,000엔)에 달하지만 보통의 여관은 1인당 10,000엔 전후. 일반적으로 숙박 당일 석식 및 다음날 조식은 숙박비에 포함됨.

일본 료칸 검색 및 예약 가능 인터넷사이트

사이트명	홈페이지	한국어 지원
야도넷 (YADO NET)	www.yadonet.ne.jp	불가
일본여관명선 (日本旅館名選)	www.ryokan.or.jp	가능

□ 일본 주요 도시별 호텔 리스트

도쿄지역

호텔명	전화	팩스	홈페이지
시나가와프린스	03-3440-1111	03-3441-7091	www.princehotels.co.jp/shinagawa
뉴오타니	03-3265-1111	03-3221-2619	www.newotani.co.jp/tokyo
오쿠라	03-3582-0111	03-3582-3707	www.hotelokura.co.jp/tokyo
아카사카프린스	03-3234-1111	03-3262-5163	www2.princehotels.co.jp
제국	03-3504-1111	03-3581-9146	www.imperialhotel.co.jp

오사카지역

호텔명	전화	팩스	홈페이지
호텔닛코오사카	06-6244-1111		www.hno.co.jp
스위스호텔	06-6646-1111	06-6648-0331	www.swissotel-osaka.co.jp
난바워싱턴호텔	06-6212-2555	06-6214-3332	nanba.wh-at.com
뉴오타니호텔	06-6941-1111	06-6941-9769	www.newotani.co.jp/osaka
토요코인우메다	06-6376-1045	06-6376-1046	www.toyoko-inn.com/hotel/00034

나고야지역

호텔명	전화	팩스	홈페이지
웨스틴캐슬	052-521-2121	052-521-5195	www.castle.co.jp
매리어트어소시아	052-584-1111	052-584-1112	www.associa.com/nma
힐튼	052-212-1111	052-212-1225	www.hilton.com
도큐	052-251-2411	052-251-2422	www.nagoya-h.tokyuhotels.co.jp
젠니쿠그란코트	052-683-4111	052-683-4121	www.grandcourt.co.jp

2) 식당

도쿄 주요 한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쿠사노이에 본점 (草の家本店)	03-3589-0779	아카사카
한일관 (韓日館)	03-3589-1989	아카사카
일룡본점 (一龍本店)	03-3583-5278	아카사카
일룡별관 (一龍別館)	03-3582-7008	아카사카
천영 (千榮)	03-3452-1714	아자부
용원 (龍園)	03-3564-1576	긴자
도토리	03-3501-0535	유라쿠초

도쿄 주요 일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세리나	03-3402-1053	오쿠라 호텔
나다만	03-3221-4152	뉴오타니 호텔
오카한	03-3261-3417	뉴오타니 호텔
TOP OF THE TOWER	03-3238-0023	뉴오타니 호텔
깃쇼	03-3591-8191	긴자
사가미	03-3216-4624	유라쿠초

오사카 주요 한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진미갈비 (珍三カルビ)	06-6205-2959	大阪市中央区瓦町2-1-11
간니치간 (韓日館)	06-6213-3089	大阪市中央区西心齋橋2-4-6 第一花月Bldg2階
민조크무라 (民俗村)	06-6212-2640	大阪市中央区宗右衛門町1-22
아지요시 (アジヨシ) http://www.ajiyosi.co.jp/	06-6772-7760	大阪市天王寺区下味原町2-2
우메다메이게쯔칸 (梅田明月館) http://r.gnavi.co.jp/k043902/	06-6312-2989	大阪市北区堂山町5-17
하쿠운다이 (白雲台) http://www.hakuundai.com/	06-6774-4129	大阪市天王寺区下味原町5-26

오사카 주요 일식당

식당명	전화	주소
쓰르통단 (つるとんたん) http://www.tsurutontan.co.jp/	06-6211-0021	大阪市中央区宗右衛門町3-17
기소지 (木曽路) http://www.sake-kisoji.com/	06-6212-5155	大阪市中央区西心齋橋 2-1-3 다이아몬드빌딩 B1
쿠이다오레 (くいだおれ) http://www.cui-daore.co.jp/	06-6211-5300	大阪市中央区道頓堀1-8-25
간코스시 (がんこ寿司) http://www.gankofood.co.jp/	06-6376-2001	大阪市北区芝田1-5-11猪井梅田빌딩
히이키야 (轟眞屋) http://www.hiikiya.co.jp/	06-6315-9288	大阪市北区曽根崎2-7-13

나고야 주요 한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신라관 (新羅館)	052-702-2900	名東区極楽5-1
야키니쿠테라스 (焼肉テラス)	052-953-0233	中区錦3-12-32
서울야 (ソウル家)	052-959-2220	中区錦3-15-4
코리아타운 (KOREA TOWN)	052-262-7860	中区新栄1-12-30
북창동순두부 (BSD)	052-752-7474	千種区池下1-4-15
처가방 (妻家房)	052-563-9100	中村区名駅4-7-1

나고야 주요 일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기소지 카와라마치 (木曽路)	052-261-7469	中区新栄1-27-17
카니혼케 사카에쥬오 (かに本家)	052-263-1161	中区栄3-8-28
시라카와 (白河)	052-522-8331	西区城西4-30-3
카파 스시 (KAPPA 寿司)	052-541-7888	中村区 JRTwinTower 12F
엔쥬 (圓珠)	052-221-8989	中区栄1-12-37

후쿠오카 주요 한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미야코	092-271-7484	기온마치
한정	092-263-0334	나카고후쿠마치
한일관	092-752-4040	케고
명동	092-683-5651	와카미야

거. 관공서 관행

일본의 관공서는 대체로 친절하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임. 그러나 담당자의 재량이 적고 형식 및 절차에 구애를 많이 받아 구비 서류나 증빙서 등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경우가 많음. 또한 서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확인한 후 처리해두는 것이 좋음.

아직까지 공급자 위주, 관 위주의 사회구조에서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 사고자세인 경우도 있음. 그러나 급행료나 뇌물 등은 전혀 통하지 않으므로 일본의 공무원 은 청렴하다고 할 수 있음.

너. 공휴일

일본의 축일법(祝日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2007년도 일본 법정공휴일

일자 (요일)	공휴일 명칭
1. 1 (월)	신년공휴일 (元旦)
1. 8 (월)	성인의 날 (成人の日)
2. 11 (일)	건국기념일 (建國記念の日)
3. 21 (수)	춘분의 날 (春分の日)
4. 29 (일)	쇼와의 날 (昭和の日)
5. 3 (목)	헌법기념일 (憲法記念日)
5. 4 (금)	초록의 날 (みどりの日)
5. 5 (토)	어린이날 (こどもの日)
7. 16 (월)	바다의 날 (海の日)
9. 17 (월)	경노의 날 (敬老の日)
9. 23 (일)	추분의 날 (秋分の日)
10. 8 (월)	체육의 날 (体育の日)
11. 3 (토)	문화의 날 (文化の日)
11. 23 (금)	근로감사의 날 (勤勞感謝の日)
12. 23 (일)	천황탄생일 (天皇誕生日)

주: 법정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익일 휴무

□ 연중 일본 현지 출장을 피해야 할 기간

- 3월 중순 - 3월 말: 한국과 달리 일본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임. 이에 일본기업은 연도 결산월인 3월말까지 연간 결산업무를 반드시 종결해야 하기 때문에 3월 중순에서 말까지 외부인과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매우 강함.
- 4.29 - 5.5: '골든위크 (ゴールデンウィーク, GOLDEN WEEK)'라고 불리는 연휴기간으로 은행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휴무하여 업무 연락이 불가능함.
- 8월 중순: '오봉야스미 (お盆休み)'로 지칭되는 여름 휴가기간으로 8월15일을 전후 하여 약 10일간 상당수 기업의 직원들이 휴가를 떠나 접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12.29-1.3: '연말연시 연휴 (年末年始連休)'기간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이 일제히 휴무하는 기간임.

더. 여행시 유의사항

1) 일본 여행시 유의 사항

□ 지나친 자신 및 자국에 대한 칭찬

이러한 언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일본인은 상대방을 매너가 없으며 수양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일본의 가정교육 혹은 학교 교육의 제1조는 "자랑하지 말라" 임을 명심해야 함

□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피해야 함. "자랑하지 말라" 가 가정교육의 제1조 라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는 제2조에 해당함

□ 공격적인 자신의 주장과 입장 표명

"나온 말뚝이 정 맞는다"는 표현대로 일본인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입장을 고려하여 표현하고 행동하며, 상대방도 자신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함

2) 일본 비즈니스 상의 유의 사항

외국기업 특히 한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서로의 문화나 습관의 차이로 인해 각종 트러블이 발생하여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인의 비즈니스 룰이나 매너, 가치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인은 “협조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함

- 사내 부서간 협조 작업에서는 회의를 반복하여 한 부서만의 돌출된 행동은 삼가 함
- 회의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함. 결코 상대방을 묵살하려고 하지 않음
- 거래처나 관련회사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조정을 반복하여 인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냄
-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안이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끝까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 팀플레이 중시

업무에서 자기만 다른 동료들과 동떨어져 있거나 돌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업무는 팀 플레이를 강조하는 스포츠와 같아 개인 플레이 보다는 집단을 의식하며 그 안에서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음

□ 대화를 중시함

인간관계나 업무상의 트러블에 큰소리를 낸다든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거나 폭력을 써서는 결코 안되며 대화로 해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음

□ 상대를 이해하여 신용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림

타사와의 업무적인 미팅이나 세일즈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소개가 필요하며, 예약 없는 면회는 거절당하기 쉬움. 이 부분은 외국인으로서 큰 장애 요인이기도 함. 또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신뢰관계가 없으면 성공적인 거래가 될 수 없음.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순서임. 왜냐하면 상품의 우수성만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경쟁사에서 자사의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임.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적인 면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성의를 다해 상대방을 대해야 함. 일본인은 비즈니스 매너나 룰을 중요시하는 국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성과 우선주의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미덕임

계약서와 커뮤니케이션, 양쪽 모두 중요함. 설사 계약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인맥 만들기 중요

일반적으로 일본인은 외국인과 접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꺼려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처음으로 접촉하는 곳은 아는 일본인을 통한 소개를 바탕으로 접촉하는 것이 일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음. 회사 외부의 임원이나 고문 또는 어드바이저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보다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외의 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함

□ 시간을 엄수함

만날 시간보다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할 것. 적어도 방문 5분전에는 도착하는 것이 기본임. 약속시간에 늦었을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함

단 한번의 약속위반으로 이후의 모든 거래가 중지될 수도 있음.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신용을 쌓는 기본이 된다는 점을 명심

□ 존칭에 유의함

일반회화나 회의에서는 상대방에게 친구에게 사용하는 듯한 말투를 쓰지 않도록 함. 특히 서양에서처럼 성을 뺀 이름만을 부르거나 해서는 안됨

□ 각종 교류회에 적극적으로 참가

교류회는 인맥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명함을 교환 하고 얼굴을 익혀둘 것. 교류회의 다음날에는 자필로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후에 약속을 정하여 상대방의 회사를 방문함. 이렇게 하여 자신의 인맥을 넓혀 나갈 수 있음

□ 자신을 알리기 위한 식사 및 술자리도 중요함

단, 과음을 삼가고. 상대방 앞에서는 될수록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음.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으며, 설사 상대방이 피우고 있더라도 자신은 피우지 않는 것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음

□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피하도록 함

회의석상에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이에게 전달될 정도의 음량으로만 말할 것. 그 이상 커지면 불쾌한 잡음이 됨

□ 빌딩의 입구나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양보

현관 및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양보하는 것이 매너임

□ 택시를 탈 때에는 자신이 앞 좌석에 앉아서 요금을 지불함

3) 일본기업 방문 시 주의할 점

외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당신이 회사의 대표라는 인식을 갖고 행동해야 함. 당신 개인의 이미지가 그대로 회사의 이미지로 반영되지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유의함

□ 반드시 사전에 약속함

상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방문하는 것은 실례일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경우 허탕을 치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약속하고 방문하는 것이 기본예의 임. 사전에 방문목적, 방문일시, 소요시간 등을 밝히고 상대방의 확인을 얻어야 함. 사전약속은 상대방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어 상담의 원활화에 도움을 줄 것임.

□ 방문처에 대한 기초조사

처음으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기업의 사업내용을 비롯하여 경영방침, 주요 거래처, 업계에서의 위치, 신규 사업계획 등 가능한 최신정보를 많이 입수하는 것이 좋음. 상담 시 자기무장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됨. 또한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상대방의 소속부서명과 이름 등을 미리 메모하여 찾아가는데 실수가 없도록 준비함

□ 자료, 명함, 선물 등을 준비함

필요한 서류와 자료, 샘플 등을 리스트업하여 빠트리지 않도록 유의함. 또한 메모 도구, 명함 등도 확인. 일본은 명함이 꼭 필요한 사회이며 영업직의 경우에는 명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물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간단히 준비(일반 적으로 직원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소량 포장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나 드링크)한다.

□ 약속시간을 엄수함

약속시간보다 5-10분 정도 전에 접수처에 도착하는 것이 좋음. 약속시간에 늦거나 너무 빨리 도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폐가 됨. 지각은 비즈니스에서 신용을 잃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임.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임. 만일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앞의 상담이 늦어져서 약속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얼마 정도 늦어진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임

□ 접수처에서의 매너

타사 방문 시에는 제일 먼저 접수처 담당자에게 자신의 회사명과 이름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명함을 건네고, 00와 00시에 약속했다고 전함.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명함만 불쑥 내민다거나, 약속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님. 접수용 전화나 인터폰이 설치된 회사의 경우에는 번호를 눌러 자기가 도착했음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던가, 아니면 상대방의 지시에 따름. 접수처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원에게 자신이 찾아온 용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안내를 부탁함. 응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례임

□ 응접실에서의 매너

응접실에서는 안내인이 자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열이 낮은 자리(입구 쪽)에 앉아서 기다림. 방문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직위가 높은 순위로 상석(입구 쪽에서 먼 자리)부터 차례로 앉음

□ 응접실에서의 자리 배치

가방이나 샘플은 자기 발 밑에 둬. 팜플렛이나 샘플은 필요 시에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정면이 상대방으로 가도록 하여 두 손으로 전달함. 기다리는 동안이나 상담 중에 음료수를 대접받으면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상대방이 만약 회의 중이어서 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목례를 함

□ 명함 주고받기

- 방문한 쪽에서 먼저 내밌 (여럿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상사, 선배 순으로 내밌)
- 회사명, 이름을 말하면서 건넬
- 상대방이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건넬
- 상대방 명함은 두 손으로 받음
- 상대방 이름 한자의 읽는 법을 모르는 경우 공손히 물음
- 상대방 명함을 만지작거리거나 명함에 메모 등을 하지 않도록 함
- 상대방이 명함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강요하지 않음

방문한 곳에서 명함을 교환한 후에 상대의 명함은 자신이 앉은 테이블 오른쪽의 자신의 명함 케이스 위에 올려 놓음. 상대방이 복수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가로로 나란히 놓음. 상대 방의 명함을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바로 자신의 명함 케이스에 넣어서는 안 됨

□ 인사법

일본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인사법이 철저한 나라이며, 일본인끼리는 거의 악수를 하지 않음. 일본의 인사법은 상대방의 나이보다는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그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사내 복도에서 상사나 내방객을 지나칠 때는 가볍게 목례를 하지만, 업무적으로 만나는 납품처 관계자, 구입처 관계자, 그리고 동업자, 상사, 부하직원, 동료등과 교환하는 인사는 각각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인사예절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일본 통'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목도(15도)
 - 동료와의 아침 저녁인사, 상사나 고객과 복도에서의 인사
- 중례(30도)
 - 일반적인 인사로 고객을 응대, 배송할 때, 아침 저녁 상사에 대한 인사
- 최경례(45도)
 - 정식인사로 사죄하거나 감사하다는 인사

□ 대화시의 주의점

일본인은 태도나 언행에서 상담교섭(商談交渉) 이전의 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상담교섭 이전의 문제란 품질이나 가격도 매력적이지만, 그 영업맨의 태도나 말씨가 어떠한가, 또는 얼마나 좋은 인상을 보이느냐 하는 문제임.

일본어로 상담하거나 대화 할 때에 주의할 점은 발음이나 억양보다는 예의 바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임.

영업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바른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음. 언행으로 인해 품위나 수준까지도 의심받기 쉬움. 특히, 다리를 꼬고 앉거나 소파에 몸을 뒤로 젖혀서 앉는 행위는 불손한 태도로 보여지므로 삼가는 게 좋음

4) 기타 유의 사항

- 위험 지역
 - 일본은 비교적 치안이 안정되어 있어 위험지역은 거의 없으나, 심야 시간대 환락가나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함.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부모와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 팁제도
 - 일본에서는 팁제도가 전혀 없음. 심지어 서비스에 대해 호의로 팁을 주더라도 사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더. 유용한 연락처

외교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일 대한민국 대사관(대표전화)	03-3452-7611/9	03-5232-6911
주 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03-3455-2601	03-3542-2696
주 일 대한민국 대사관 문화 담당실	03-3988-9271	03-5476-4976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06-6213-1401	06-6213-0151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092-771-0461	092-771-0464
주 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011-621-0288	011-631-8158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045-621-4531	045-624-2963
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052-586-9221	052-586-9286
주 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025-230-3411	025-230-5505
주 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022-221-2751	022-221-2754
주 코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078-221-4853	078-261-3465

KOTRA 무역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KOTRA 도쿄	03-3214-6951	03-3214-6950
KOTRA 오사카	06-6262-3831	06-6262-4607
KOTRA 나고야	052-561-3936	052-561-3945
KOTRA 후쿠오카	092-473-2005	092-473-2007

주요 공공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03-5472-2641	03-5472-2640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03-3597-1717	03-3591-4601
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	06-6266-0847	06-6266-0803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	092-471-7174	092-474-8015
농수산물유통공사 도쿄농업무역관	03-5367-6656	03-5367-6657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본사무소	03-3508-0673	03-3508-0675
한국 경제연구센터	03-3543-1045	03-3545-0710
한국과학재단 도쿄사무소	03-3431-7215	03-3431-7218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도쿄사무소	03-3453-1484	03-3453-1484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03-3513-0233	03-3513-0234

금융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한국은행 (도쿄사무소)	03-3213-6961	03-3213-6959
한국수출입은행	03-3287-0925	03-3287-2435
외환은행 도쿄지점	03-3216-3561	03-3214-4491
외환은행 오사카지점	06-6630-2600	06-6630-2806
국민은행 도쿄지점	03-3201-3411	03-3201-3410
신한은행 도쿄지점	03-3578-9321	03-3578-9355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	03-3214-4541	03-3214-6933

투자진출지원 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아이치 투자 서포트 오피스	052-203-4527(영어/일어)	http://www.aibsc.jp/
일본 무역진흥기구 나고야 무역정보센터	052-203-4527	http://www.ietro.go.jp
아이치현 기업청	052-954-6692	http://www.pref.aichi.jp

일본 주재 언론사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연합뉴스	03-5571-4033	03-5563-1522
경향신문	03-3246-3690	03-3246-3691
대한매일신문	03-5715-3588	03-3740-3536
동아일보	03-3248-1251	03-3248-1254
문화일보	03-5908-4373	03-5908-4374
조선일보	03-3214-5236	03-3213-1060
중앙일보	03-3524-0333	03-3524-0334
한겨레신문	03-3639-8575	03-3639-8577
한국일보	03-3270-8371	03-3270-8372
매일경제신문	03-3257-8786	03-5298-7014
한국경제신문	03-3216-2363	03-3216-1687
파이낸셜뉴스	03-5255-7226	03-5255-7227
KBS	03-3485-5100/5500	03-3485-6529
MBC	03-5500-5871/2	03-5500-5875
SBS	03-6215-0087	03-6215-0089
YTN	03-5571-4033	03-5563-1522

외국인 대상 상담 창구 및 긴급 전화번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재)아이치현 국제교류협회(財団法人愛知県国際交流協会)	052-961-7902	http://www2.aia.pref.aichi.jp/
(재)나고야 국제센터(財団法人名古屋国際センター)	052-581-0100 (한국어대응)	http://www.nic-nagoya.or.jp/
외국인 의료센터(外国人医療センター)	052-588-7040	http://www.h6.dion.ne.jp/~mica/
Information on NTT service for 24 hours!	0120-019116	http://www.ntt-west.co.jp/service_guide
입국 관리국 외국인 재류 종합 정보 센터 (入国管理局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052-223-7336~7	
법무성 나고야 입국관리국(法務省名古屋入国管理局)	052-955-0927	http://www.immi-moj.go.jp
도쿄 변호사회 외국인 인권 구제 센터 (日本弁護士連合会)	03-3581-2201	http://www.nichibenren.or.jp/
메이테츠 고객센터(名鉄電車テレフォンセンター)	052-582-5151	
긴테츠텔레폰센터(近畿日本鉄道株)テレフォンセンター)	052-561-1604	
JR도카이 텔레폰 센터(JR東海テレフォンセンター)	052-561-4143	
일본 도로교통 정보센터(日本道路交通情報センター)	03-3264-1331	http://www.keishicho.metro.tokyo.jp/
경시청 교통상담코너(警視庁総合相談センター)	03-3593-0941	http://www.keishicho.metro.tokyo.jp/soudan/sougou/sougou.htm
경시청 운전면허 전화서비스 (警視庁運転免許テレホンサービス)	03-3450-5000	http://www.npa.go.jp/koutsuu/license_renewal/home.htm
한국통신(KT)콜렉트 콜	0053-821 0066-55-821	예: 일본에서 한국02-123-4567 으로 전화 00539-821⇒4⇒2⇒ 123-4567# ⇒통화00539-821⇒4 ⇒0⇒ 한국 교환원⇒통화
위급, 화재	119	
교통사고, 범죄	110	
날씨예보	177	
전보	115	
전화번호 안내 (유료)	104	
전화고장	113	
국제전보	03-3347-2345	

관광안내소 및 관광협회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및 인터넷 URL
나고야시나고야역 관광안내소 (名古屋市名古屋駅観光案内所)	052-541-4301	名古屋市 中村区 名駅1-1-4 (킨테츠나고야역 도보 5분)
나고야시가나야마 관광안내소 (名古屋市金山観光案内所)	052-323-0161	名古屋市中区 金山1-17-18(金山総合駅北口)
오아시스21 센터(オアシス21センター)	052-963-5252	名古屋市 東区 東桜1-11-1(오아시스21地下1階)
아이치현관광협회(愛知県観光協)	052-561-5231	http://www.aichikanko.jp/apta000.asp
기후현관광연맹(岐阜県観光連盟)	0120-310561	http://www.pref.gifu.lg.jp/pref/HIMIKO
미에현관광연맹(三重県観光連盟)	0120-301714	http://www.kankomie.or.jp
나고야 관광 컨벤션 뷰로 (名古屋観光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052-202-1143	http://www.ncvb.or.jp
여행자 인포메이션 센터 (ツーリス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03-3201-3331 075-344-3300	http://www.jnto.go.jp/info/support/tic.html

숙박 및 관광정보(인터넷 웹사이트)

기 관 명	홈페이지 주소
(사)일본호텔협회(社団法人日本ホテル協会)	http://www.j-hotel.or.jp
전일본시티호텔연맹(全日本シティホテル連盟)	http://www.jcha.or.jp
일본 관광여관 연맹(社団法人日本観光連盟)	http://www.nikkanren.or.jp
JAPANESE INN GROUP	http://www.jpinn.com
Accommodations JAPAN	http://www.e-stay.jp
국제관광여관연맹(社団法人国際観光旅館連盟)	http://www.ryokan.or.jp
일본 유스호스텔협회(財団法人日本ユースホステル協会)	http://www.jyh.or.jp
국민 휴가촌 협회(財団法人休暇村)	http://www.qkamura.or.jp
아이치 관광정보파일(愛知観光情報ファイル)	http://www.aichi-kanko.jp
기후관광 가이드(岐阜観光ガイド)	http://www.kankougifu.jp/
관광 미에(三重県観光情報)	http://www.kankomie.or.jp
The Roads Through Japan's Heartland (일본 중부지역 중심)	http://www.jheartland.com
비지트 재팬 캠페인(일본)(VISIT JAPAN CAMPAIGN)	http://www.visitjapan.jp
국제관광진흥회(JNTO)(日本国際観光振興会)	http://www.jnto.go.jp

러. 관광명소

1) 도쿄지역

○ 도쿄타워

- 개 요: 전장 333M의 철탑, 도쿄를 대표하는 타워로 1958년에 완성된 도쿄의 상징임.
- 교 통: 지하철 히비야선 가미야초역 하차, 도보 7분.

○ 도쿄국립근대미술관

- 개 요: 1952년 일본 최초의 국립미술관으로 개관된 후 1972년에 현재의 건물로 이전 개관되었음. 현재 본관에는 약 6,200 점에 이르는 작품이 전시되고 있음.
- 교 통: 지하철 도자이선 다케바시역 하차, 도보 3분.

○ 도쿄동

- 개 요: 각종 스포츠나 콘서트, 이벤트가 열리는 동으로 21번 게이트 옆에는 야구 체육 박물관도 있음.
- 교 통: JR 소부선, 지하철 미타선 스이도바시역 하차.

○ 도쿄 디즈니 리조트

- 개 요: 도쿄에서 가장 인기있는 테마 파크 리조트로, 여섯개의 특징있는 주제에 따라 구성된 디즈니랜드, 물을 테마로 만들어진 디즈니시, 쇼핑 센터, 특급 호텔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현재 전세계 테마 파크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
- 교 통: JR게이요선 마이하마역 하차, 도보5분.

○ 롯뽕기 힐즈

- 개 요: 2003년 4월에 준공된 롯뽕기힐즈모리타워를 중심으로 한 주상복합 고층빌딩 밀집지역. 야후, 라이브도어, 라쿠텐, M&A컨설팅 등의 IT, 금융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하고 있어 신흥부유층 밀집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쇼핑몰, 고급부탁, 영화관 등의 각종 상업시설, 모리미술관, 전망대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모으고 있음.
- 교 통: 히비야선, 오에도선 롯뽕기 역 하차, 도보 4분.

○ 오다이바

- 개 요: 도쿄항의 매립지에 만들어진 임해부도심 중 하나로 1995년 도쿄도의 7번째 부도심으로 책정된 후,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도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됨. 레인보브릿지, 카이힌공원, 후지TV본사사옥 등이 있으며, 인근 아리아케 지구에는 도쿄 내 최대 전시장인 박사이트가 있음.
- 교 통: 린카이선 다이바 역 하차.

○ 아키하바라

- 개 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상가 밀집지역. 대형가전양판점, 각종 게임, PC관련 및 전자부품 취급점포가 많으며,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성인물을 중심으로 ‘오타쿠’ 문화가 집결하는 곳으로 주목으로 받으며 유명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음.
- 교 통: JR 야마노테선, 소부선, 케이힌토호쿠선, 지하철 히비야선 아키하바라역 하차.

○ 에도도쿄박물관

- 개 요: 에도 시대부터 현재 도쿄에 이르기까지 변천 과정이 실물자료와 모형 등으로 소개되고 있음.
- 교 통: JR 료고쿠(兩國)역에서 도보 3분, 입장료 600엔.

○ 가마쿠라

- 개 요: 도쿄에서 1시간 거리에 소재, 1192년 봉건정부가 창설된 지역으로 조용한 절과 신사가 있음. 특히 700년 전에 만들어진 대불이 볼거리임.

2) 오사카지역

○ 오사카성

- 개 요: 오사카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4만 명의 인력을 들여 3년 간에 걸쳐 1585년 완성하였으나 그의 죽음과 함께 불타 거석이나 흔적 정도만 남아 있는 것을 도쿠가와 바쿠후의 제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개수한 것으로 오사카의 대표적인 상징물임.
- 교 통: JR이용 오사카조코엔(오사카성공원)역에서 하차

- **가이유칸(海遊館 <http://www.kaiyukan.com/index.html>)**
 - 개요: 환태평양 화산대에 생식하는 약 580종류 3만점의 생물을 모은 세계 최대급의 수족관임
 - 교통: 지하철 중앙선 오사카코우(大阪港)역 하차 도보5분. 입장료 2,000엔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 <http://www.usj.co.jp>)**
 - 개요: 할리웃 영화들의 주인공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세계적인 수준의 무비 테마파크임. 각종 3D, 4D 상영관 등이 볼거리
 - 교통: JR 오사카역에서 JR니시쿠조(西九条)역 방향으로 JR유니버설시티역 하차. 간사이 공항에서 JR 간사이공항 쾌속(関空快速)타승 JR니시쿠조(西九条)역에서 갈아탐. 입장료 4,950엔

3) 나고야지역

- **나고야 성 (名古屋城)**
 - 개 요: 161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대 기술을 결집하여 축조한 성으로 도쿠가와 가문의 영광이 서려 있음. 성내 니노마루(二の丸)정원을 포함한 주요 유적은 2차 대전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음. 현재와 같이 복원되면서 벚꽃 등 일본의 정취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유명함.
 - 교 통: 지하철 메이조센(名城線) 시야쿠쇼역(市役所駅) 하차, 도보 10분.
- **도쿠가와 미술관(徳川美術館), 도쿠가와엔(徳川園)**
 - 개 요: 도쿠가와 가문에 전해져 내려온 수많은 유품과 다이묘(大名, 영주)가 사용한 각종 도구를 전시하고 있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품을 중심으로 일본 국보 겐지 모노가타리 그림 두루마리(源氏物語絵巻)등이 있음. 미술관 옆에 소재한 도쿠가와엔(徳川園)은 일본 에도(江戸)시대 영주의 정원양식이 그대로 복원된 일본 전통정원으로 폭포에서 계곡을 지나 연못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본의 자연풍경을 응축 하여 재현하고 있음.
 - 교 통: JR츄오혼센(中央本線) 오오조네역(大曽根駅) 하차, 도보 10분.
- **아츠타신궁(熱田神宮)**
 - 개 요: 일본 삼종의 신기 중 하나인 쿠사나기노쓰루기(草薙剣)를 모시고 있는 신사임.
 - 교 통: 메이테츠 신궁전역, JR아츠타역, 지하철 신궁서역 하차.

4) 큐슈지역

큐슈에는 일 전에 일본의 국내 신흥여행지의 메카로서 이름을 날렸던 미야자키를 비롯하여 온천으로 유명한 벳푸나 유후인, 화산으로 유명한 아소산 등 관광지가 풍부하고 관광 자원 이 무수히 많다. 그리고 큐슈라고 해도 상당히 넓으므로 단기간에 전부 돌아보는 것은 무리 이므로 일단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역별로 혹은 관심사 별로 루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 큐슈 북부

큐슈 북부에는 큐슈의 수도로 불리 우며 상업도시로 발달해 후쿠오카시 및 제조업이 발달한 기타큐슈시 등이 위치하여 최첨단 문화와 전통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 모지향 레트로지구

-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모지향역을 중심으로 이국정서가 넘치는 풍취를 구경할 수 있다.

○ 다자이후 텐만구

- 학문의 신으로 숭배 받는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기리는 전국 텐만구의 총본궁이다.

○ 히코산

- 일본 3대 수도의 장으로 큐슈 전역에서 신앙시 되어온 산이다. 일본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우사신궁

- 전국 4만여 하치만사의 총본산으로 본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 큐슈 서부

고대의 낭만과 이국 정서가 넘치는 역사를 자랑하며 다채로운 문화를 풍부히 꽃 피우고 있는 곳이다.

○ 하우스텐보스

- 17세기 네덜란드의 거리를 재현하여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테마파크이다.

○ 요시노가리 유적

- 야요이시대 일본 최대급의 환호집락 유적으로 외지왜인전에 기술되어 있는 야마토국을 생각 하게 한다. 일본에서 두번째로 국영역사공원으로 정비, 공개되고 있다.

○ 평화공원,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 세계 최초로 원폭이 투하된 곳.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 큐슈 중부

수려한 계곡이나 화산 등 천혜의 관광 자연이 풍부한 곳이다

○ 구마모토성

- 일본 3대성 중의 하나로 뽀뽀하는 명성으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봄에는 주위에 벚꽃이 만발하여 감탄을 자아낸다.

○ 아소 화산

- 지금도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으로 나카다케 화구는 남북 1.1km, 동서400m, 주변 둘레 4km에 이른다.

○ 벳뿌

- 온천 원천수 및 용출량에서 일본 제1위로 꼽히는 벳뿌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온천 휴양지 이다. 벳뿌의 유명한 관광 명소로는 지옥 순례라고 하여 색이나 성분이 다양한 열탕이 200-300m 지하에서 분출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 다카치호 계곡

- 아소용암을 강이 침식하여 생긴 협곡이다. 이 곳의 마나이 폭포는 일본의 폭포 100선에 선정 되었으며 협곡을 보트를 타고 유람할 수도 있다.

○ 구쥬 고원

- 구쥬 산록에 넓게 펼쳐진 완만한 경사의 광대한 고원으로, 목가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 큐슈 남부

한 때에는 국내 신혼여행의 메카였던 미야자키, 가고시마 등이 소재하여 아직도 맑고 깨끗한 바다와 공기를 즐길 수 있다

○ 시가이아

- 광대한 부지에 리조트 호텔, 오션돔, 컨벤션센터, 어뮤즈먼트, 골프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 진 대형 리조트이다.

○ 니치난 해안

- 국도 220호선은 동쪽으로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브 루트이다. 이 도로를 따라서 30분 정도 달리다 보면 유명한 관광 리조트인 아오시마가 있다

○ 사쿠라섬

- 하루에 7번 모습이 바뀐다고 하는 활화산이 있는 섬으로 전망대, 용암도로 등이 추천 코스이다.

○ 오키나와

- 세계에 알려진 남국의 섬 리조트로서 아직 손 닿지 않는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